



연구보고서 2013-04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김미숙 · 이상영 · 정진욱 · 성균관대학교 서버이리서치센터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공저)

【공동연구진】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진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서버이리서치센터

수시보고서 2013-04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발 행 일 2013년

저 자 김 미 숙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9,000원

발간사 <<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새로운 국가건설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성취해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음은 물론이요, 이제는 상당수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실로 다양한 종류, 다양한 형태의 불안 및 위험을 여전히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전에 없는 불안과 위험을 호소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이미 오래전(1986)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이 『위험사회(Risks Society)』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는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위험사회’이다”라고 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경제적·정치적 사회발전이 개인의 안전 및 행복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중된 불안과 위험으로 이어지곤 한다는 것이다. 구미의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불안과 위험의 내용은 상당히 근원적인 것이어서,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등과 같은 물리적 내용 이외에도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등 실로 다양한 영역과 항목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불안 및 위험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관련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내기 위해서 올해(201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통해 실증적 조사 및 연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이번에 그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사회의 위험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단

위 전국사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외 ‘위험사회’ 논의가 담론에 치우친 나머지 실증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세미나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Korea Social Risk Index)를 새로이 개발 해내고 다양한 차원 및 영역별 계량분석을 시도하는 금번 발표의 장이 현 정부 들어 부쩍 강조하는 ‘국민행복,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진단 및 처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미숙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상영선임연구위원, 정진욱 초빙연구위원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홍석표·노대명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김영란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함인희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설문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원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조사개요	13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위험사회의 개념	21
제2절 위험사회 관련 선행연구 고찰	24
제3절 연구분석틀	28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33
제1절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 (Vulnerability)	33
제2절 한국사회의 위험노출 (Exposure)	48
제3절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Hazard)	65
제4절 한국정부의 대처능력 (Capability and Measures)	80
제5절 차원간 비교	93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0

제4장 한국의 위험사회지수 105

제1절 위험사회 지수 105

제2절 한국사회 위험지수 현황 110

제3절 위험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8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94

참고문헌 201

부록 205

부록1 영역별 주요 변수와의 연관성 분석 205

부록2 특성별 한국의 사회적 위험지수(Korea Social Risk Index) 237

부록3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설문지 289

표 목차

〈표 1-1〉 위험사회 영역 및 주요(조사) 내용	14
〈표 1-2〉 위험사회 차원 및 관련요인	15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8
〈표 2-1〉 위험의 유형과 주요 사례	25
〈표 2-2〉 위험의 차원별 위험도	26
〈표 2-3〉 홍성만의 위험사회 위험의 유형화	27
〈표 2-4〉 위험사회 위험의 유형화	28
〈표 3-1〉 4차원 평균 종합	99
〈표 4-1〉 영역별 인구사회학적 변수간 사회위험지수 평균차이 분석결과 요약	180
〈표 4-2〉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1	183
〈표 4-3〉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2	184
〈표 4-4〉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회귀분석 결과요약	185
〈표 4-5〉 영역간 상관관계	185

부표 목차

〈부표 1-1〉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05
〈부표 1-2〉 주요 변수와 건강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06
〈부표 1-3〉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07
〈부표 1-4〉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08
〈부표 1-5〉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09
〈부표 1-6〉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10
〈부표 1-7〉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11
〈부표 1-8〉 주요 변수와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212
〈부표 1-9〉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3
〈부표 1-10〉 주요 변수와 건강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4
〈부표 1-11〉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5
〈부표 1-12〉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6
〈부표 1-13〉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7
〈부표 1-14〉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8
〈부표 1-15〉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219
〈부표 1-16〉 주요 변수와 위험 노출의 연관성	220
〈부표 1-17〉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1
〈부표 1-18〉 주요 변수와 건강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2
〈부표 1-19〉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3
〈부표 1-20〉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4
〈부표 1-21〉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5
〈부표 1-22〉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6
〈부표 1-23〉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7
〈부표 1-24〉 주요 변수와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228
〈부표 1-25〉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29
〈부표 1-26〉 주요 변수와 건강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0

〈부표 1-27〉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1
〈부표 1-28〉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2
〈부표 1-29〉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3
〈부표 1-30〉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4
〈부표 1-31〉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5
〈부표 1-32〉 주요 변수와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236
〈부표 2-1〉 KSRI - 사회·인구학적 특성	237
〈부표 2-2〉 KSRI - 세대, 신뢰, 정치	238
〈부표 2-3〉 KSRI - 한국사회 전망	239
〈부표 2-4〉 자연재해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40
〈부표 2-5〉 자연재해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한국사회 전망	241
〈부표 2-6〉 자연재해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242
〈부표 2-7〉 홍수 및 태풍 관련 KSRI	243
〈부표 2-8〉 급격한 기후변화(지구온난화) 관련 KSRI	244
〈부표 2-9〉 황사 및 가뭄 관련 KSRI	245
〈부표 2-10〉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관련 KSRI	246
〈부표 2-11〉 건강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47
〈부표 2-12〉 건강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248
〈부표 2-13〉 건강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249
〈부표 2-14〉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관련 KSRI	250
〈부표 2-15〉 먹거리(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관련 KSRI	251
〈부표 2-16〉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관련 KSRI	252
〈부표 2-17〉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관련 KSRI	253
〈부표 2-18〉 생애주기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54
〈부표 2-19〉 생애주기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255
〈부표 2-20〉 생애주기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256
〈부표 2-21〉 노후 불안 관련 KSRI	257

〈부표 2-22〉 가족 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관련 KSRI	258
〈부표 2-23〉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 KSRI	259
〈부표 2-24〉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 KSRI	260
〈부표 2-25〉 사회생활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61
〈부표 2-26〉 사회생활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한국사회 전망	262
〈부표 2-27〉 사회생활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263
〈부표 2-28〉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관련 KSRI	264
〈부표 2-29〉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관련 KSRI	265
〈부표 2-30〉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관련 KSRI	266
〈부표 2-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KSRI	267
〈부표 2-32〉 경제생활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68
〈부표 2-33〉 경제생활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269
〈부표 2-34〉 경제생활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270
〈부표 2-35〉 실업 및 빈곤 관련 KSRI	271
〈부표 2-36〉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관련 KSRI	272
〈부표 2-37〉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확률폭등 등) 관련 KSRI	273
〈부표 2-38〉 경기침체 및 저성장 관련 KSRI	274
〈부표 2-39〉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75
〈부표 2-40〉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276
〈부표 2-41〉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277
〈부표 2-42〉 북한의 위협(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관련 KSRI	278
〈부표 2-43〉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관련 KSRI	279
〈부표 2-44〉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관련 KSRI	280
〈부표 2-45〉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관련 KSRI	281
〈부표 2-46〉 환경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282
〈부표 2-47〉 환경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283
〈부표 2-48〉 환경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284

〈부표 2-49〉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관련 KSRI	285
〈부표 2-50〉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관련 KSRI	286
〈부표 2-51〉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관련 KSRI	287
〈부표 2-52〉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관련 KSRI	28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13
[그림 3-1] 7개 영역 위험 취약성 비교	33
[그림 3-2] 자연재해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34
[그림 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취약성	35
[그림 3-4] 건강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36
[그림 3-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취약성	37
[그림 3-6] 생애주기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38
[그림 3-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취약성	38
[그림 3-8] 사회생활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39
[그림 3-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 위험 취약성	40
[그림 3-10] 경제생활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41
[그림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취약성	42
[그림 3-12]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43
[그림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취약성	44
[그림 3-14] 환경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45
[그림 3-1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취약성	46
[그림 3-16] 가장 취약한 위험영역	47
[그림 3-17] 취약한 위험영역 전체 항목비교	48
[그림 3-18] 7개 영역 위험노출 정도 비교	49
[그림 3-19] 자연재해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50
[그림 3-2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노출정도	51

[그림 3-21] 건강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52
[그림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노출정도	53
[그림 3-23] 생애주기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54
[그림 3-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노출정도	55
[그림 3-25] 사회생활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56
[그림 3-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 위험 노출정도	57
[그림 3-27] 경제생활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58
[그림 3-2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노출정도	59
[그림 3-29]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60
[그림 3-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노출정도	61
[그림 3-31] 환경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62
[그림 3-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노출정도	63
[그림 3-33] 가장 많이 노출된 위험	64
[그림 3-34] 노출정도 위험영역 전체 비교	65
[그림 3-35] 7개 영역 발생가능성 비교	66
[그림 3-36] 자연재해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67
[그림 3-3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발생가능성	68
[그림 3-38] 건강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69
[그림 3-3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발생가능성	69
[그림 3-40] 생애주기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70
[그림 3-4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발생가능성	71
[그림 3-42] 사회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72
[그림 3-4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73
[그림 3-44]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74
[그림 3-4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74
[그림 3-46]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75
[그림 3-4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발생가능성	76
[그림 3-48] 환경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77

[그림 3-4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발생가능성	77
[그림 3-50]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	78
[그림 3-51] 발생가능성 위험영역 전체 항목별 비교	79
[그림 3-52] 7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80
[그림 3-53]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81
[그림 3-5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능력	82
[그림 3-55] 건강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83
[그림 3-5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정부대처능력	84
[그림 3-57]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85
[그림 3-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능력	85
[그림 3-59]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86
[그림 3-60] 인구사회학적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87
[그림 3-61]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88
[그림 3-6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88
[그림 3-63]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89
[그림 3-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정부대처능력	90
[그림 3-65] 환경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91
[그림 3-6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정부대처능력	91
[그림 3-67] 정부가 가장 잘못 대처하는 위험영역	92
[그림 3-68] 위험영역 정부대처능력 전체 항목별 비교	93
[그림 3-69] 자연재해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4
[그림 3-69-1] 비교: 전체 4차원 평균	95
[그림 3-70] 건강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5
[그림 3-71] 생애주기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6
[그림 3-72] 사회생활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7
[그림 3-73] 경제생활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7
[그림 3-74]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8
[그림 3-75] 환경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99

[그림 3-76] 4차원간 비교	100
[그림 4-1] Risk as a result of Vulnerability, hazard and deficiencies in preparedness.	108
[그림 4-2] The conceptual framework to identify risk.	109
[그림 4-3] KSRI	110
[그림 4-4] KSRI - 7개 영역별 위험요소	112
[그림 4-5] KSRI - 성별	113
[그림 4-6] KSRI - 연령별	114
[그림 4-7] KSRI - 교육수준별	115
[그림 4-8] KSRI - 직업별	115
[그림 4-9] KSRI - 세대별	116
[그림 4-10] KSRI - 대인신뢰	117
[그림 4-11] KSRI - 대 기관신뢰	118
[그림 4-12] KSRI - 정치정향	119
[그림 4-13] KSRI - 지지정당	120
[그림 4-14]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21
[그림 4-15]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21
[그림 4-16] KSRI - 한국 정치전망	122
[그림 4-17] KSRI - 한국 경제전망	123
[그림 4-18] 자연재해 관련 KSRI	125
[그림 4-19] 자연재해 관련 KSRI- 성별	125
[그림 4-20] 자연재해 관련 KSRI - 연령별	126
[그림 4-21] 자연재해 관련 KSRI - 세대별	127
[그림 4-22] 자연재해 관련 KSRI - 대인신뢰	127
[그림 4-23] 자연재해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28
[그림 4-24] 자연재해 관련 KSRI - 정치정향	129
[그림 4-25] 자연재해 관련 KSRI - 지지정당	129
[그림 4-26] 자연재해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30

[그림 4-27] 자연재해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31
[그림 4-28] 자연재해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31
[그림 4-29] 자연재해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32
[그림 4-30] 건강 관련 KSRI	133
[그림 4-31] 건강 관련 KSRI - 성별	133
[그림 4-32] 건강 관련 KSRI - 연령별	134
[그림 4-33] 건강 관련 KSRI - 세대별	135
[그림 4-34] 건강 관련 KSRI - 대인신뢰	135
[그림 4-35] 건강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36
[그림 4-36] 건강 관련 KSRI - 정치정향	136
[그림 4-37] 건강 관련 KSRI - 지지정당	137
[그림 4-38] 건강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38
[그림 4-39] 건강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38
[그림 4-40] 건강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39
[그림 4-41] 건강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40
[그림 4-42] 생애주기 관련 KSRI	140
[그림 4-43] 생애주기 관련 KSRI - 성별	141
[그림 4-44] 생애주기 관련 KSRI - 연령별	142
[그림 4-45] 생애주기 관련 KSRI - 세대별	142
[그림 4-46] 생애주기 관련 KSRI - 대인신뢰	143
[그림 4-47] 생애주기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43
[그림 4-48] 생애주기 관련 KSRI - 정치정향	144
[그림 4-49] 생애주기 관련 KSRI - 지지정당	145
[그림 4-50] 생애주기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45
[그림 4-51] 생애주기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46
[그림 4-52] 생애주기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47
[그림 4-53] 생애주기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47
[그림 4-54] 사회생활 관련 KSRI	148

[그림 4-55] 사회생활 관련 KSRI - 성별	149
[그림 4-56] 사회생활 관련 KSRI - 연령별	150
[그림 4-57] 사회생활 관련 KSRI - 세대별	150
[그림 4-58] 사회생활 관련 KSRI - 대인신뢰	151
[그림 4-59] 사회생활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52
[그림 4-60] 사회생활 관련 KSRI - 정치정향	152
[그림 4-61] 사회생활 관련 KSRI - 지지정당	153
[그림 4-62] 사회생활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54
[그림 4-63] 사회생활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54
[그림 4-64] 사회생활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55
[그림 4-65] 사회생활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55
[그림 4-66] 경제생활 관련 KSRI	156
[그림 4-67] 경제생활 관련 KSRI - 성별	157
[그림 4-68] 경제생활 관련 KSRI - 연령별	157
[그림 4-69] 경제생활 관련 KSRI - 세대별	158
[그림 4-70] 경제생활 관련 KSRI - 대인신뢰	159
[그림 4-71] 경제생활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59
[그림 4-72] 경제생활 관련 KSRI - 정치정향	160
[그림 4-73] 경제생활 관련 KSRI - 지지정당	161
[그림 4-74] 경제생활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61
[그림 4-75] 경제생활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62
[그림 4-76] 경제생활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63
[그림 4-77] 경제생활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63
[그림 4-78]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164
[그림 4-79]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성별	165
[그림 4-80]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연령별	165
[그림 4-81]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세대별	166
[그림 4-82]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대인신뢰	167

[그림 4-83]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67
[그림 4-84]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정치정향	168
[그림 4-85]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지지정당	169
[그림 4-8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69
[그림 4-87]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70
[그림 4-88]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71
[그림 4-89]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71
[그림 4-90] 환경 관련 KSRI	172
[그림 4-91] 환경 관련 KSRI - 성별	173
[그림 4-92] 환경 관련 KSRI - 연령별	173
[그림 4-93] 환경 관련 KSRI - 세대별	174
[그림 4-94] 환경 관련 KSRI - 대인신뢰	174
[그림 4-95] 환경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175
[그림 4-96] 환경 관련 KSRI - 정치정향	175
[그림 4-97] 환경 관련 KSRI - 지지정당	176
[그림 4-98] 환경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177
[그림 4-99] 환경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77
[그림 4-100] 환경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178
[그림 4-101] 환경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178

Abstract <<

Attitudes towards Social Risks in Korea

This study surveyed people's attitudes toward social risks and social management capabilities in Korea in the face of global crisis to devise coping mechanisms. Base on the survey results, it provided with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oundations for the more safe and secure future.

It has found out that the Korea Risk Society Index(KRSI) was 38.99 out of 100, implying that the level of risk of the Korean society is not too high. Out of 7 domains, people ranked the risks in economic life domain highest, followed by environment, social life, and life cycle. Whereas, the rest of the domains including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ealth and natural disaster were ranked low in terms of the risk levels.

People's attitudes toward the risks in the 7 domain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gender, birth cohort, social class, political orientations, and social trust. As wealth is distributed unequally among various social groups, so is social risks, suggesting that risks management has to be devised differently based on the general public's socio-economic backgroun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 및 전지구화(globalization)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험정도와 이에 대한 대비 및 관리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관련 정책에 사회구성원의 위험인식 정보를 접목하여 정책적 함의와 근거를 제공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한국사회의 위험 4차원별 추이를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취약성 차원(Vulnerability)에서는 평균 4.89로 다른 차원에 비해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고, 영역별로는 생애주기, 경제생활, 환경의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및 대외관계, 자연재해, 건강에 대한 위험인식은 낮은 편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가 경 우가 많았는데, 특히 30-40대와 대졸자가 위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위험 노출정도(Exposure)는 전체 평균 4.80으로 취약성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2번째로 위험인식이 높은 차원이다. 경제생활과 생애주기영역에서의 위험인식이 가장 높았고, 반면 정치 및 대외관계 및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30-40대, 대졸자들의 위험인식도가 높았다.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Hazard)에 있어서는 평균이 4.04로 별로 높은 편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생활과 환경, 건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차원과 달리 여자, 저학력자

4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중졸)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영역(자연재해, 건강 등)이 있었다. 위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는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차원으로 평균이 중간이하인 3.32에 불과하였다. 특히 경제생활, 생애주기,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낮아,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영역에서 대처능력이 낮다고 보고 있다. 30-40대와 대졸자가 이러한 경향이 더 많았다. 건강,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간 더 높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영역의 평균도 중간 이하로 낮은 편이다.

한국사회위험지수(KRSI)는 2013년 현재 종합 38.99점으로서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급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높고, 그 밖에 환경, 사회생활, 생애주기, 정치 및 대외관계, 건강, 자연재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우선적 관리가 요구된다.

각 영역(domains)별로는, 자연재해 영역 위험은 황사 및 가뭄 지수가, 건강 영역 위험은 먹거리, 생애주기 영역은 노후불안, 사회생활 영역은 과학기술 및 IT기술위험, 경제생활 영역은 경기침체 및 성장,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환경 영역은 자원부족 및 고갈에 대한 지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위험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리와 대비가 요구된다.

사회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30-40대 ‘민주화탈냉전세대’, 저신뢰군(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람들),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위험의 영역별·인구집단특성별 복합적 차이에 있어서는, 청장년(20-30-40대) 세대(एको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포함)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생활 관련 위험도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현저하며, 중노년(50대

이상) 세대(베이붐세대, 산업화세대 포함)은 건강, 환경, 자연재해 등 관련 위험도가 특별히 현저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경제생활 및 생애주기 영역의 위험도가 높으며, 사회계층(social class)이 높은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일수록 환경문제, 건강문제, 정치·대외관계 문제 등과 같은 문제 혹은 영역들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은 경제생활, 생애주기 영역에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 분야는 위험정도와 정부의 대처력 간의 차이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영역의 위험도는 본인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나 정부의 대처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대처도 낮은 편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와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방안으로 첫째, 중산층의 안전의식 제고방안 마련, 둘째, 세대별 차별화된 위기의식에 대한 접근방안 마련, 셋째, 정치이념적 상반된 견해를 가진 집단에 대한 포용정책 마련, 넷째, 주체별 위험분산방안 마련, 다섯째,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 마련, 여섯째, 사회구성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합의, 일곱째, 위험사회 지수개발과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위험사회, 안전사회, 위험사회지수, 위험노출, 정부대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제3절 조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문명의 화산 위에 살아가는 ‘위험사회’라고 독일의 사회학자인 Ulrich Beck(1986)이 지적한 이래, 최근 수많은 위험사회 증후군(예, 원전사고, 식품오염, 기후변화, SARS 전염 등)이 실제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과학적 실증분석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각종 사회적 및 자연적 위험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는 방사능, 식품보건의위생, 전염병, 교통사고,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이라고 한다, 한편,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가족해체, 고용불안, 금융불안, 사생활침해, IT 위험, 노후불안, 정신건강 등과 같은 이른바 “신사회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Beck, 1997, 2010; Giddens, 1991, 2009). “신사회적 위험”은 단순한 물리적인(physical) 위험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성찰적인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두루 포괄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위험(risks)은 가해자를 찾거나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영란, 2011). 그 사회의 위험이 생산의 안정성을 능가하는 상태에 있는 사회를 위험사회라 부른다(홍성태 역, 1997).

현대사회의 위험은 익명화(anonymous)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내거나(calculate) 관리하거나(manage) 예방해내는(detect)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Society becomes self-critical” Elliott, 2002)

‘위험사회’와 관련한 기존의 학술적 접근은 해외(구미)에서는 물론이요

국내에서도 그동안 담론적 주장 및 논의가 있었을 뿐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이 빈약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안전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데, 식품안전, 각종 사고, 재해, 질병 등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험사회’란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이 1986년에 발간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현대 서구사회는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위험사회’이다”라고 규정한 이후 사회과학 전반을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학술용어이다. Beck이 말하는 위험(risk)은 danger 또는 hazard와 다른 개념으로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언제라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체계적 위험을 가리킨다.

위험(risk)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 핵심개념으로 부상하였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데, 대표적인 위험들로는 방사능, 식품안전, 약물오남용, 전염병, 사고(교통, 화재 등), 범죄, 환경오염, 산업재해, 자연재해, 기후변화, 실업·고용·빈곤, 노화·노후불안, 사생활침해, 인간성 파괴, 전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근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의 과도한 도구적 활용의 결과로 파생되어 인간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사회체제 전체에 편재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요인,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사회적 위기대

응능력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가 양산해낸 위험의 경제적 비용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갈등과 합리성 논란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의 생산과 인식 사이의 불일치, 위험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긴장을 위험의 규정을 둘러싼 적대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까지도 유발된다(Beck, 1997).

세계화 및 전지구화(globalization)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험정도와 이에 대한 대비 및 관리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관련 정책에 사회구성원의 위험인식 정보를 접목하여 정책적 함의와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위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파악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응정책 강화하고, 국내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국가의 신뢰도 및 안전도 제고, 이를 통한 국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위험사회의 태동 배경 및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을 실태조사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영역은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추이를 4개 차원별, 즉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노출정도(Exposure),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Hazard), 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로 분석하였다. 각 영역의 인식을 성, 연령, 학력, 월소득별로 차이를 분석하였고, 차원별 위험인식 정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역별 위험인식 정도를 주요 사회적 특성인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행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정치적 성향, 사회계층, 사회안전도 인식, 건강상태,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단 내용이 반복적인 면이 있어서 본문에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고,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험사회 위험사회지수(RSI: Risk Society Index)를 구축하였다. 위험의 3대 요소(Villagrán de León, 2004)는 risk triangle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요인(hazard), 위험대비부족(deficiencies in preparedness)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사회지수를 구성하였고, 우리사회의 위험지수를 추계하여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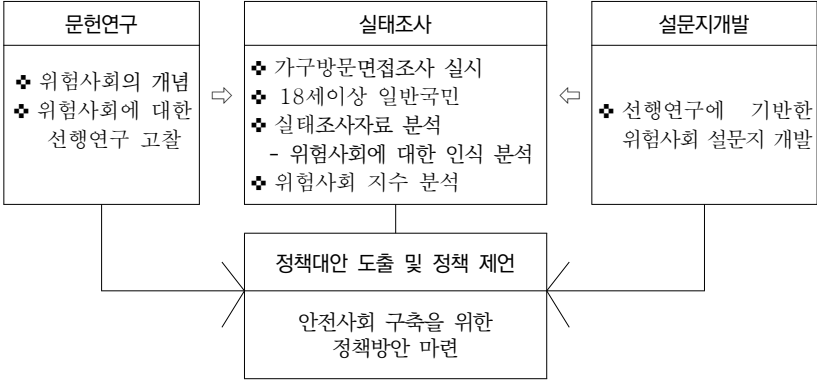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론고찰, 지수산출 및 국민의 위험사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회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과 실태조사가 사용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위험사회의 개념 정의와 국내외 위험사회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는 조사전문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SRC)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설문에 '위험사회'를 특별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의 형태

로 포용해서 조사하였다. 성대 SRC는 엄정한 계량방법론을 적용한 국제 실증조사 자료 생산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성 및 시의성 있는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s) 도출하는데 적합한 기관으로 공동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었다. 설문개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SRC가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실사는 SRC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일반국민 2,500명이고, 자료수집은 방문면접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 진행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제3절 조사개요

1. 조사항목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7개 위험영역과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7개 영역에는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등이 있고, 4개 차원에는 취약성

14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Vulnerability), 위험노출정도(Exposure),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Hazard), 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가 있다(표 1-1, 1-2 참조). 각 영역별 위험인식 정도를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각 영역은 다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2개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각 영역별 위험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도록 하였고, 단 정부의 대처 차원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대처능력이 좋은 것으로 하였다.

〈표 1-1〉 위험사회 영역 및 주요(조사) 내용

영역	내용
자연재해 관련 위험	❖ 홍수 및 태풍 ❖ 황사 및 가뭄 ❖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 지진 및 쓰나미
건강관련 위험	❖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	❖ 노후 불안 ❖ 가족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사회생활 관련 위험	❖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경제생활 관련 위험	❖ 실업 및 빈곤 ❖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 경기침체 및 저성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 북한의 위협(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영역	내용
위험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환경 관련 위험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주: 1) 부록3 [2013 한국종합실태조사 설문지] 참조
2) 7개 영역은 7점 척도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에 대한 의식이 높음. (1-3: 비취약, 4: 중립, 5~7: 취약)

〈표 1-2〉 위험사회 차원 및 관련요인

구분	주요 내용
차원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 (Vulnerability) ❖한국사회의 위험노출 (Exposure)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Hazard) ❖정부의 대처능력 (Capability and Measures)
관련요인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정치적 성향 ❖주관적 사회계층 ❖지역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자신의 건강상태 ❖향후 10년 자신의 경제상태 전망
응답자 일반사항	❖성,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주: 7점 척도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에 대한 의식이 높음. 단, 정부대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잘 하는 것으로 측정. (1-3: 잘못대처, 4: 중립, 5~7: 잘 대처)

2. 표본설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확률표본추출 방법(Probability Sampling)의 한 유형인 다단계지역 확률표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최종 표집블록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가

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층화함.

-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금의 1차표집단위(SSU)인 동·읍·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PPS)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함.
-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적으로 선정함.
-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틀(sampling frame)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두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계통표집함.
-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빠짐없이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실제 생일 기준; birthday method)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삼음.

조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비용적인 면에서나 자료의 질 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이른바 전국대학 조사네트워크(inter-university survey network)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지조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방법론과 조사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전국 30개 대학에 각각 협력교수 1인과 조사팀장 1명 그리고 면접조사원 5-15명으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조직한다. 각 대학의 협력교수는 조사팀을 지도하고, 조사팀장은 담당지역의 표집과 현지조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같은 소위 ‘지역담당 조사팀장’ 제도는 현지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현지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지역담당 조사팀장은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현지조사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면접조사원들이 KGSS의 목적과 의의를 충실히 이해하고 설문지의 내용과 조사진행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은 현지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본 조사(main survey)가 실시되기 이전에 모든 조사팀장들은 매년 최소 3회(2월, 5월, 9월) 실시하는 동 센터의 워크숍에 참가해서 표집, 면접방법, 조사감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조사팀장을 포함해서 모든 면접조사원들은 현지조사 실시 직전인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전국 조사원오리엔테이션(OT)을 통해 면접조사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다.

다른 조사와 비교해볼 때 KGSS는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 장시간(평균 약 50분)의 면접, 설문에 대한 이해 등을 필요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면접조사원이 임의로 초기표본(initial samples)을 대체(즉, 가구의 대체, 가구원의 대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표본의 대체는 정교하게 설계된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KGSS는 여하한 경우에도 표본의 대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현지조사의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지는 곧 검표작업을 해서 누락된 응답이 있는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응답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검표 결과 만일 응답내용의 완결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전화 또는 재방문을 통한 보충조사를 즉각적으로 시도한다. 보충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애당초 시도된 조사와 보충조사 사이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반응효과 및 면접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을 보다 원활히 통제하고 설문의 완성도를 최대화하려는 고려를 반영한다.

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다음 <표 1-3>에 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50.1%, 여자 49.9%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22.5%, 30대 19.2%, 40대 22.5%, 50대 16.6%, 60대 이상 19.3%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이상이 가장 많은 56.4%이고, 고졸 28.2%, 초졸 9.1%, 중졸 6.3%의 순이다. 월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30.7%이고, 그 다음은 400-600만원 미만 26.0%, 200만원 미만 20.2%, 800만원 이상 12.0%, 600-800만원 미만 11.1%의 순이다.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빈도	비율
전체		1,288	100.0
성	남자	643	50.1
	여자	640	49.9
만연령	18-30세 미만	289	22.5
	30대	247	19.2
	40대	289	22.5
	50대	213	16.6
	60대 이상	248	19.3
학력	초등학교	117	9.1
	중학교	81	6.3
	고등학교	363	28.2
	대학이상	726	56.4
월소득	200만원 미만	241	20.2
	200-400만원 미만	366	30.7
	400-600만원 미만	310	26.0
	600-800만원 미만	132	11.1
	800만원 이상	143	12.0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위험사회의 개념

제2절 위험사회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연구분석틀

2

이론적 배경 <<

제1절 위험사회의 개념

1. Beck의 위험사회 정의

최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환경, 핵, 자연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문제가 확대되면서 현대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위험(Risk)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Beck(1992)은 위험을 재앙(disaster)과 비교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가능성 있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한다. 위험은 불확실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다(Beck, 1994).

K. Marx가 노동소외(alienation) 문제에, E. Durkheim이 anomie 문제에, M. Weber가 합리화(rationalization)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U. Beck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문제에 집중하면서, 현대사회의 변화를 진단해내는 핵심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위험사회를 설명하고 있다(Beck, 1992).

첫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인식적 범주를 벗어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 위험은 체계적이고 회복불가능한 해를 낳지만 과학적 견지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위험의 크기가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위험은 대중매체와 전문가 등의 핵심적인 지위집단에 의해 사회적으로

로 정의되고 구성될 소지가 많다.

둘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위험의 영향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등적’이다. 유럽에 위치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환태평양 인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현대사회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Beck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 즉 위험은 보편적·전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받는 영향을 계층에 따라 다르고 위험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는 것이다(김영란, 2011).

셋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부메랑과 같다. 위험을 생산하거나 위험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부의 무분별한 물고기 포획은 수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부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농부의 화학비료를 통한 수확량 증대는 농부에게 토질 악화와 오염으로 위험을 유발한다.

넷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새로운 시장이 되기도 하는데 위험에 의해 창출된 보험시장의 확대는 현대사회의 위험적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다섯째,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지식을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이 그 존재를 규정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위험은 위험을 규정하는 지식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지식이 새로운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Beck은 위험사회의 정치적 잠재력이 사회학적 견지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위험은 정치적이다. 위험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결과가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사회의 특징은 현대사회의 위험이 정치적, 문화

적 상황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2. 위험사회에 대한 담론

위험사회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담론이 제기된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사회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계층 간 차이이다. 우선, 과학기술(scientific technology)과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위험의 감소하였나?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의 과도한 도구적 활용의 결과로 낳은 문명적 파행성이 다시금 인간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의 논리로 변질되어 현대사회에서 파생된 위험은 그 자체가 위험의 원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우리를 위협하는 미래의 잠재적, 상시적, 실체적 사건”이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scientific development)로 사회적 진보(social progress)가 이루어졌나? 이것도 아니다.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과학기술이 실제로는 오히려 사회적 위험의 원인으로 변질되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후기결핍의 사회”(Post-Scarcity Society)라고 하는데, 이는 물질적 부족함의 해소와 더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다양한 위험들(예, 원전사고, 사생활 침해, 인간성파괴, 노후불안 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사회를 말한다.

두 번째 논쟁은 위험의 계급화 논쟁이다. 일부에서는 위험의 분배는 평등화 및 민주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Beck, 1997, 2010; Giddens, 1991, 2009). 즉, 위험은 전지구적으로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출과 경험에는 계층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부의 분

배와 위험의 분배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위험에의 인식과 경험에는 계급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Taylor-Gooby, 2005; Esping-Andersen, 2007).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여 노출정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김영란, 2011).

제2절 위험사회 관련 선행연구 고찰

국내의 위험사회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몇몇 연구가 나왔다. 김영란(2011)은 위험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위험이 집단에 경험이 다른지 같은지를 교육수준, 월소득, 자녀연령 및 취업상태, 직업 등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위험이란 첫째, 구사회적위험(실업, 사고, 질병, 복지서비스, 보험료 등 연체), 둘째, 노동시장위험, 셋째, 가족위험(가정불화, 재산상실, 자녀안전문제, 고용능력 상실, 부양자사망, 재정악화 등 가족의 불안정성), 넷째, 환경오염 및 생태위험 등으로 구분된다. 그 결과 사회적 위험은 집단에 따라 다름이 규명되었다.

위험 경험은 직업위계,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위험발생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위험은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이 청년실업의 확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의 확산 등으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서, 국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영란, 2011). 즉, 국가가 가족과 노동시장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열 외(2005)는 위험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서, 한국사회의 위험의 유형을 7가지 나누어 지구적 생태위험, 자연적 재해위험, 국가적 안보위험, 건강의 위험, 경제적 생계위험, 기술적 재난 위험, 사회적 해체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위험의 하위요인으로는 51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이재열 외, 2005).

〈표 2-1〉 위험의 유형과 주요 사례

위험의 구조적 수준	위험의 주요 사례
지구적 생태 위험	· 수질오염 (상수원 오염, 공장폐수 등) · 대기오염 (자동차배기, 황사 등) · 토양오염 (화학물질, 쓰레기 등) · 해양오염 (폐유방류, 적조 등)
자연적 재해 위험	· 태풍, 폭설, 가뭄, 기근, 폭염, 지진, 쓰나미 등
국가적 안보 위험	· 한반도에서의 전쟁, 북한 핵문제 ·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건강의 위험	· 일반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성인병 · 신종 질병(SARS, 조류독감, 광우병, AIDS 등) · 먹거리 안전사고 (유해식품, 비위생적 식품, 식중독 등) · 생명윤리 침해사고 (장기매매, 유전자 조작 등)
경제적 생계 위험	· 빈부격차 · 불안전 고용과 취업난 · 급격한 경기변동 · 농산물 수입개방
기술적 재난 위험	· 산업재해, 직업병 · 자동차교통사고 (충돌, 음주운전, 뺑소니 등), 대형교통수단 사고 (열차전복, 비행기추락, 선박침몰 등) ·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 화재 (가정집, 사무실, 공장 등), 산불 · 건축물 붕괴사고, 대형폭발사고, 가스사고, 감전 등의 전기사고 · 화생방사고 (화학물질, 방사성물질, 핵폐기물 유출사고) · X-ray,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 컴퓨터바이러스 확산 · 물가, CCTV, 도청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기, 해킹 등)
사회적 해체 위험	· 학교폭력, 부정부패, 여아갈등, 노사갈등 · 살인, 강간, 성폭력, 유괴,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및 알콜중독

자료: 이재열 외(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 의식조사. 소방방재청, p61-62.

지금까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자동차사고 (4.22), 취업난 (4.08), 부정부패 (4.07), 여야갈등 (4.06), 빈부격차 (4.04), 노사갈등 (4.02), 급속한 경기변동 (3.96) 등으로서 자동차사고를 제외하면 경제적, 사회적 위험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을 발견하였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는 취업난 (3.50), 사이버범죄 (3.45), 자동차사고 (3.41), 컴퓨터 바이러스 (3.40), 대기오염 (3.38), 급속한 경기변동 (3.35), 먹거리 사고 (3.30)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이재열 외, 2005). 즉, 정보화 사회와 연관된 범죄, 전통적인 자동차사고, 취업과 경기변화, 빈부격차 등의 경제적 요인 등이 주요 위험항목으로 판명되었다.

〈표 2-2〉 위험의 차원별 위험도

순위	과거경험		미래가능성		개인귀인		피해심각성	
1	자동차사고	4.22	취업난	3.50	마약알콜중독	3.30	한반도전쟁	4.22
2	취업난	4.08	사이버범죄	3.45	일상사고	3.06	태풍홍수	4.14
3	부정부패	4.07	자동차사고	3.41	화재	2.96	북한핵	4.07
4	여야갈등	4.06	컴바이러스	3.40	성인병	2.94	테러	4.07
5	빈부격차	4.04	대기오염	3.38	전기사고	2.94	취업난	4.05
6	노사갈등	4.02	경기변동	3.35	자동차사고	2.87	살인	4.01
7	경기변동	3.96	먹거리사고	3.30	산재사고	2.80	수질오염	4.00
8	사이버범죄	3.80	빈부격차	3.27	산불	2.80	대형폭발	3.99
9	태풍홍수	3.79	사생활침해	3.22	가스사고	2.78	대기오염	3.98
10	학교폭력	3.76	사회보장	3.20	과격시위	2.76	자동차사고	3.98

자료: 이재열 외(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 의식조사. 소방방재청. p65.

자료: 이재열 외(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 의식조사. 소방방재청. p74.

이재열 외의 연구(2005)에서는 과거에는 건축물 붕괴, 태풍·홍수·호우, 대형폭발사고, 대형교통수단사고 등 전통적인 재난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느꼈으나, 미래에는 경기변동이나 불안정고용과 취업난, 빈부격차 등

과 같은 사회적 불안이나 사이버 범죄, 신종질병, 생명윤리, 사생활침해 등의 정보화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열 외, 2005). 따라서 전통적 재난에 해당하는 항목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 정보화와 관련된 위험 등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재열 외, 2005).

홍성만(2012)은 위험의 사회적 공유수준과 위험의 사회적 피해수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변수를 사용하여 위험사회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유형 I), 미약한 사회공유 위험(유형 IV),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유형 II), 미약한 사회공유 위험(유형 III) 네 가지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유형화를 통해서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홍성만, 2012).

〈표 2-3〉 홍성만의 위험사회 위험의 유형화

		위험의 사회적 공유 수준	
		high(무차별적)	low(차별적)
위험의 사회적 피해수준 (심각성)	high	유형 I: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 (예: 원자력발전사고, 사이버범죄, 중증전염병, 중요 자연재해, 집단테러 등)	유형 II: 심각한 사회저공유 위험 (예: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사고, 대형추돌 참사 등)
	low	유형 IV: 미약한 사회공유 위험 (예: 대기 및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기후변화 등)	유형 III: 미약한 사회저공유 위험 (예: 가족해체, 실업에 따른 빈곤, 개인질병, 사고 등)

자료: 홍성만(2012). 위험사회의 공공성 탐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6), pp.865-871.

홍성만(2012)는 심각한 사회적 공유 위험일수록 사회적 관심도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고, 미약한 사회적 공유 위험은 이러한 사

회적 노력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절 연구분석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회의 차원을 4개, 영역을 7개로 하여 분석하였다. 차원에는 4가지인 한국사회의 위험 취약성(Vulnerability), 한국사회의 위험노출(Exposure),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Hazard), 한국정부의 대처능력(Capability and Measures)으로 하였다. 7개 영역에는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관련 위험이 포함된다. 차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제4장의 제1절에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표 2-4〉 위험사회 위험의 유형화

차원 (Dimension)	내용	영역 (Domain)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	사회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	자연재해 건강
한국사회의 위험노출	사회의 위험에의 노출정도	생애주기 사회생활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경제생활
한국정부의 대처능력	정부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사회적 위험의 7대 영역(domains)으로 나누었다(Davidson, 1997, Bollen et al., 2003). ① 자연재해(natural):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② 건강(health):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③ 생애주기(life cycle):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④ 사회생활(social):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⑤ 경

제생활(economic):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⑥ 정치 및 대외관계(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⑦ 환경(environmental):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원별 7개 영역의 위험정도 및 정부의 대처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계급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 연령, 학력, 월소득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제1절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 (Vulnerability)

제2절 한국사회의 위험노출 (Exposure)

제3절 위험발생가능성 (Hazard)

제4절 한국정부의 대처능력 (Capability and Measures)

제5절 차원간 비교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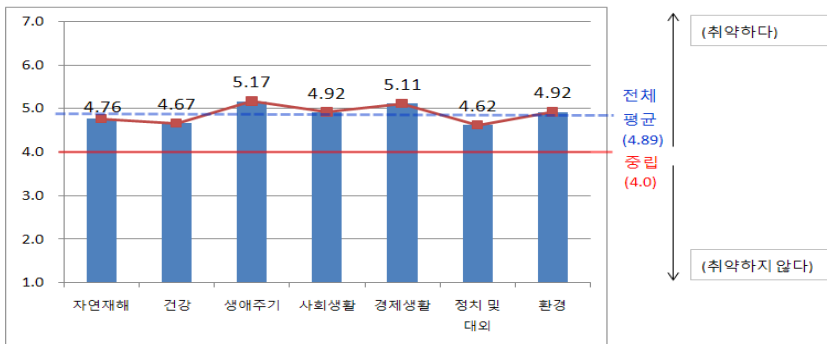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을 차원별 및 영역별로 살펴본다. 4차원별로 7개 영역을 살펴보았다.

제1절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 (Vulnerability)

1. 전체영역 취약성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위험이 취약하다고 본 분야는 7개 중 모든 영역이 중간점수는 4점보다 높은 평균 4.89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은 5점 이하로 나타나 중간점수를 보이고 있다. 5점 이상을 보이는 영역은 생애주기 5.17, 경제생활 5.11로 국민들은 노후와 경제생활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다고 본 영역은 정치 및 대외관계 4.62, 건강 4.67, 자연재해 4.76 등이었다.

[그림 3-1] 7개 영역 위험 취약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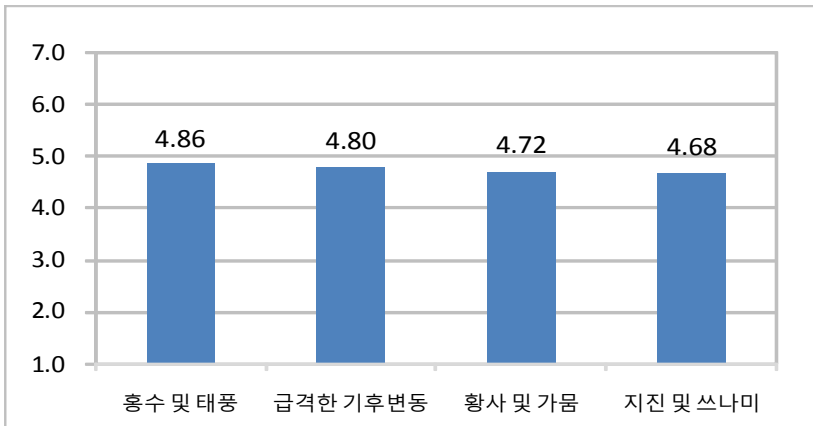


2. 영역별 취약성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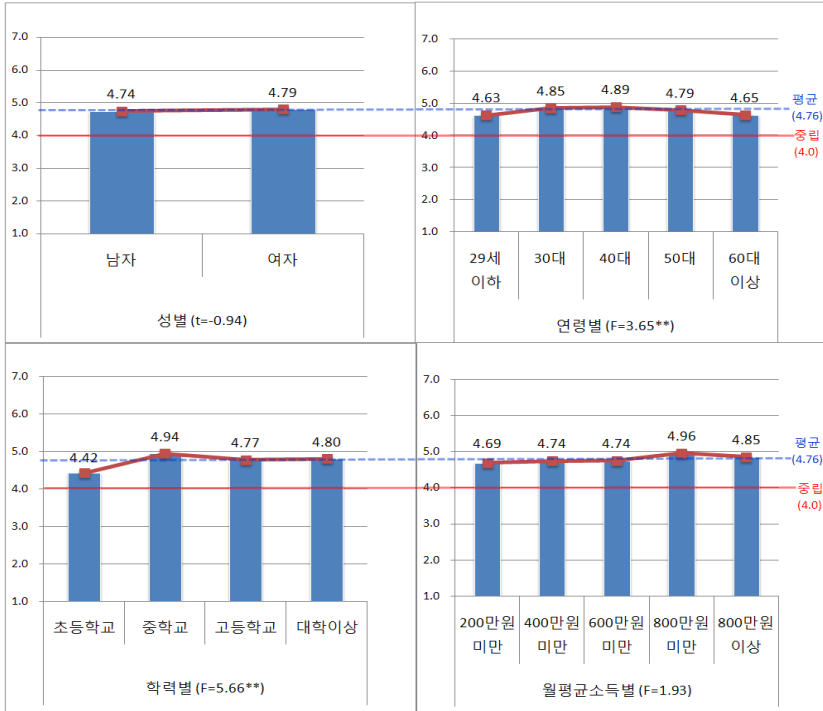
다음에는 영역별로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연재해의 경우는 전체 평균이 4.76으로 중간정도의 위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홍수 및 태풍이 4.86으로 가장 높았고, 지진 및 쓰나미는 4.68로 가장 낮았다.

[그림 3-2] 자연재해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성별 및 월평균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는 유의하여 40대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학력별로는 중졸의 경우가 그렇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영역별 주요변수와의 관계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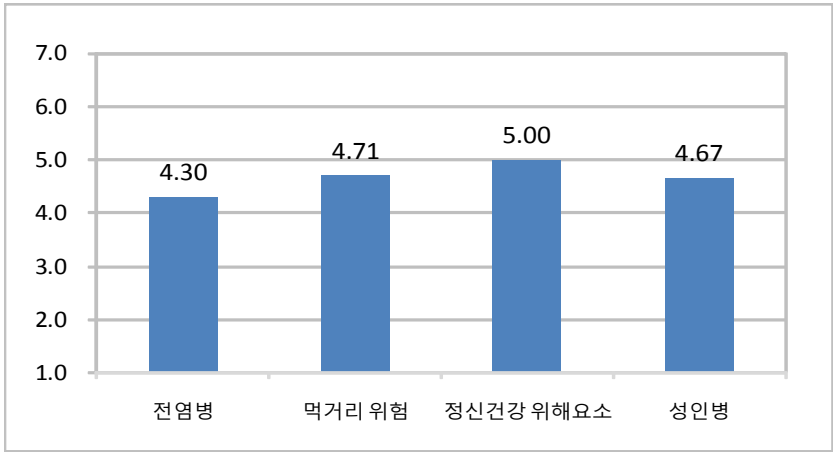
[그림 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취약성



2) 건강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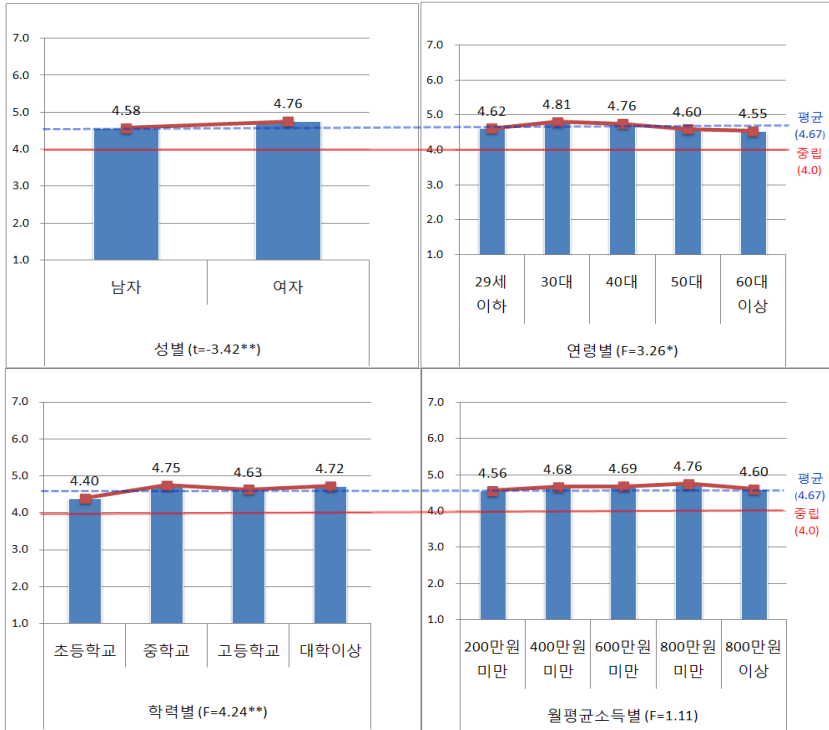
건강 관련 위험은 전체 평균은 4.67이었고, 가장 취약성이 높은 항목은 정신건강 위해요소로 5.00이었고 그 다음은 먹거리 위험으로 4.71이었다. 반면 전염병은 4.30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3-4] 건강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성, 연령,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자가 남성보다 건강관련 위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30-40대, 학력별로는 중졸의 경우이다. 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그림 3-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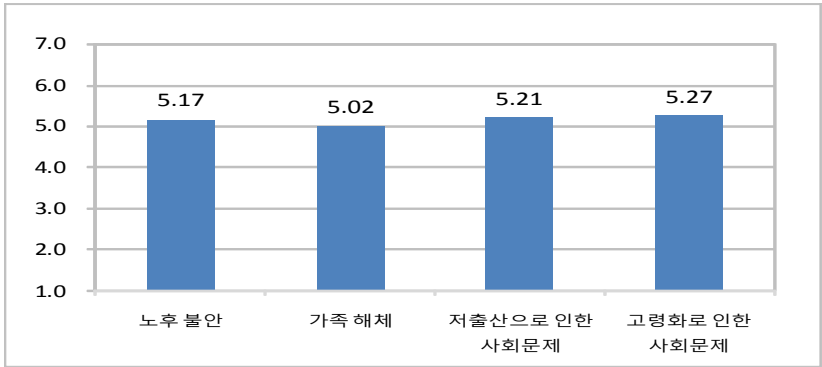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평균 5.17로 다른 영역보다 높았다. 대부분의 생애주기 항목은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그 중 가장 위험 취약성이 높은 항목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5.27,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5.21, 노후불안 5.17 등이다. 가족해체는 5.02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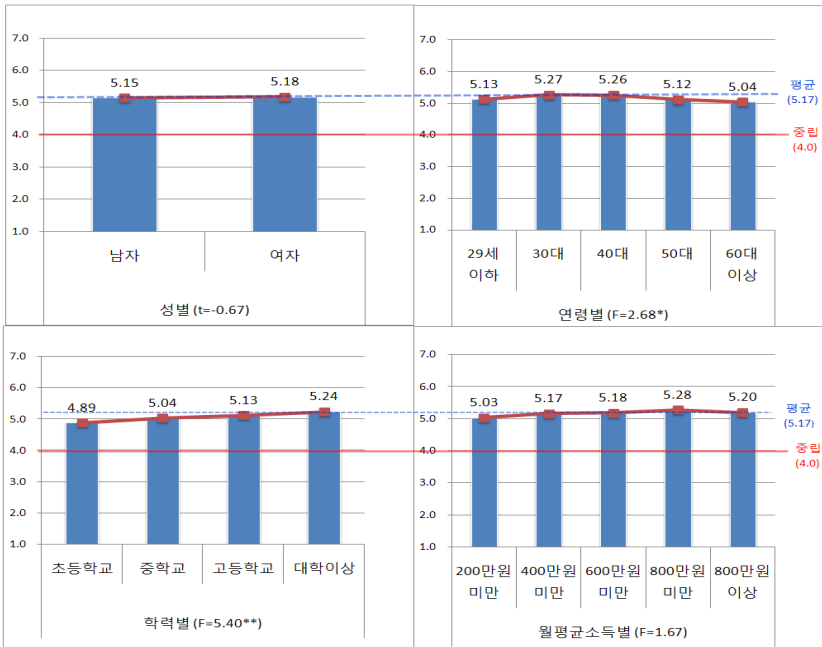
38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6] 생애주기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만 유의하였다. 30-40대, 대졸자가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해 우리사회가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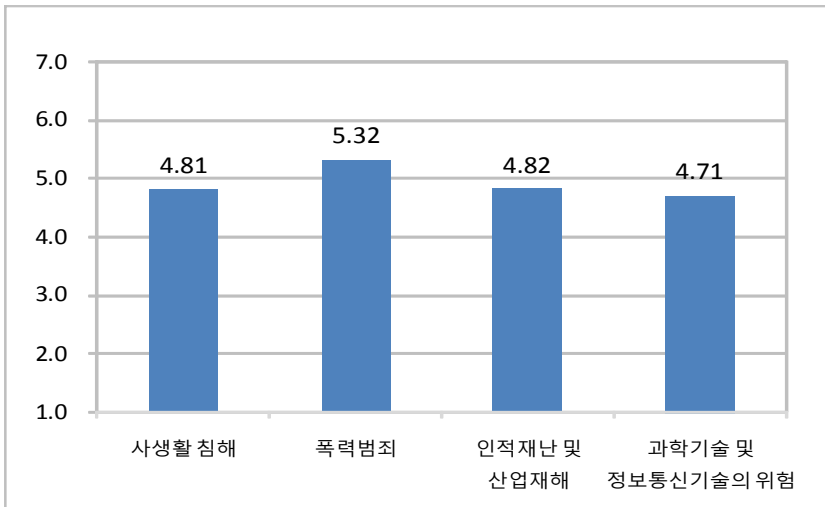
[그림 3-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취약성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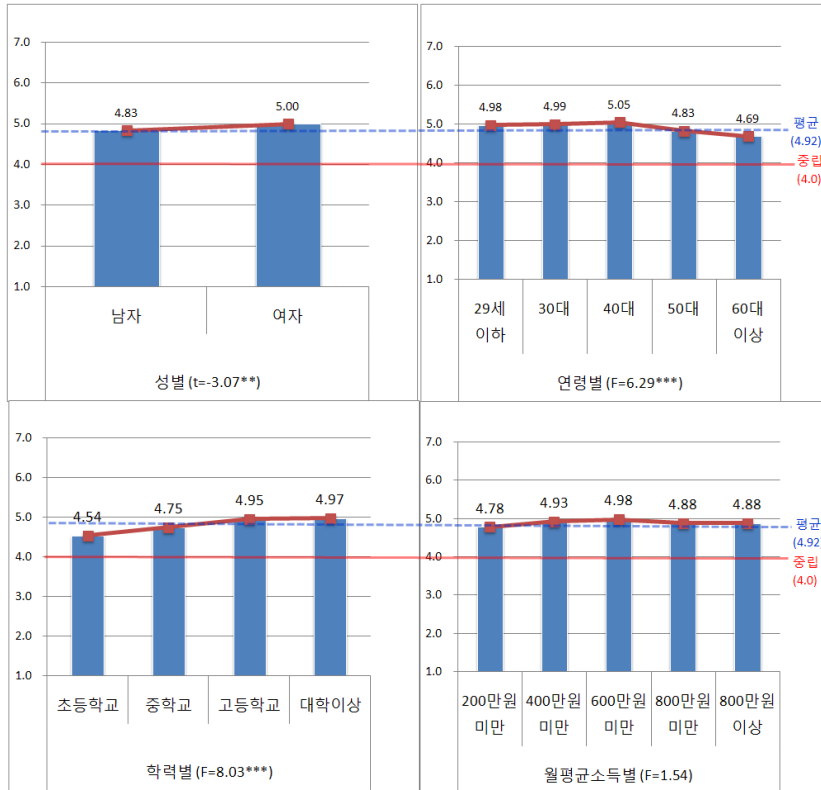
사회생활 관련 위험의 평균은 4.92로 파악되었고, 이중 가장 위험취약성이 높다고 한 항목은 폭력범죄로 5.32이었고, 사생활 침해 및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는 4.81, 4.82 등으로 그 다음이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은 4.71으로 가장 낮게 지적되었다.

[그림 3-8] 사회생활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성, 연령,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다. 여자가, 40대의 경우, 대졸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취약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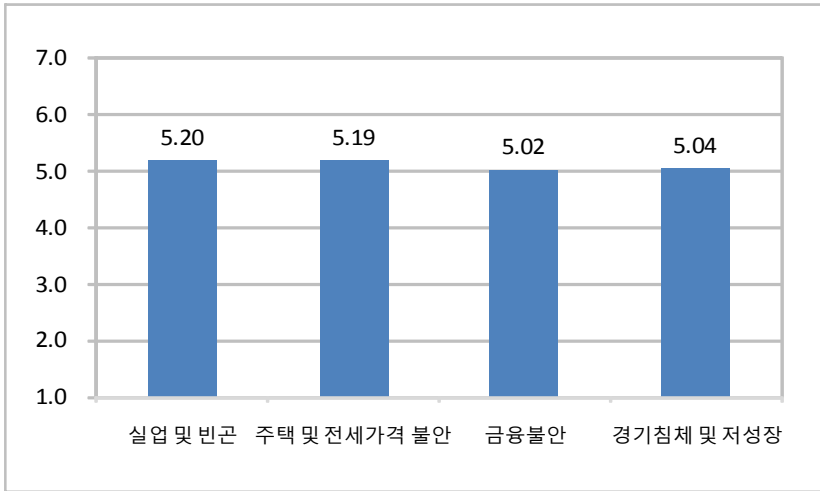
[그림 3-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 위험 취약성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취약성은 평균 5.11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항목별로는 실업 및 빈곤이 5.2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으로 5.19이었다. 금융불안 5.02, 경기침체 및 저성장 5.04 등은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다른 영역의 항목에 비해서는 위험 노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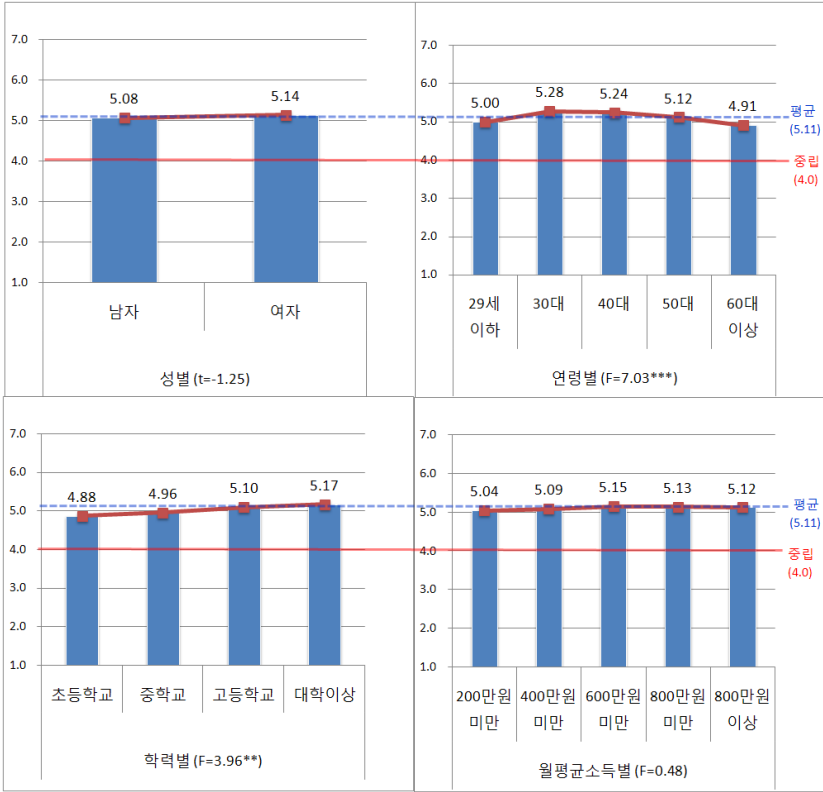
[그림 3-10] 경제생활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30-40대, 대졸자가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42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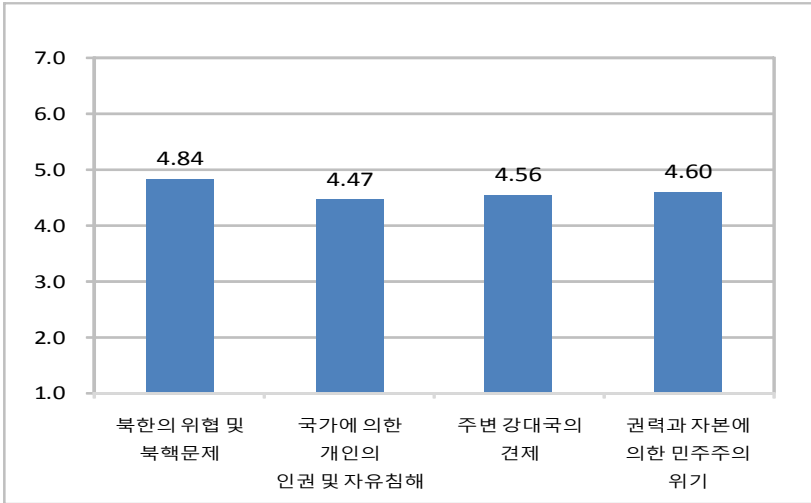
[그림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취약성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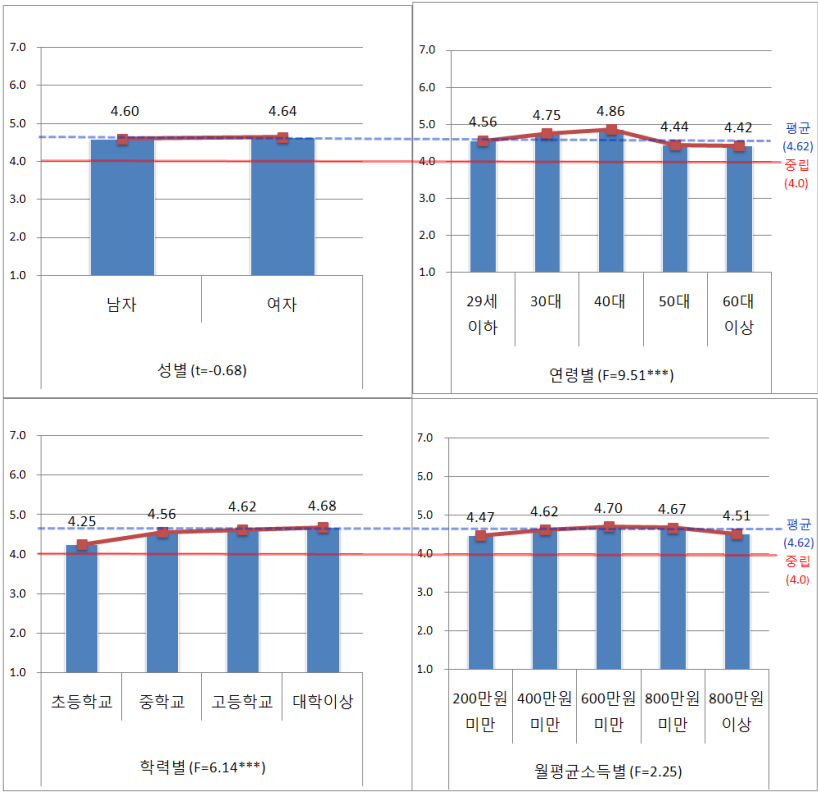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의 우리 사회 취약성에 대한 평균은 4.62로 높은 편은 아니다. 가장 높은 항목은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로 4.84이었고, 반면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는 4.47로 가장 낮았다.

[그림 3-12]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연령별로는 30-40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정치 및 대외적 관계 관련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60대 이상과 초졸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다.

[그림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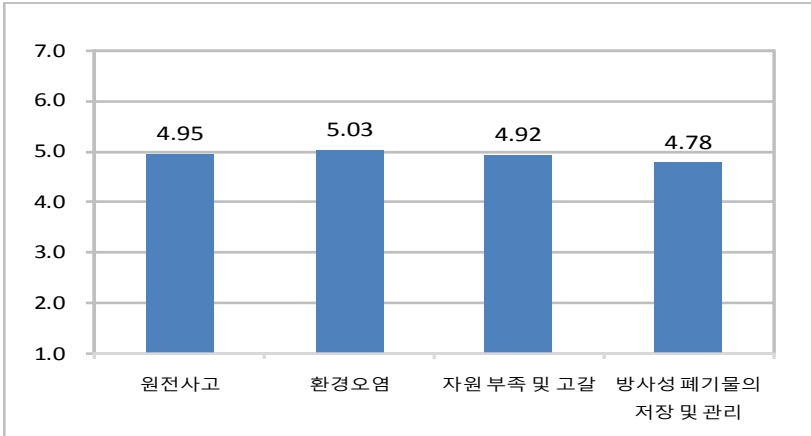


7) 환경관련 위험

환경관련 위험의 취약성 평균 4.92로 나타났고, 가장 취약한 항목은 환경오염으로 5.03이었다. 그 다음은 원전사고 4.95, 자원부족 및 고갈 4.92 등으로 위험인식도가 높은 편이다. 일본의 원전사고 및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상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는 4.78로 이 영역에서는 가장 낮기는 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위험도 인식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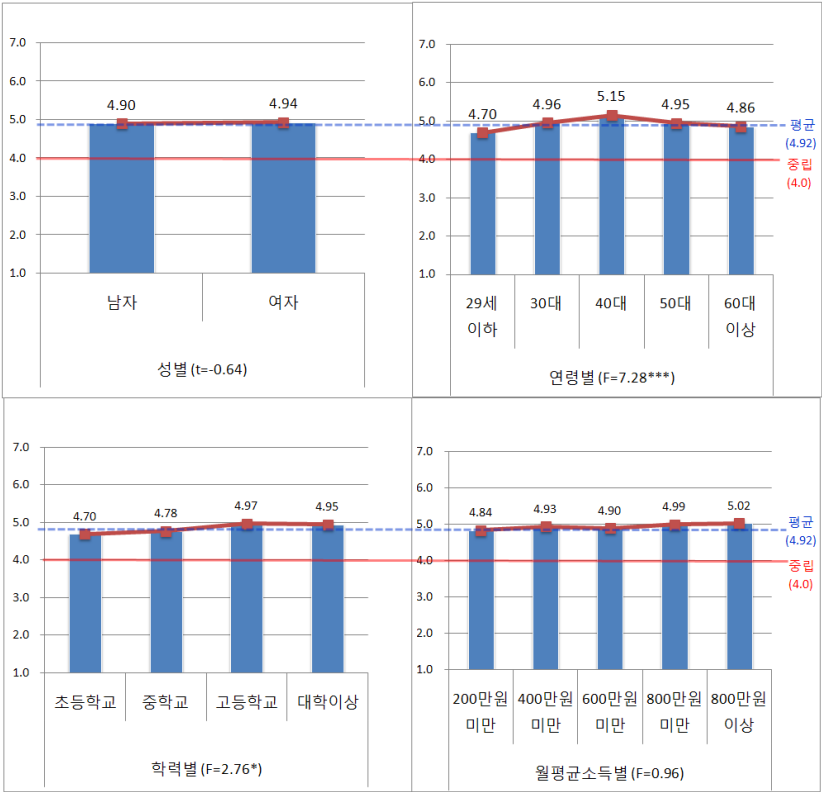
이다.

[그림 3-14] 환경 위험 취약성 항목별 점수



특성별로는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40대, 대졸자가 환경관련 위험의 취약성이 큰 것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29세 이하, 초졸자는 환경관련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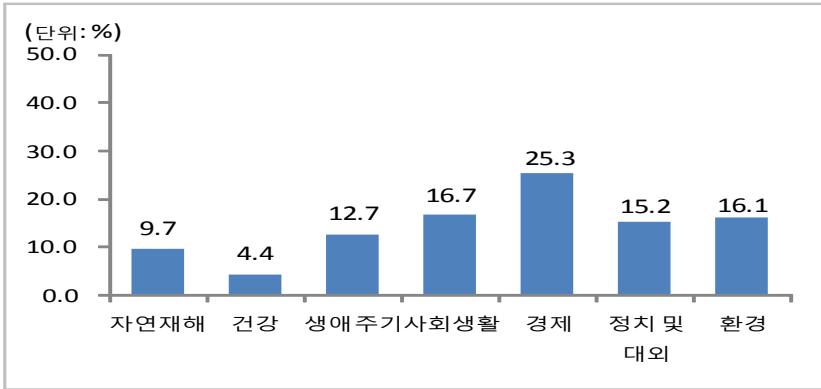
[그림 3-1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취약성



3. 가장 취약한 위험영역

7개 영역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영역은 경제영역이 2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회생활로 16.7%, 환경 16.1%, 생애주기 12.7%이었고, 건강영역의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하였다(4.4%).

[그림 3-16] 가장 취약한 위험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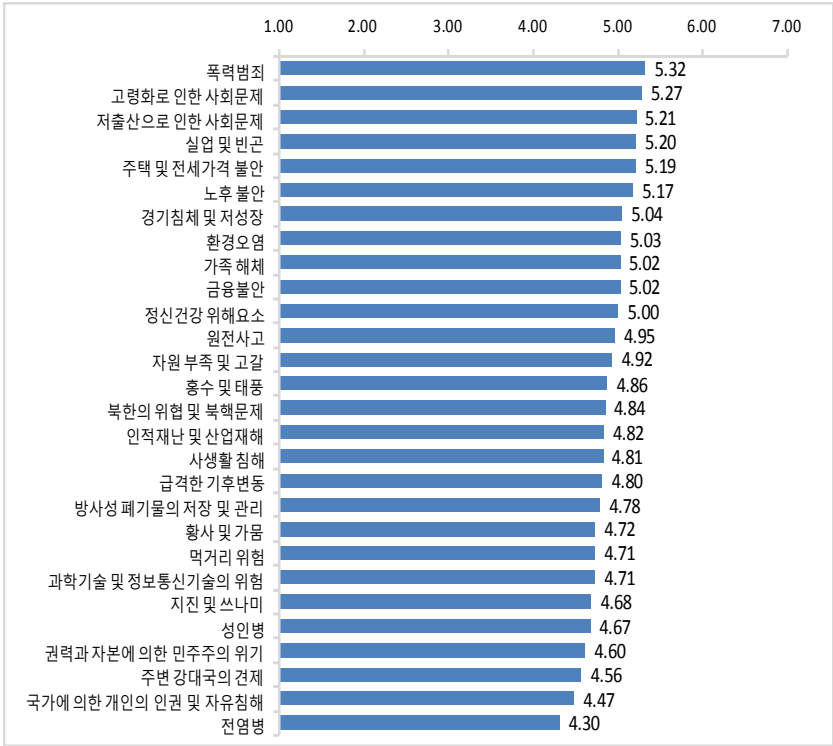


4. 취약한 위험영역 전체 항목별 비교

우리 사회가 취약한 위험 항목에 있어서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5.32 이었고, 그 다음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5.27,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 5.21, 실업 및 빈곤 5.20,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 5.19, 노후불안 5.17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48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17] 취약한 위험영역 전체 항목비교



제2절 한국사회의 위험노출 (Exp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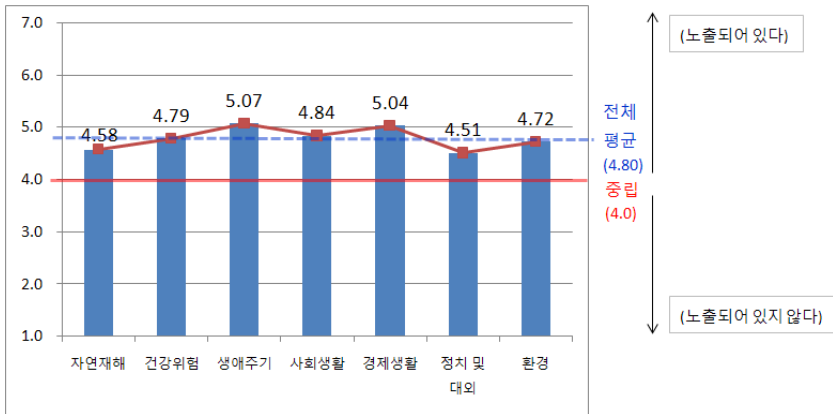
다음에는 한국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1. 전체영역 위험노출정도

전체적으로 위험노출 정도의 평균을 보면 전체 평균은 4.80이었고, 가

장 평균이 높은 영역은 생애주기로 5.07이었고, 그 다음은 경제생활로 5.04이었다. 반면 노출정도가 낮은 영역은 정치 및 대외관계 4.51, 자연재해 4.58, 환경 4.72 등이다.

[그림 3-18] 7개 영역 위험노출 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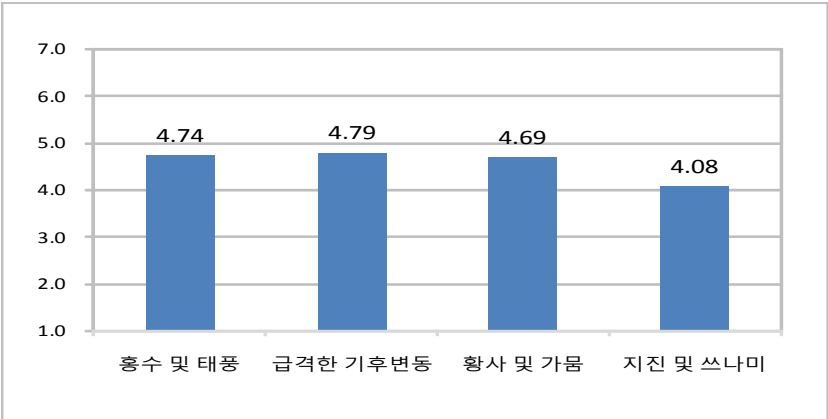


2. 영역별 노출정도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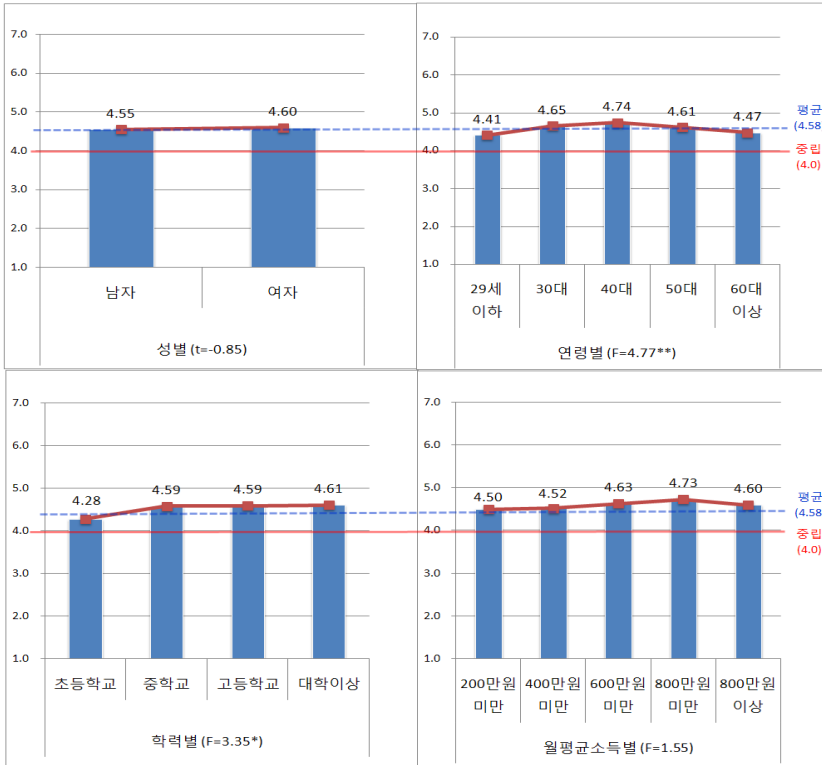
자연재해 관련 위험의 실제 노출정도는 평균 4.58로 낮은 편이다. 항목 별로는 급격한 기후변동이 4.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홍수 및 태풍으로 4.74이었다. 지진 및 쓰나미는 4.08로 가장 낮았다.

[그림 3-19] 자연재해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만이 유의하였는데,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다. 40대, 대졸의 경우가 자연재해 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었고, 29세 이하와 초졸은 노출정도가 가장 낮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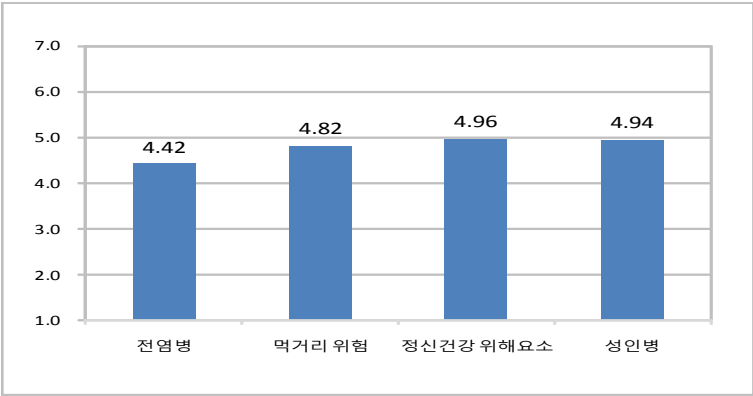
[그림 3-2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노출정도



2) 건강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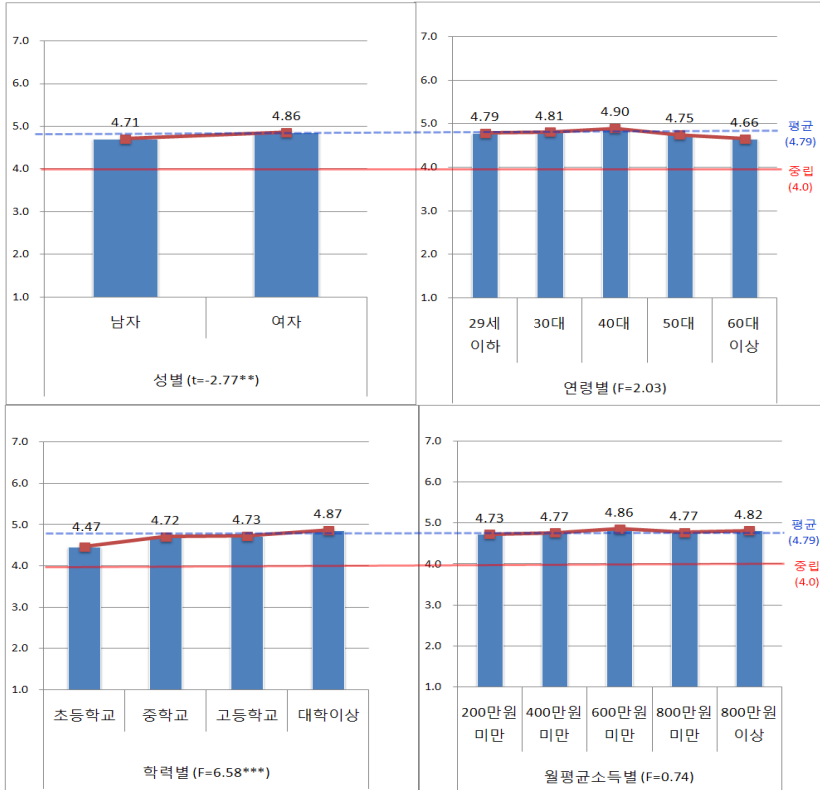
건강관련 위험 노출정도 평균은 4.79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정신건강 위해요소가 가장 높은 4.96이고, 그 다음은 성인병으로 4.94이다. 반면 전염병은 4.42로 가장 낮았다.

[그림 3-21] 건강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이 영역은 성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학력일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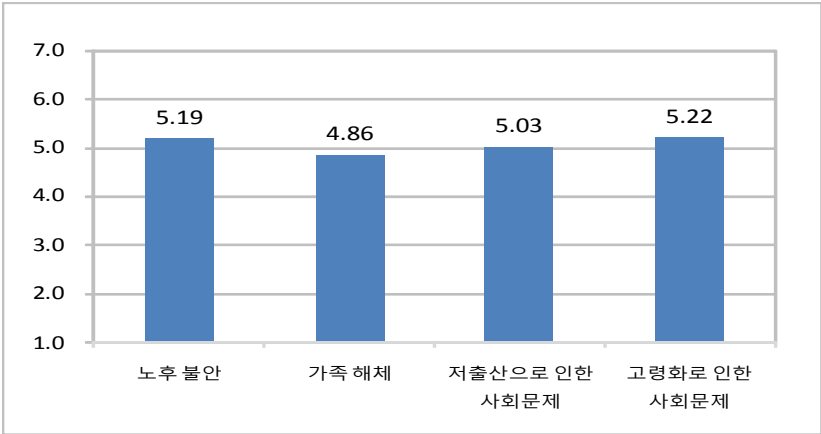
[그림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노출정도



3) 생애주기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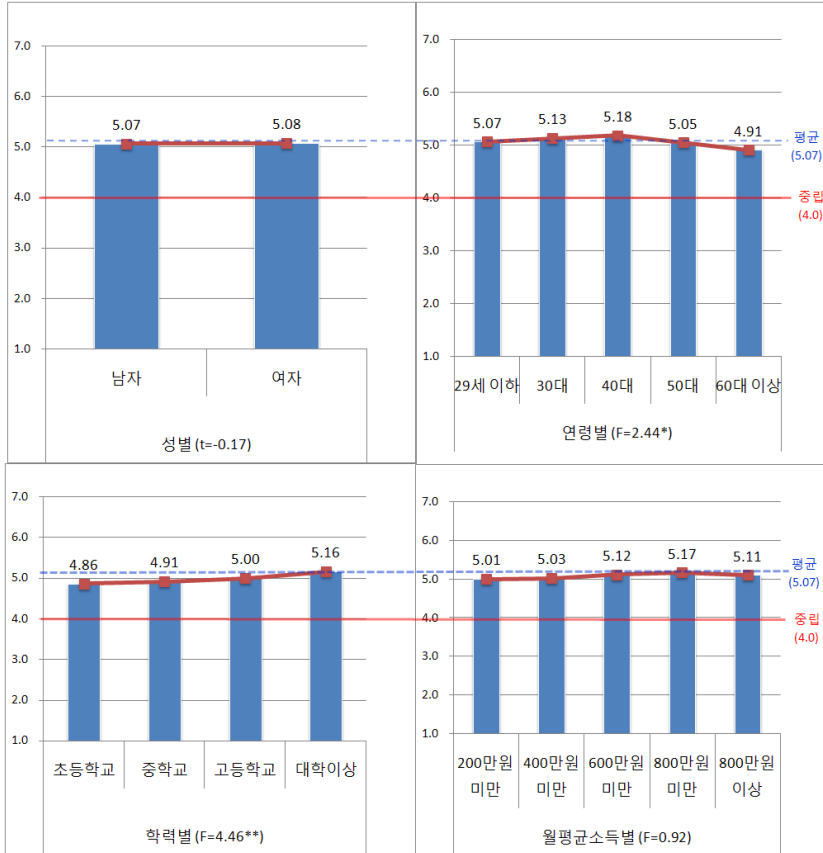
생애주기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 평균은 5.07로 높았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5.22와 노후불안 5.19가 높았다.

[그림 3-23] 생애주기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다. 40대, 대졸의 경우가 생애주기 위험에의 노출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높다고 보고 있다. 성별 및 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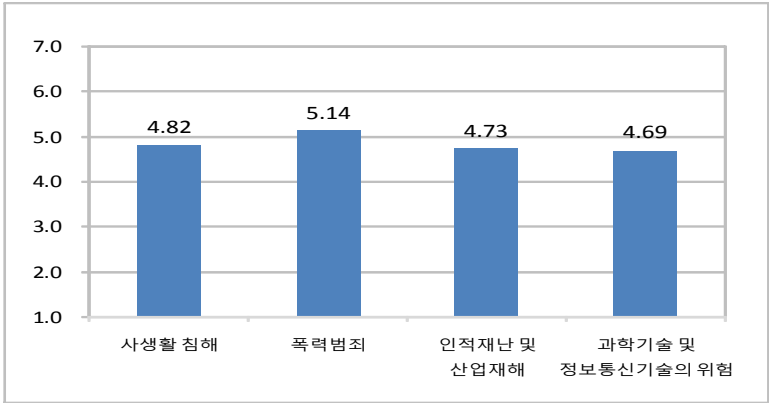
[그림 3-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노출정도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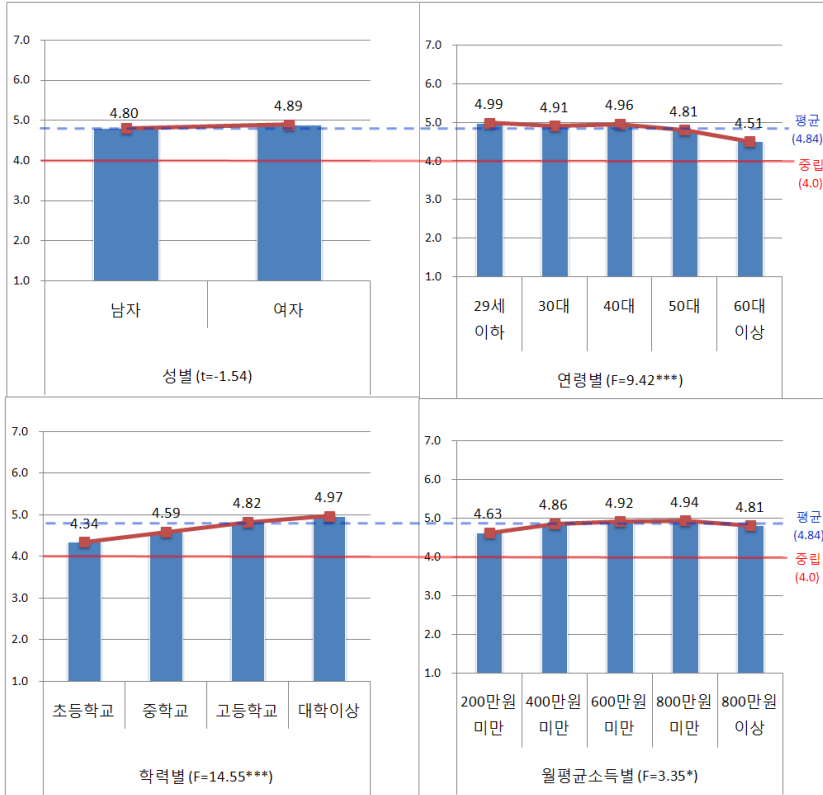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는 평균 4.84로 파악되었다. 폭력범죄는 가장 위험의식도가 높은 5.14이고, 그 다음은 사생활 침해로 4.82이다.

[그림 3-25] 사회생활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40대, 대졸자, 월평균소득 600-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의 노출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인적재산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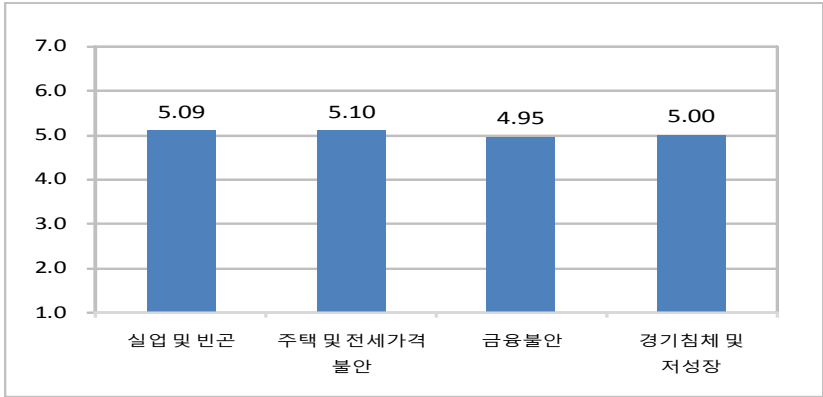
[그림 3-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 위험 노출정도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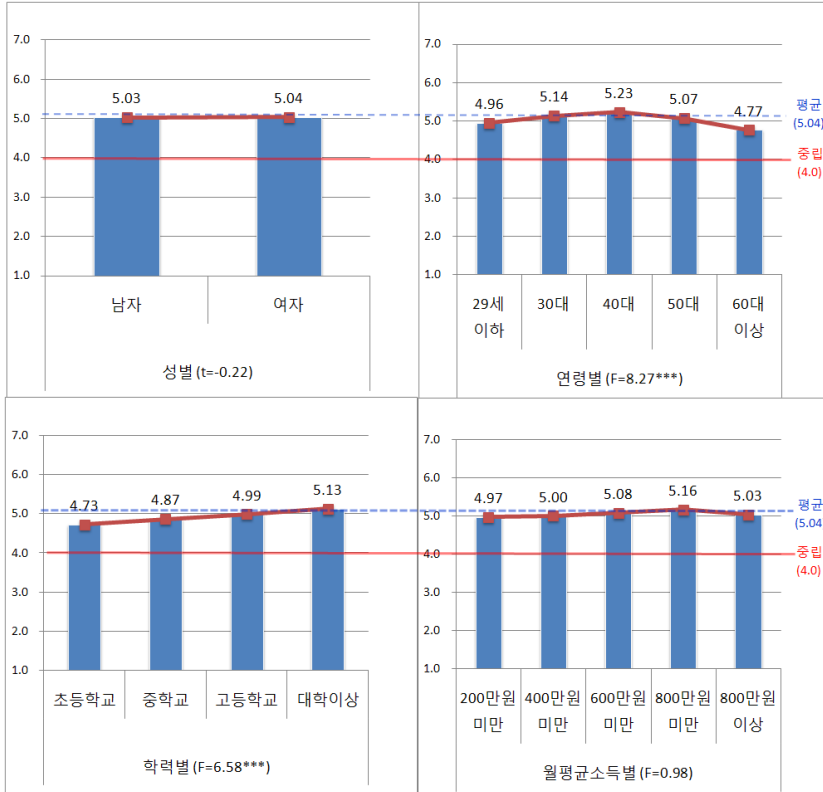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 평균은 5.04로 생애주기 다음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으로 5.10 및 실업 및 빈곤 5.09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금융불안으로 4.95이다.

[그림 3-27] 경제생활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30-40대 대출자의 경우 이 분야 위험에의 노출정도가 우리 사회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들은 우리 사회가 실업 및 빚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의 노출도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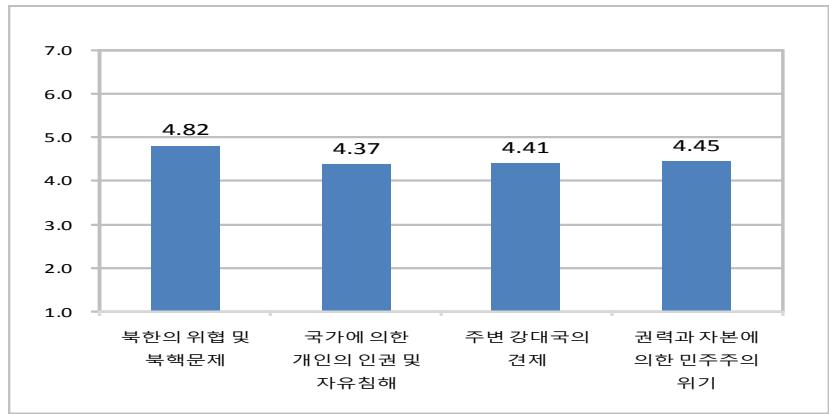
[그림 3-2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노출정도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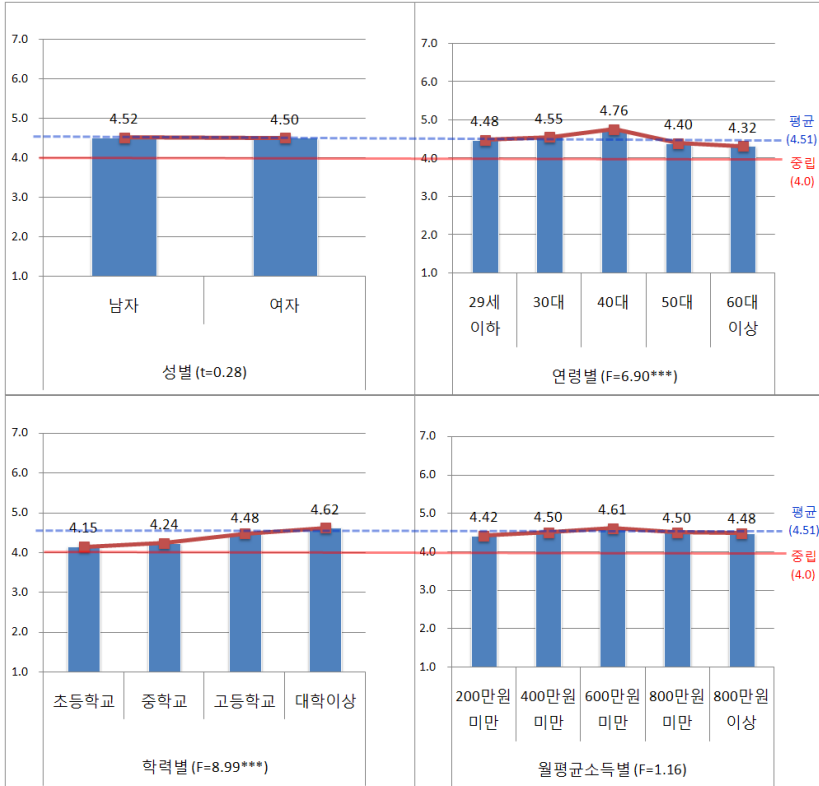
반면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는 4.51로 중간정도이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로 4.82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로 4.37이다.

[그림 3-29]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여기서도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만이 유의하다. 40대와 대졸자의 노출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존재,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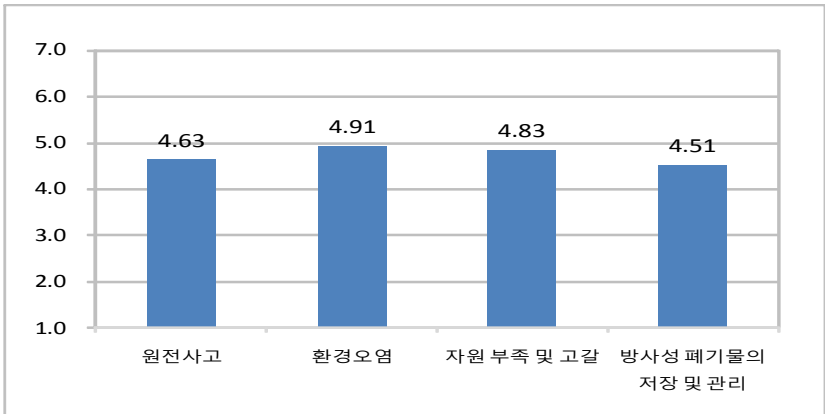
[그림 3-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노출정도



7) 환경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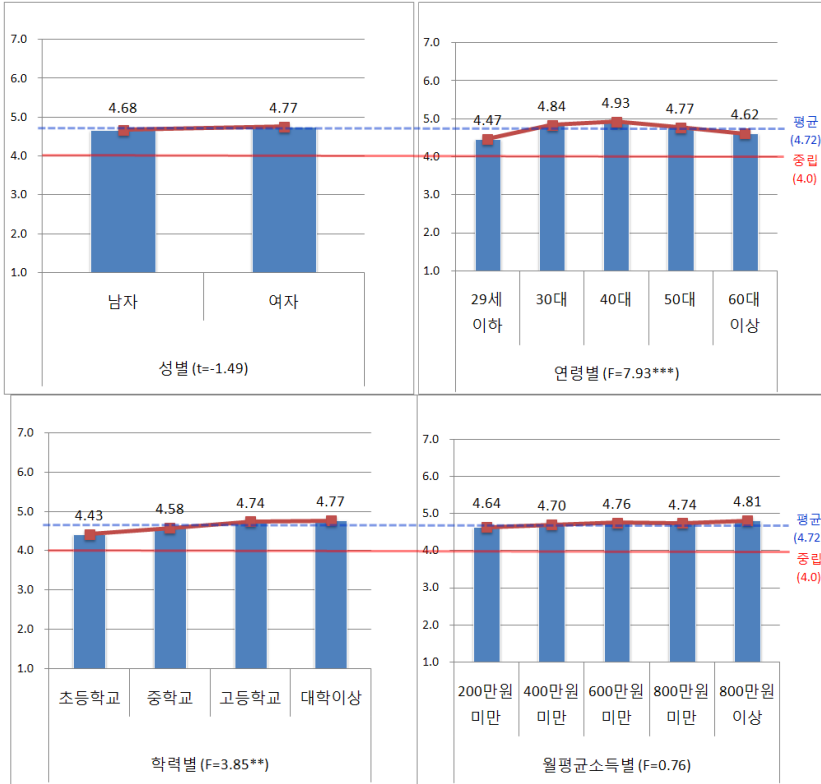
환경과 관련한 위험에의 노출정도에 있어서는 평균 4.72로 전체 평균 4.80을 약간 밑돌고 있다. 가장 높은 항목은 환경오염으로 4.91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관리로 4.51이다.

[그림 3-31] 환경 위험 노출정도 항목별 점수



이 영역에서도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40대 대졸자가 환경 관련 위험에의 노출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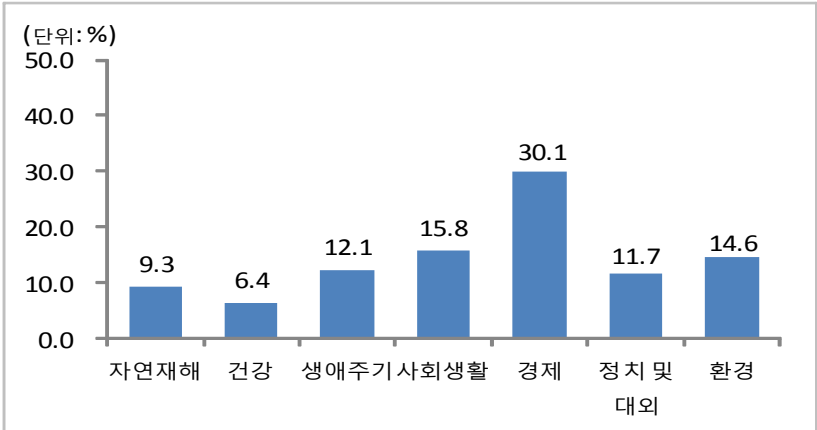
[그림 3-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노출정도



3. 가장 많이 노출된 위험

7개 영역 중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노출된 위험영역은 경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30.1%이었고, 그 다음은 사회생활로 15.8%, 환경 14.6%, 생애주기 12.1%의 순이었다. 반면 건강은 6.4%만이 지적하여 이에 대한 노출정도는 가장 미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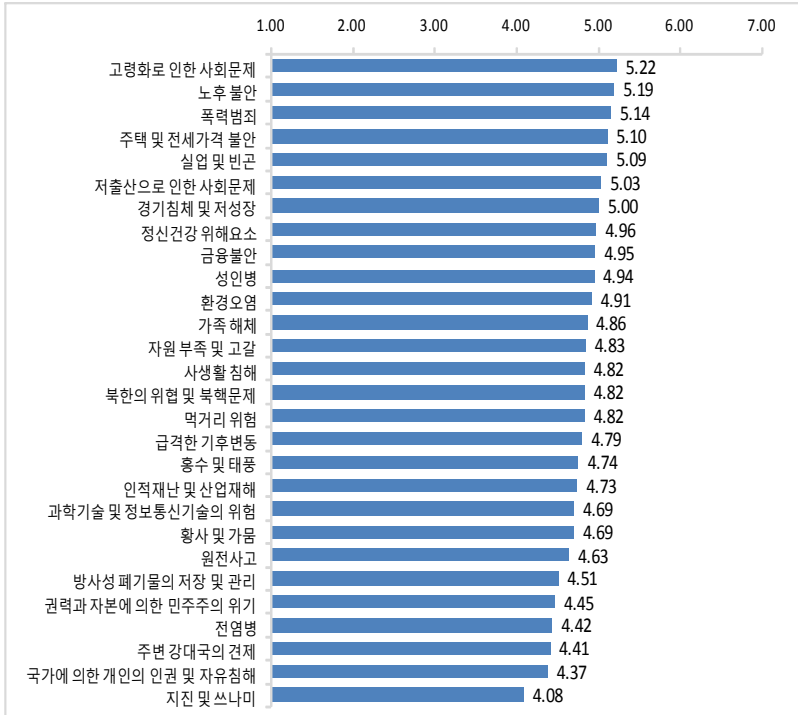
[그림 3-33] 가장 많이 노출된 위험



4. 노출정도 위험영역 전체 비교

위험 노출정도가 많은 항목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1순위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은 노후불안, 폭력범죄,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실업 및 빈곤 등의 순이었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사회안전 및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위험 노출 정도가 많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지진 및 쓰나미,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전염병 등 자연재해,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영역은 우리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3-34] 노출정도 위험영역 전체 비교



제3절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Haz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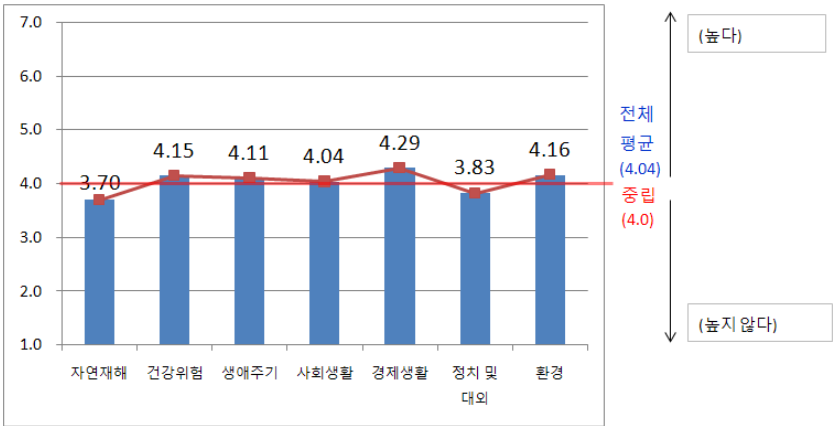
이번에는 이러한 위험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파악하였다.

1. 전체영역 위험발생가능성

7개 영역전체 평균은 4.04로 우리 사회의 취약성 및 노출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영역 중 평균이 가장 높은 영역은 경제생활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은 환경, 건강, 생애주기의 순으로 취약성이나 노출정도와는 다소 다른 순서를 보이고 있다. 즉, 앞의 2차원에서는 경제생활 또는 생애주기를 가장 취약하거나 노출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본인에게는 경제생활과 함께 주변 환경 및 건강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3-35] 7개 영역 발생가능성 비교



다음에서는 영역별로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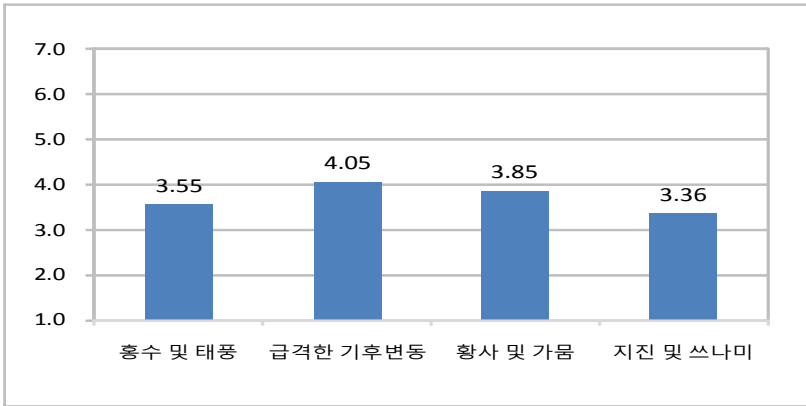
2. 위험영역별 발생가능성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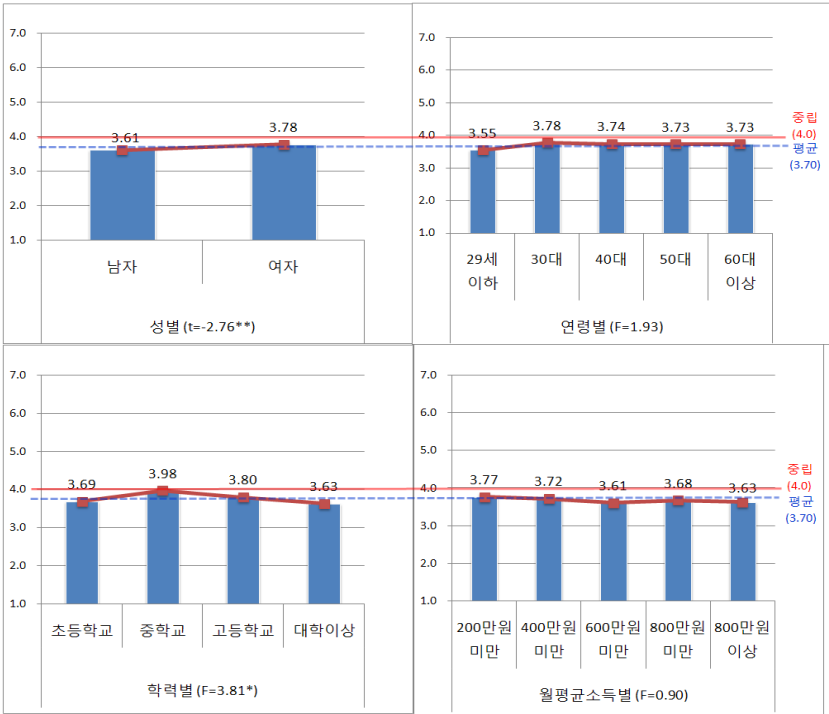
나미(지진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본인에게 발생가능성은 평균 3.70으로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이중 가장 높은 항목은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4.05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진 및 쓰나미로 3.36이다.

[그림 3-36] 자연재해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성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졸의 경우가 자연재해가 본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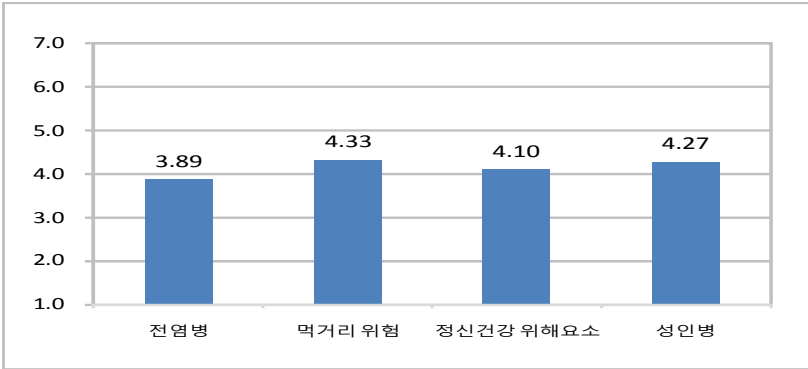
[그림 3-3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발생가능성



2) 건강 관련 위험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등과 같은 건강관련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확률에 있어서는 평균 4.15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장 높은 영역은 먹거리 위험으로 4.33이었고, 그 다음은 성인병으로 4.27이다. 전염병은 가장 낮은 3.89이다.

[그림 3-38] 건강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성별 차이만 유의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게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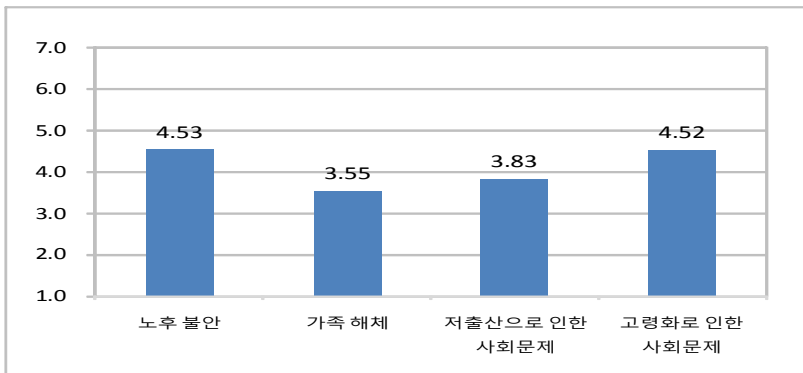
[그림 3-3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발생가능성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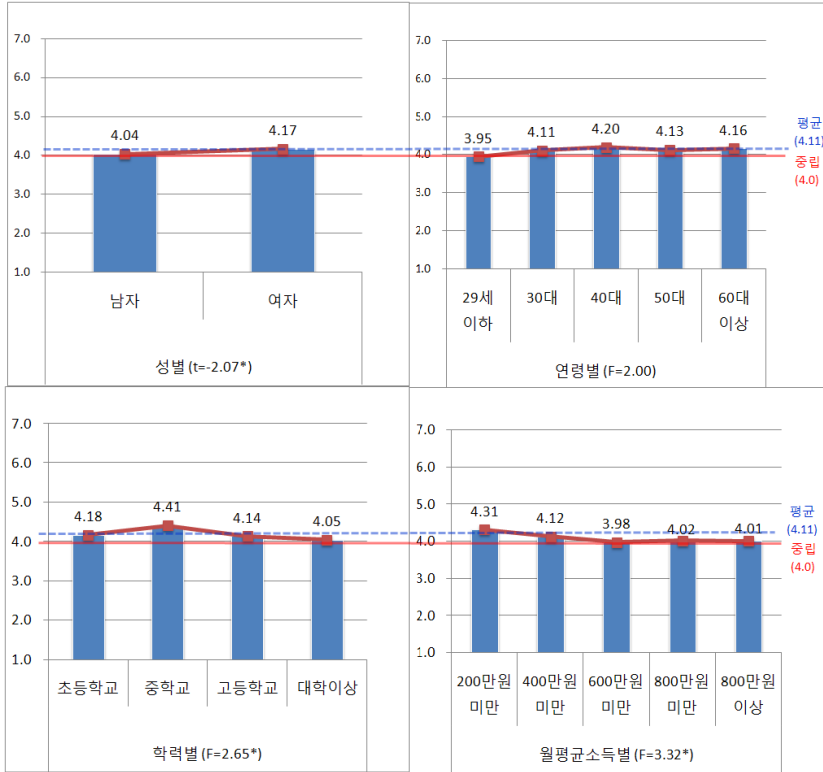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본인에게의 발생가능성은 평균 4.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높은 영역은 노후불안과 고령화로 4.53, 4.52 등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가족해체로 3.55이다.

[그림 3-40] 생애주기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성, 학력, 소득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자, 중졸,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본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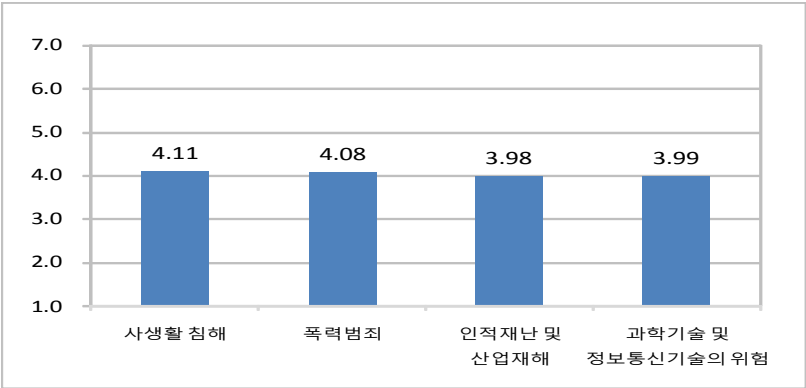
[그림 3-4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발생가능성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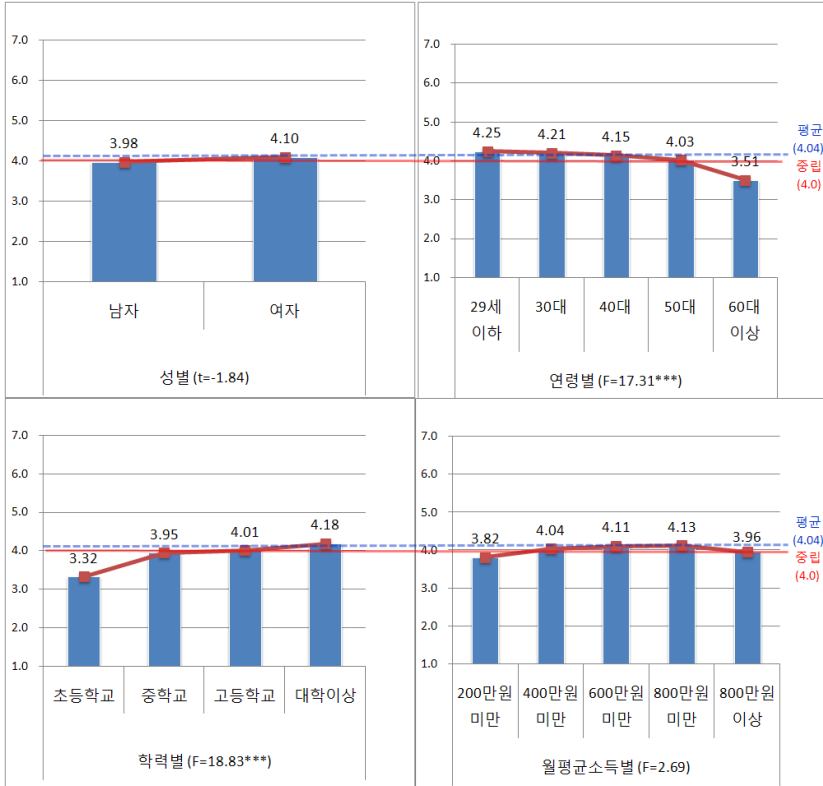
사회생활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 평균은 4.04로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가장 평균이 높은 항목은 사생활 침해로 4.11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로 3.98 등이다.

[그림 3-42] 사회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29세 이하, 대졸의 경우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본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과 초졸자는 이 영역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가장 낮게 지적하고 있다.

[그림 3-4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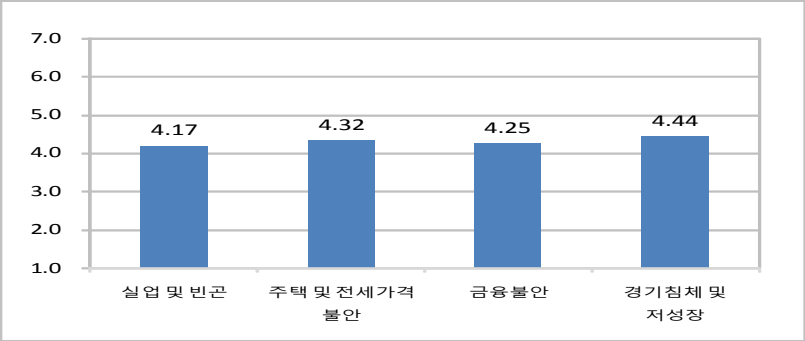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 평균은 4.29로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는 경기침체 및 저성장이 4.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으로 4.32이다. 실업 및 빈곤은 4.17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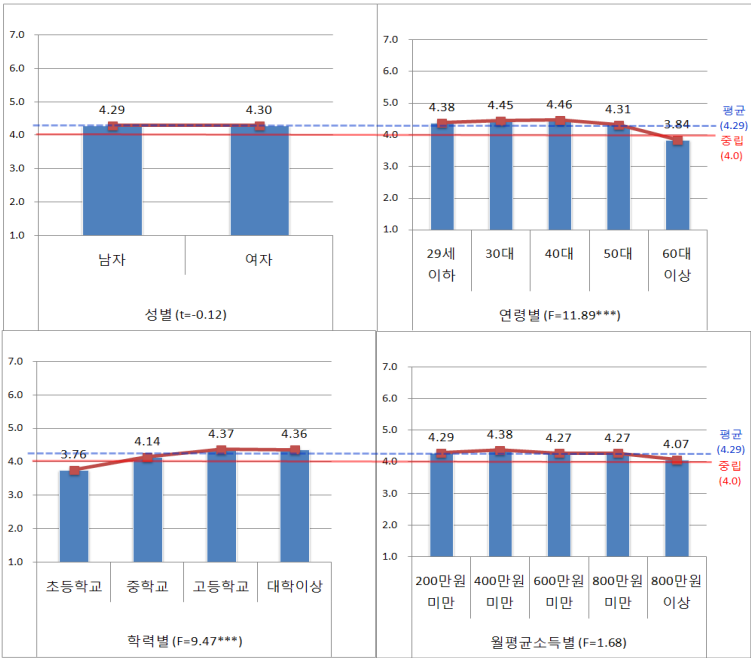
74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44]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연령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30-40대, 고졸 및 대졸자의 경우 경제생활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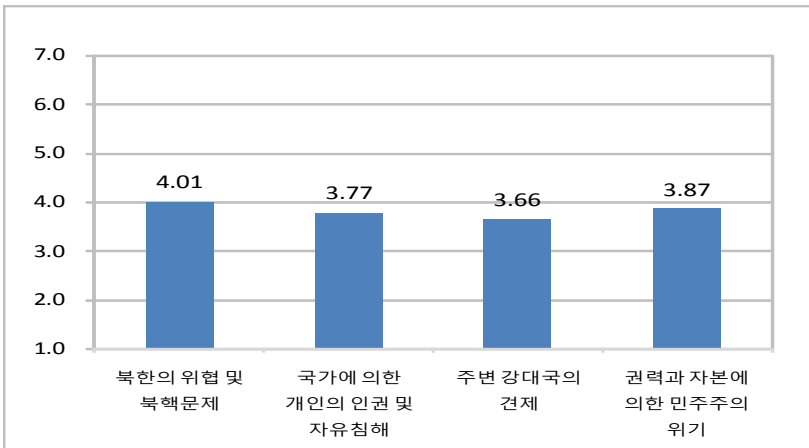
[그림 3-4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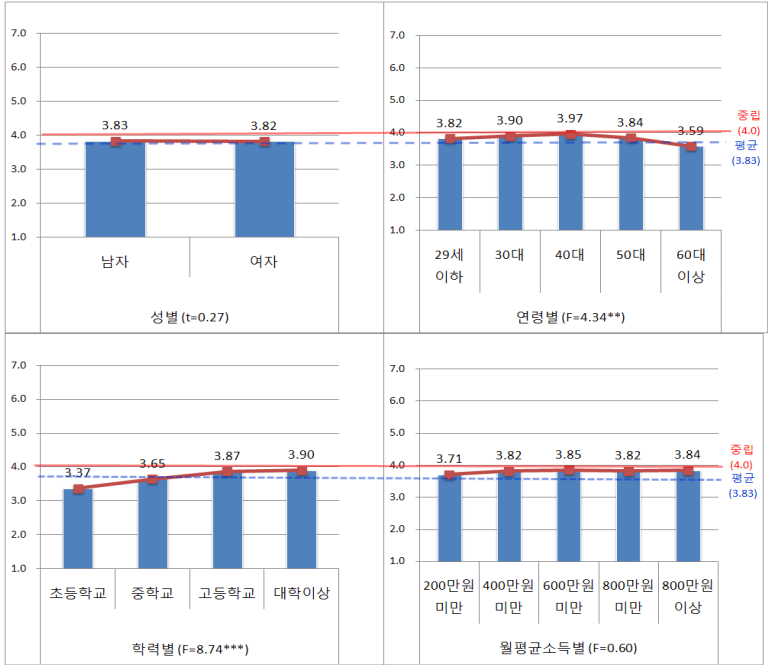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 평균은 3.83으로 낮은 편이다. 가장 높은 경우는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로 4.01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주변 강대국의 견제로 3.66이었다.

[그림 3-46]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연령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여 40대, 대졸자의 경우 이 영역이 본인에게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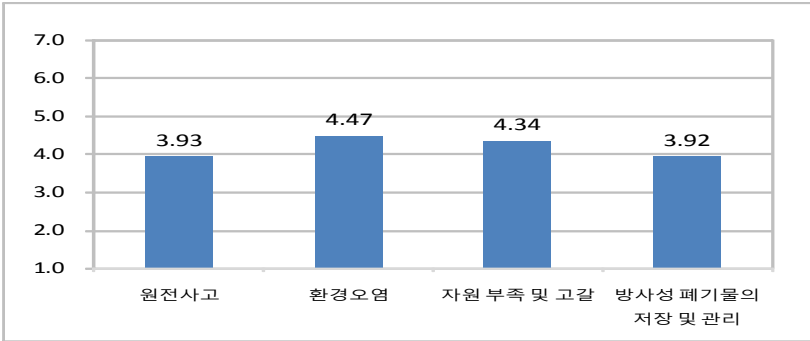
[그림 3-4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발생가능성



7) 환경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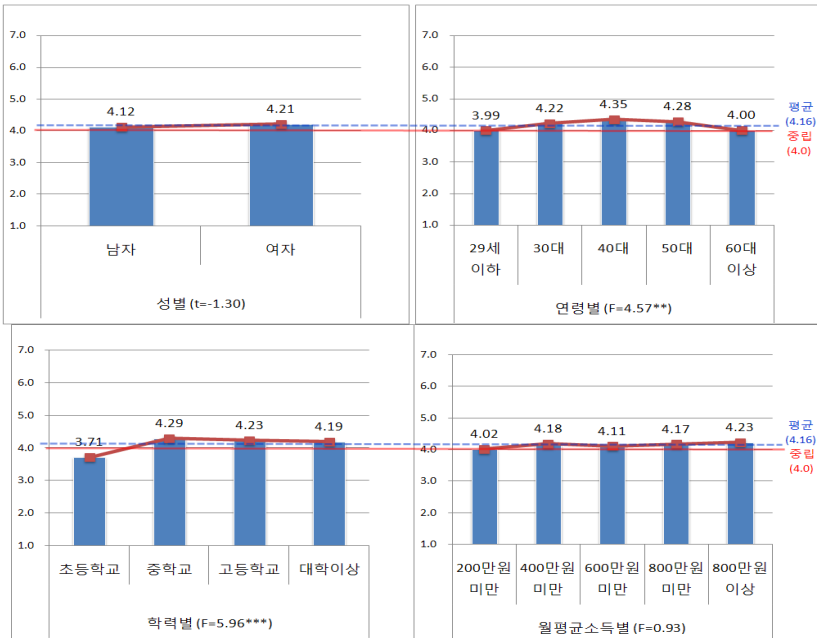
환경 관련 위험의 발생가능성 평균은 4.16으로 높은 편이다. 가장 높은 항목은 환경오염으로 4.47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로 3.92이다.

[그림 3-48] 환경 위험 발생가능성 항목별 점수



연령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다. 40-50대, 중졸의 경우 환경문제가 본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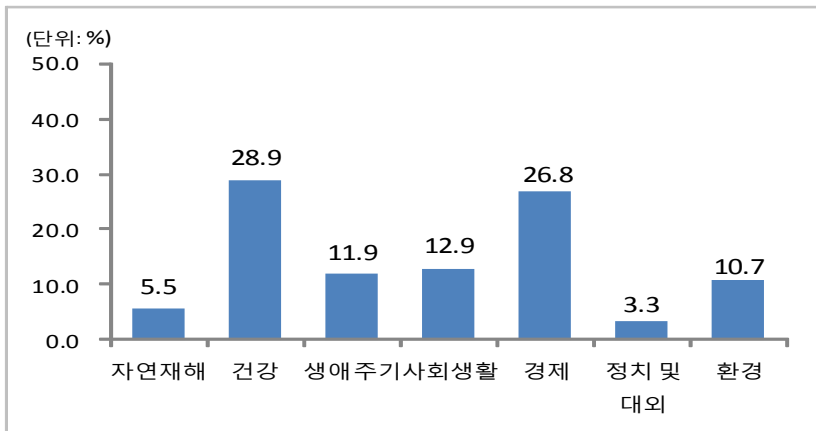
[그림 3-4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발생가능성



3.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

7개 영역 중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비율을 보면 건강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생활 26.8%, 사회생활 12.9%의 순이고,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가장 낮은 3.3%이다. 7개 영역을 개별적으로 질문했을 때와 다소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별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는데, 이를 한꺼번에 질문한 결과는 건강영역의 발생가능성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그림 3-50]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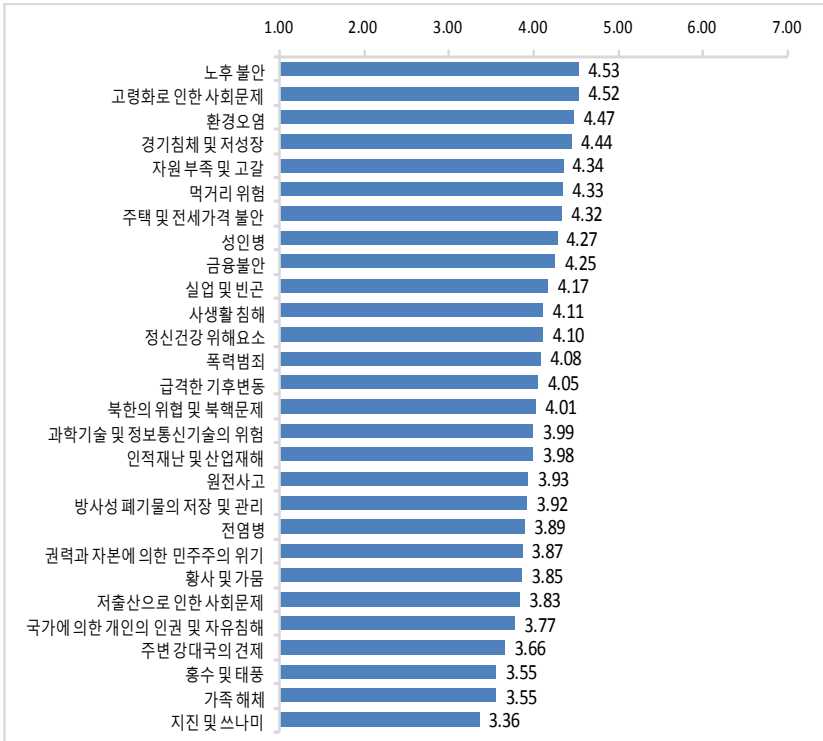


4. 발생가능성 위험영역 전체 항목 비교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순위대로 보면 가장 높은 항목은 노후불안으로 4.5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4.52이었다. 이를 이어서 환경오염 4.47, 경기침체 및 저성장 4.44,

자원부족 및 고갈 4.34, 먹거리 위험 4.33,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4.32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51] 발생가능성 위험영역 전체 항목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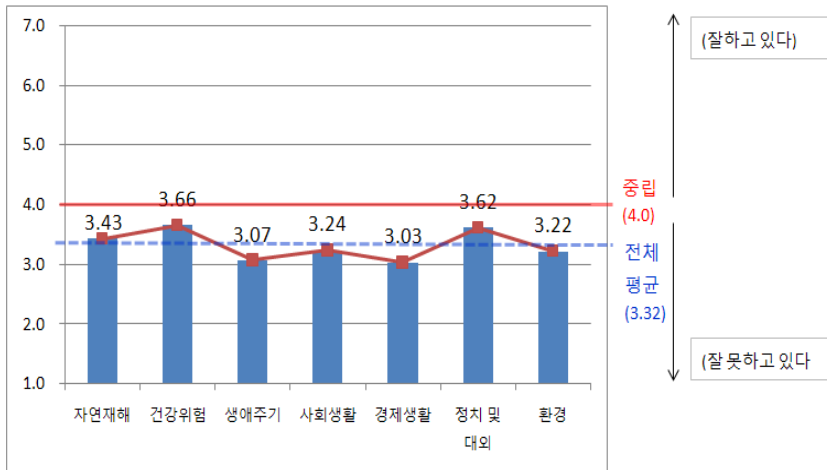
제4절 한국정부의 대처능력 (Capability and Measures)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1. 정부의 위험대처에 대한 평가

7개 영역 전체의 정부대처능력 평균은 3.32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가장 대처능력이 높다고 평가한 영역은 건강 관련 위험,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으로 파악되었고, 반대로 정부의 대처능력이 낮은 영역은 생애주기, 경제생활, 사회생활, 환경 등으로 파악되었다. 즉 위험에의 취약성, 노출정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의 경우 정부가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52] 7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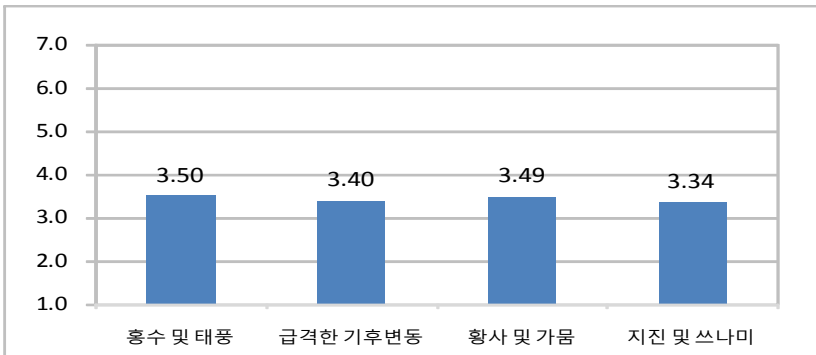


2. 위험영역별 정부대처능력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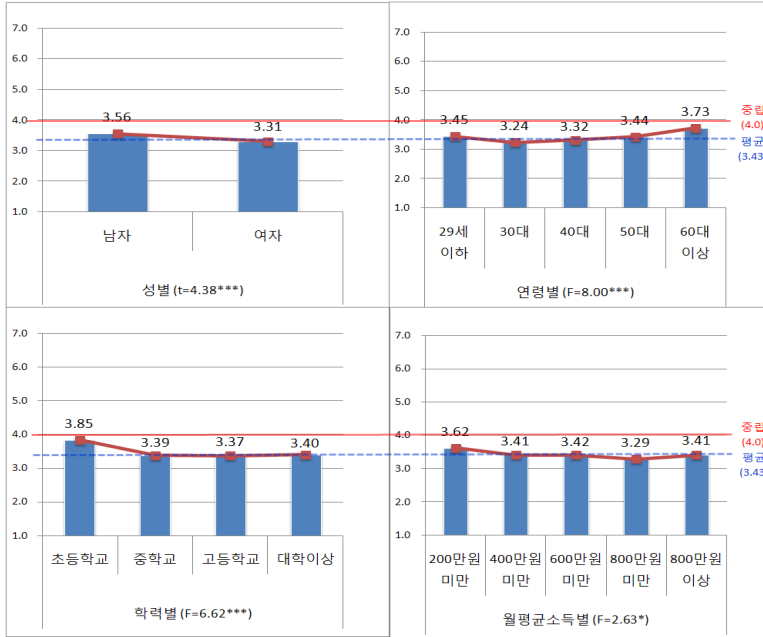
영역별로 보면 자연재해는 3.43으로 중간정도 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유사하여 홍수 및 태풍 3.50, 황사 및 가뭄 3.49, 급격한 기후변동 3.40, 지진 및 쓰나미 3.34 등이다.

[그림 3-53]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남자가 60대 이상이 초졸의 경우, 200만원 미만 월소득자가 정부대처능력이 더 높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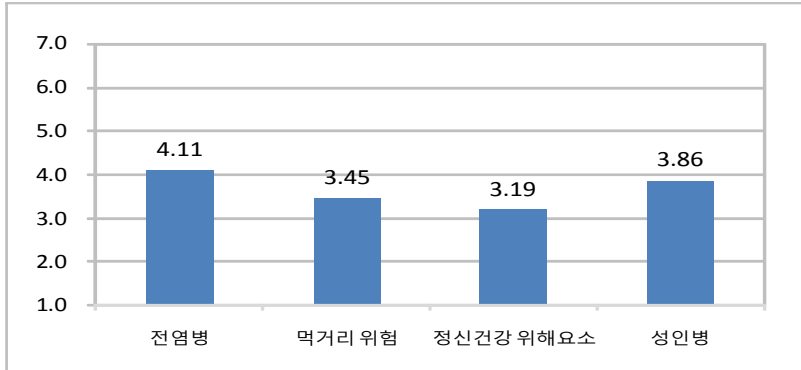
[그림 3-5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능력



2) 건강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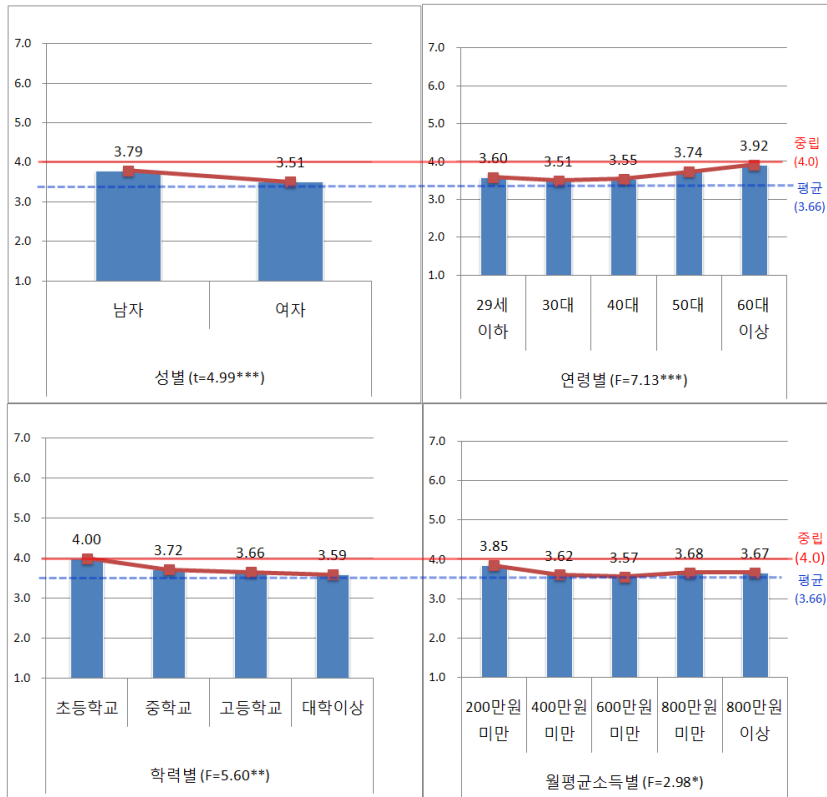
건강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평균 3.66으로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전염병의 경우는 평균이 4.11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았고, 성인병도 3.86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 자살)는 3.19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3-55] 건강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인구사회학적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남자의 경우, 60대 이상, 초졸, 2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가 정부의 대처능력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고 하였다. 역으로 여성, 30대, 대졸, 600-800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낮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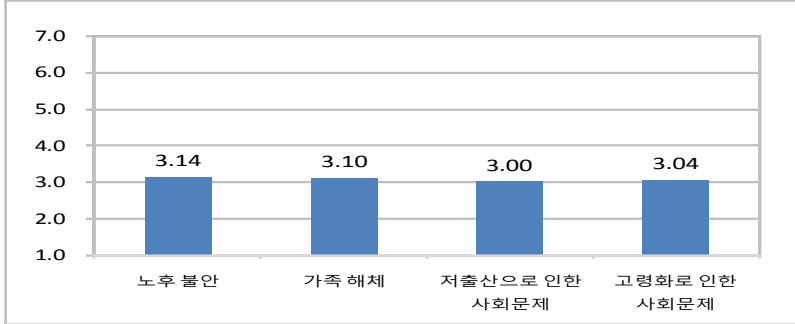
[그림 3-5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정부대처능력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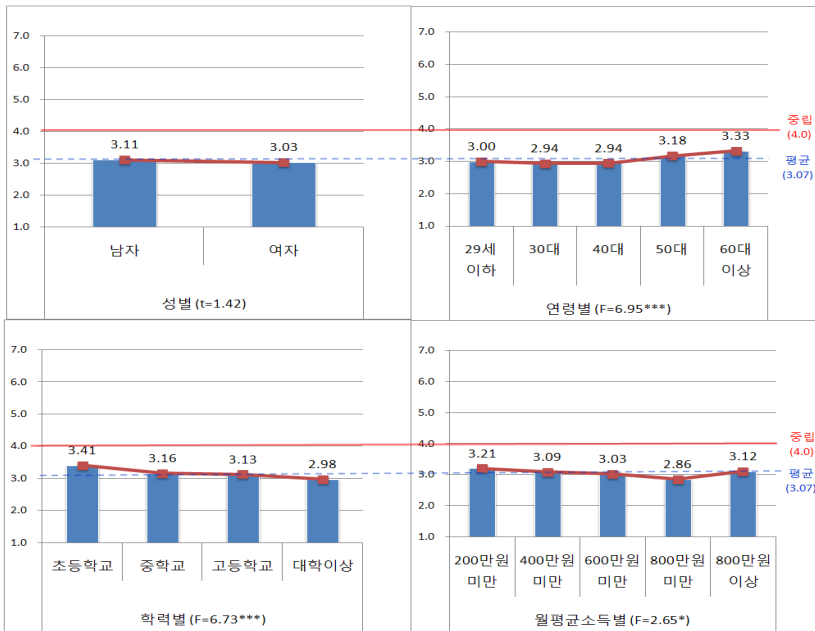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평균은 3.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항목이 낮았는데, 가장 낮은 항목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3.00, 그 다음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3.04이다. 즉 저출산 및 고령화의 도래가 사회적 위협인 반면,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3-57]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연령, 학력, 소득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29세 이하, 대졸자, 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가 정부의 대처능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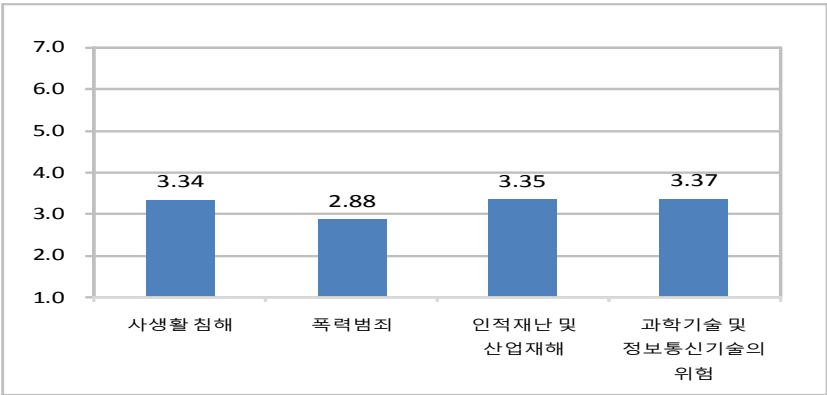
[그림 3-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능력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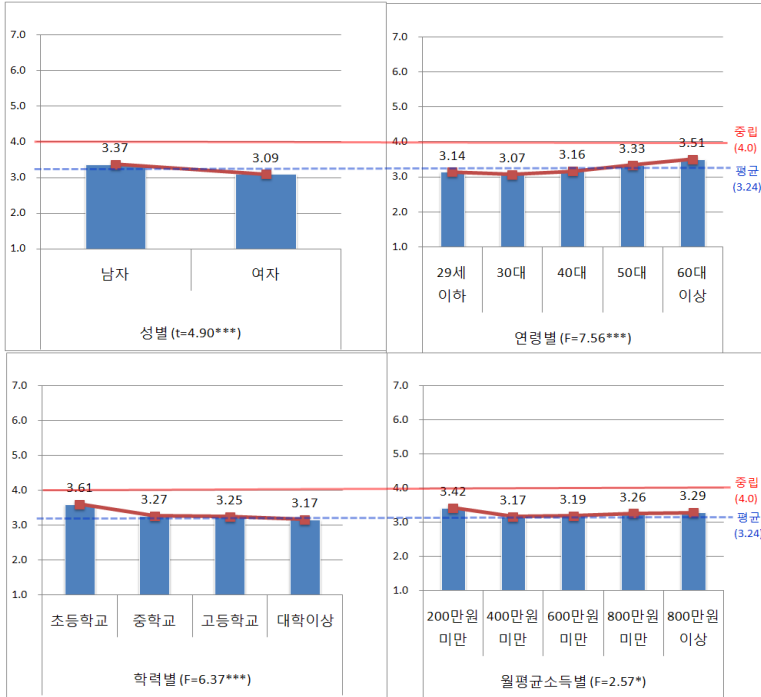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의 정부대처능력은 평균 3.24로 낮은 편이다. 이 영역은 항목 간 편차가 큰 편이다. 가장 낮은 항목은 폭력범죄로 2.88이었다. 가장 정부대처능력이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위험으로 3.37, 인적 재난 및 산업재해 3.35 등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3-59]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특히 여자, 30대, 대졸, 400~600만원 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3-60] 인구사회학적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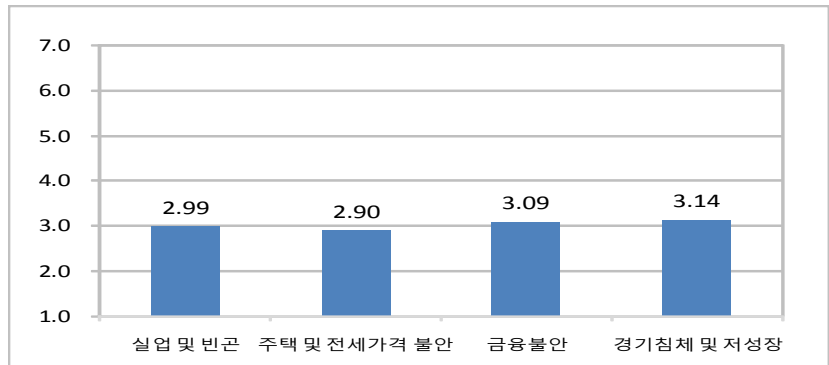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대처능력 평균은 3.03으로 매우 낮았다. 경기침체 및 저성장 3.14, 금융불안 3.09로 평균을 웃돌았고,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은 가장 낮은 2.90, 그 다음은 실업 및 빈곤으로 2.9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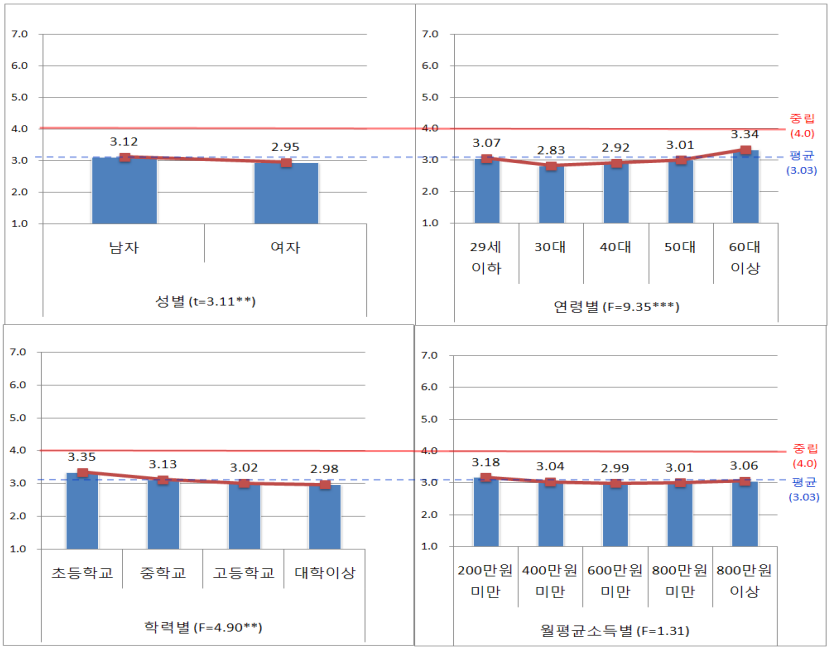
88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61]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여자, 30-40대, 대졸자, 600-800만원 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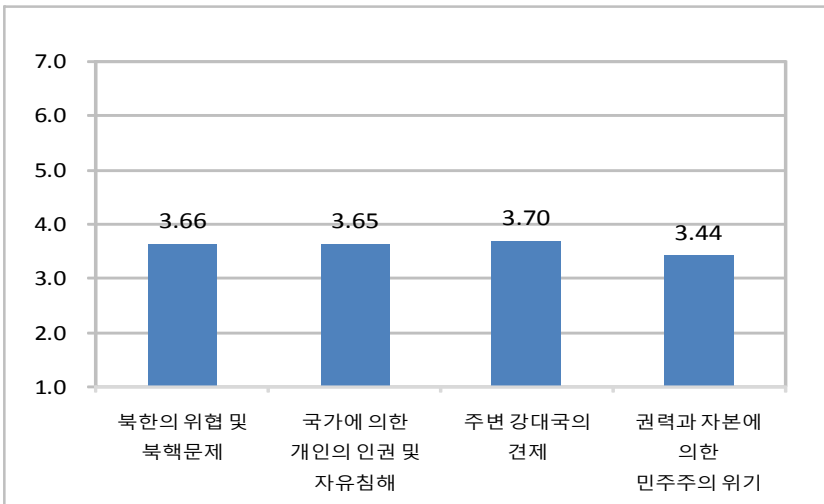
[그림 3-6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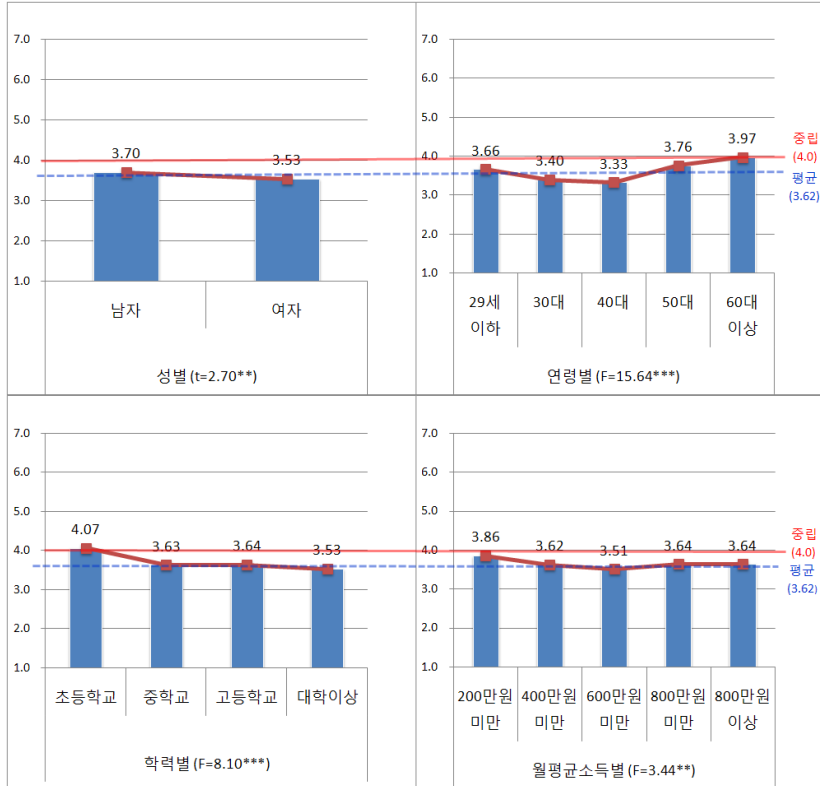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대처능력 평균은 3.62로 다른 영역보다는 다소 높았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주변 강대국의 견제로 3.70이었고, 그 다음은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3.66이다. 반면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3.44로 가장 낮았다.

[그림 3-63]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여자, 30-40대, 대졸자, 600-800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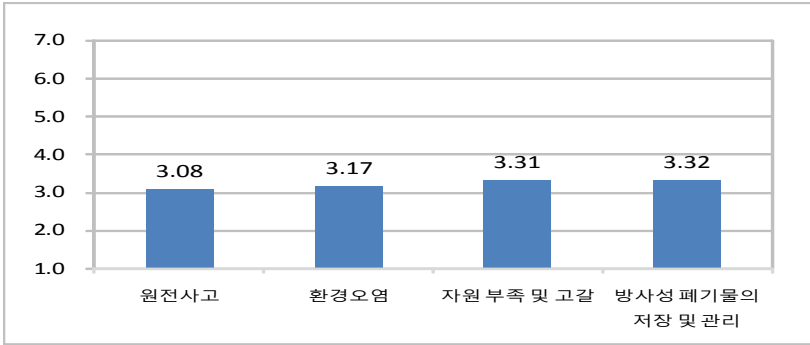
[그림 3-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정부대처능력



7) 환경 관련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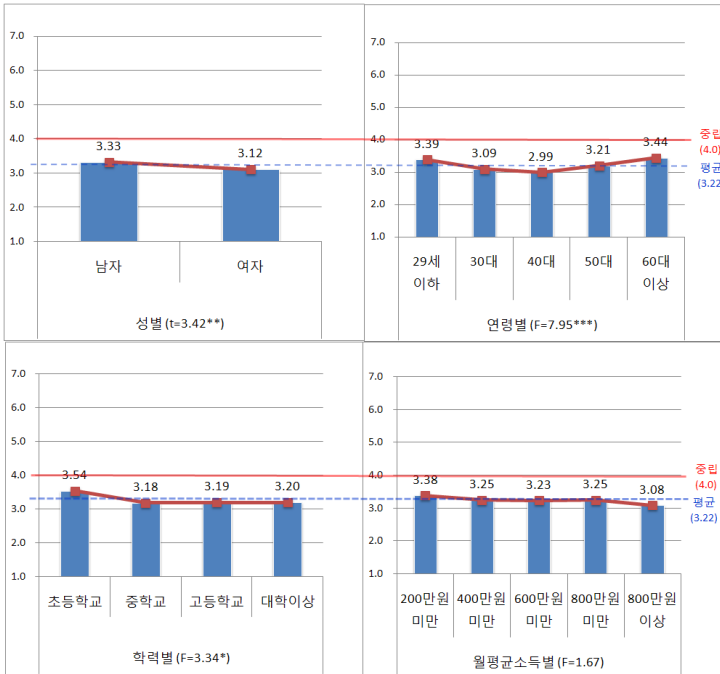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대처능력 평균은 3.22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3.32, 자원부족 및 고갈 3.31 등의 순이다. 반면 원전사고 3.08, 환경오염 3.17 등은 정부의 대처점수가 낮은 항목이다.

[그림 3-65] 환경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여자, 40대, 중졸/고졸/대졸, 800만원이상 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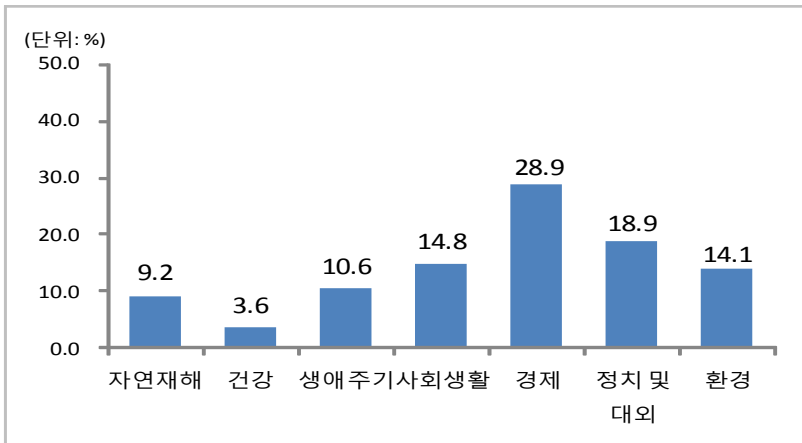
[그림 3-6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정부대처능력



3. 정부가 잘못 대처하는 위험영역

7개 영역에서 정부가 가장 잘못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질문한 결과 경제생활영역이 28.9%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은 정치 및 대외관계로 18.9%, 사회생활 14.8%, 환경 14.1%, 생애주기 10.6%의 순이었다. 건강은 3.6%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림 3-67] 정부가 가장 잘못 대처하는 위험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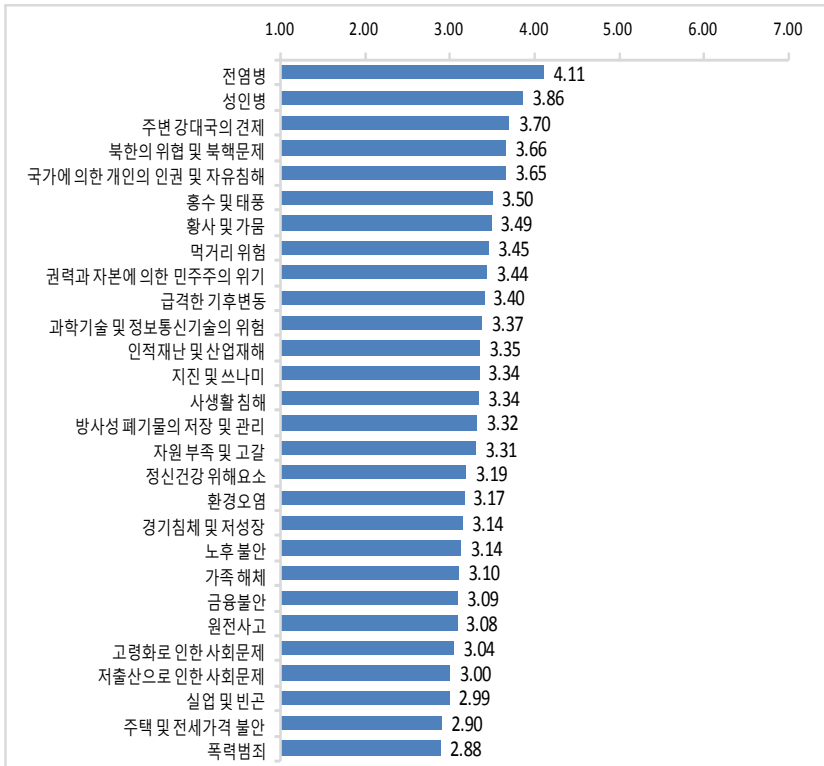
4. 위험영역 정부대처능력 전체 항목별 비교

정부가 대처를 잘 하는 영역별로 보면 전염병이 가장 높은 4.11이었고, 그 다음은 성인병으로 3.86, 주변 강대국의 견제 3.70,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등으로 파악되었다. 즉, 우리 사회가 취약하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있었다.

반면 위험의식정도가 높은 폭력범죄 2.88,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2.90, 실업 및 빈곤 2.99,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3.00 등은 정부의 대처능력이 3을 밑도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림 3-68] 위험영역 정부대처능력 전체 항목별 비교



제5절 차원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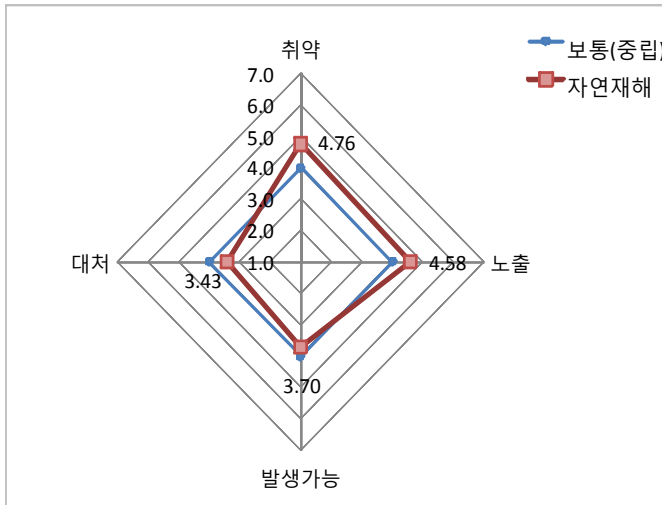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7개 영역별로 4개의 차원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즉 개별 영역에서 4차원 간 점수 비교를 통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고찰하였

다. 한국사회의 취약성, 노출정도, 본인에게의 발생가능성, 정부의 대처를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앞의 3차원은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정도가 높은 편, 정부대처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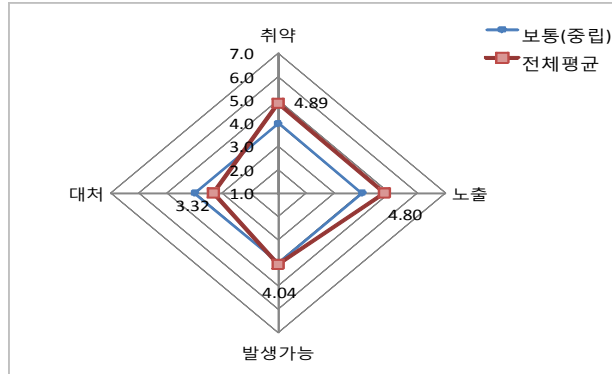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자연재해 관련 위험에서는 취약성이 가장 높은 4.76이었고, 그 다음은 노출이었고, 본인에의 발생가능성은 중간이하인 3.70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대처는 3.4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전체 평균: 3.32).

[그림 3-69] 자연재해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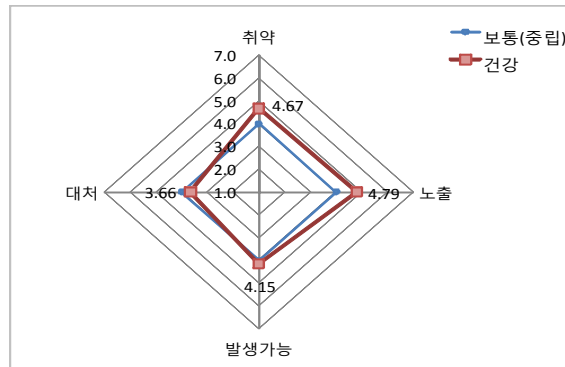
[그림 3-69-1] 비교: 전체 4차원 평균



2. 건강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에서는 노출이 가장 높은 4.79이었고, 그 다음은 취약 4.67이었고 본인에의 발생가능성은 자연재해처럼 가장 낮은 4.15이었다. 정부의 대처는 3.66으로 평균(3.32)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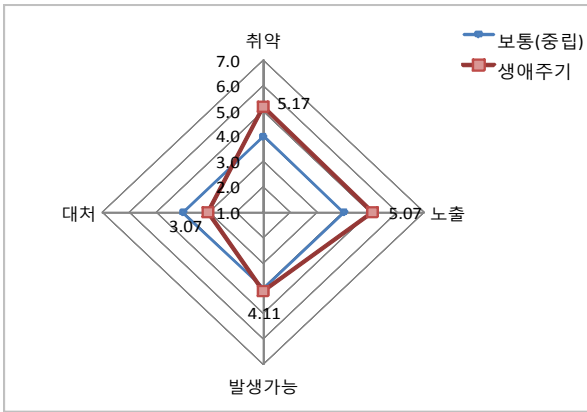
[그림 3-70] 건강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생애주기 위험은 취약, 노출이 모두 높은 편인 각 5.17, 5.07인 반면, 대처는 3.07로 매우 괴리가 큰 부분이다. 본인에의 발생가능성은 4.11로 전체 평균 4.04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위험 대비 정부의 대처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생애주기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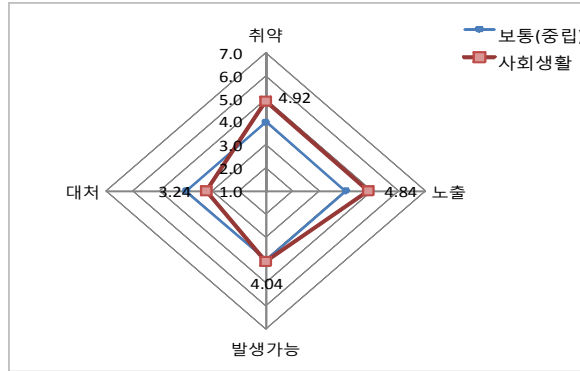
[그림 3-71] 생애주기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도 취약성과 노출이 높고, 대처는 낮은 편이다. 본인에의 발생가능성은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생활 관련 위험 수준은 중간정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처는 평균 3.32보다 약간 낮은 3.24로 위험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정부대처가 미약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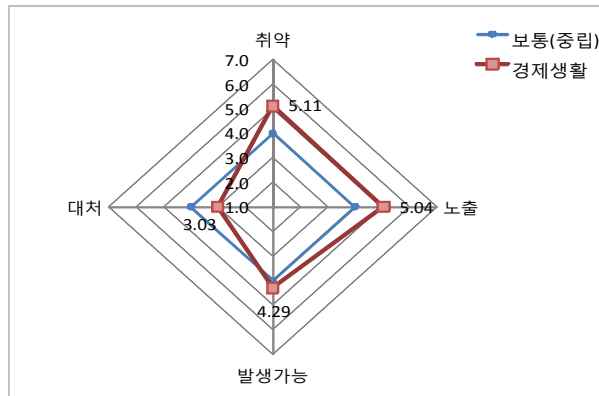
[그림 3-72] 사회생활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은 앞의 사회생활보다 더욱 위험 대비 대처가 취약한 부분이다. 취약 5.11, 노출 5.04에 비해 정부대처는 3.03으로 매우 낮다. 본인에의 발생가능성도 4.29로 평균보다 높은 위험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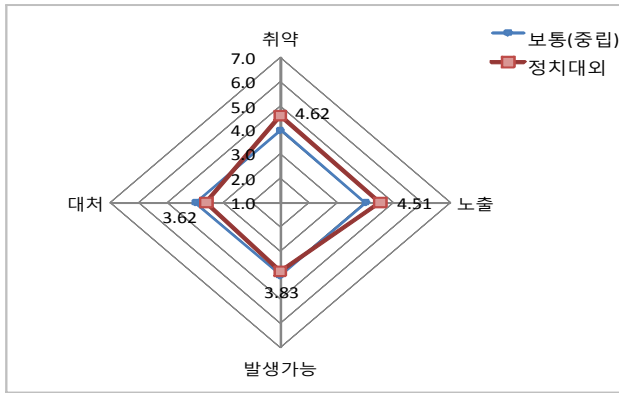
[그림 3-73] 경제생활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취약, 노출 및 본인에의 발생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정부의 대처는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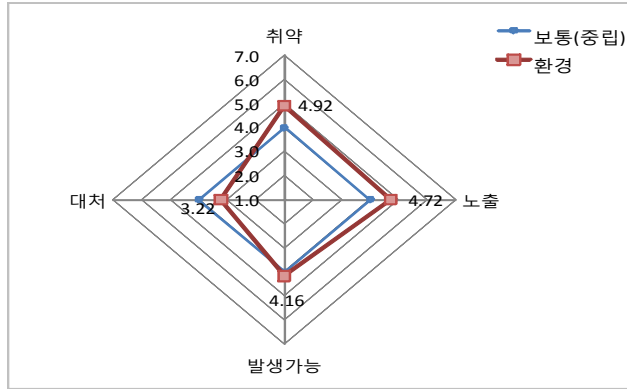
[그림 3-74]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7. 환경 관련 위험

환경 관련 위험에서 취약성은 평균 4.89보다 약간 높은 4.92이고, 노출은 평균(4.80)보다 약간 낮고 본인에의 발생가능성은 평균보다 높은 4.16이다. 즉 환경에의 위험에 우리 사회가 취약하고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본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처는 평균이하로 낮게 보고 있다.

[그림 3-75] 환경관련 위험 4차원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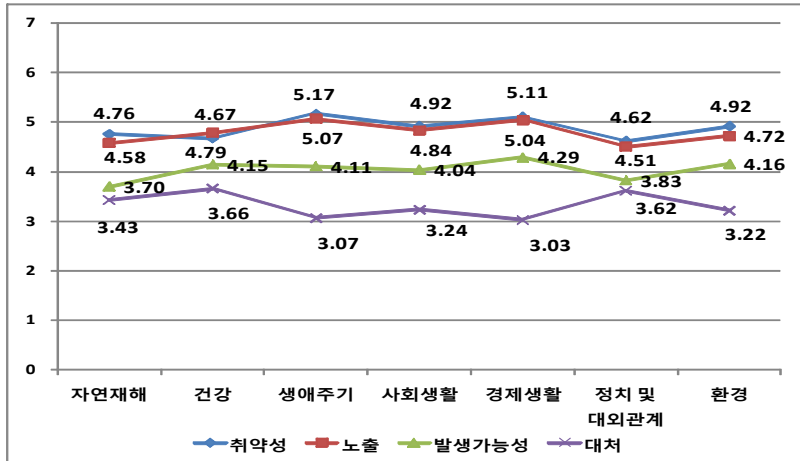
8. 종합

4차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4차원 중 취약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노출이다.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과 정부대처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은 생애주기와 경제생활이고, 반면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은 건강과 정치 및 대외관계이다.

〈표 3-1〉 4차원 평균 종합

	취약성	노출	발생가능성	대처
전체 평균	4.89	4.80	4.04	3.32
자연재해	4.76	4.58	3.70	3.43
건강	4.67	4.79	4.15	3.66
생애주기	5.17	5.07	4.11	3.07
사회생활	4.92	4.84	4.04	3.24
경제생활	5.11	5.04	4.29	3.03
정치 및 대외관계	4.62	4.51	3.83	3.62
환경	4.92	4.72	4.16	3.22

[그림 3-76] 4차원간 비교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을 4차원별 추이를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취약성 차원(Vulnerability)에서는 평균 4.89로 다른 차원에 비해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고, 영역별로는 생애주기, 경제생활, 환경의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및 대외관계, 자연재해, 건강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가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30-40대와 대졸자가 위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반면 20대의 저연령과 60대 이상 및 초졸자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다. 성별 및 소득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노출정도(Exposure)는 전체 평균 4.80으로 취약성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4차원 중 2번째로 위험인식이 높은 차원이다. 노출차원에서

경제생활과 생애주기영역에서의 위험인식이 가장 높았고, 반면 정치 및 대외관계 및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 차원에서도 30-40대와 대졸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Hazard)에 있어서는 평균이 4.04로 별로 높은 편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생활과 환경, 건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과 달리 여자, 저학력자(중졸)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영역(자연재해, 건강 등)이 있었다. 다른 차원과 달리 건강영역에 대한 위기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는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차원으로 평균이 중간이하인 3.32에 불과하였다. 특히 경제생활, 생애주기,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낮아,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영역에서 대처능력이 낮다고 보고 있다. 30-40대와 대졸자가 이러한 경향이 더 많았다. 반면, 건강,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간 더 높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영역의 평균도 중간 이하로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국민은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반면 이러한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30-40대와 대졸자는 우리 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영역별로는 경제생활, 생애주기 영역에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 분야는 위험정도와 정부의 대처능력 간의 차이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특이하게 건강영역의 위험도는 본인에 발생할 가능

성은 높은 편이나 정부의 대처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문제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대처도 낮은 편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와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제4장 한국의 위험사회지수

제1절 위험사회지수

제2절 한국의 위험사회지수 현황

제3절 위험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

한국의 위험사회 지수 <<

제1절 위험사회 지수

1. 사회적 위험지수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위험은 위험을 감수한 선택에 의한 결과이며 위험의 광범위한 확산과 위험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예측 가능한 위험의 양산과 동시에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복잡한 위험으로 발전하고 있다(Beck, 1986).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제도와 문화, 거버넌스 차원의 관리와 대비가 불가피한 영역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지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KGSS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을 이용한 이 조사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위험 인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위험 인식의 실태와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이미 다수의 대중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대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위험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직접적인 체감으로 구성되는데 그 둘 중 하나를 결여하게 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지닌 현실에 둔감하게 되는 것이다.

종종 어떤 위험들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속적인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만은 그러한 위험이 일

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위험에 대하여 실제로 상존하고 있는 위험이 자신과는 무관하며 그 위험이 다른 외부의 존재에 의해 야기된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위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Joffé, 1999).

이러한 위험에 대한 무책임성은 위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 차원이 아닌 객관적 차원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만약 위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표가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쉽게 객관적 차원에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위험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위험의 구체적 유형과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위험의 존재여부와 대비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측정수단과 지표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인지적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의 지수화를 통한 인지확대는 위험을 실체보다 강조하거나 불필요한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이 우리 사회 내에 실질적인 형태로 광범위하게 함께 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감안할 때 위험관리와 대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위험 수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지표 생산을 통한 정밀한 진단은 시의성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요구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위험 지수를 산출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는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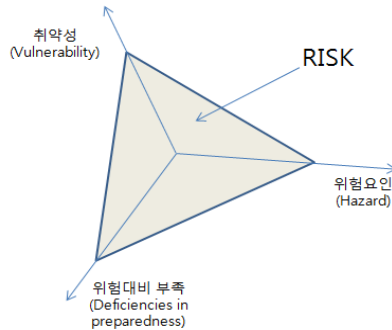
안전한 사회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위험지수의 구성

1) 위험 및 위험사회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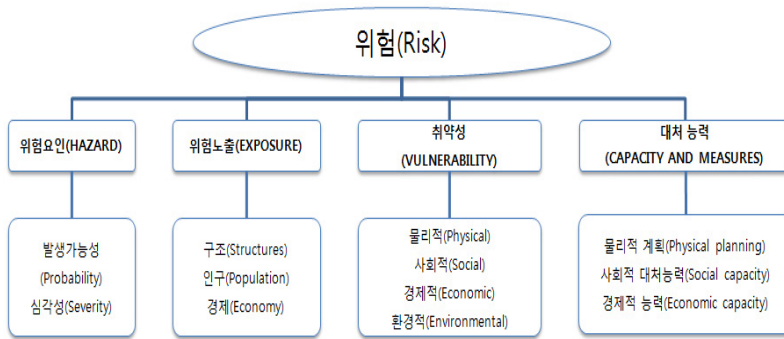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복잡성은 위험의 구성요소의 분류와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먼저, 위험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Bohle(2001)은 재해위험(disaster risk)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취약성(vulnerability)을 정의하면서, 위험노출(exposure)과 취약성, 대처능력(coping capacity)을 위험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Davidson, 1997; Bollin et al., 2003). 또한, Villagrán de León은 위험요인과 위험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설명하면서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요인(hazard), 위험대비부족(deficiencies in preparedness)의 3가지를 위험의 3요소로 정의하였다(Villagrán de León, 2004: 10). 그는 다른 위험 요인들에 의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가능성을 취약성으로 설명하였고, 사회의 대처능력 결핍을 위험대비부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그는 위험노출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상황의 구성요소를 위험노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은 “risk triangle”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4-1] Risk as a result of Vulnerability, hazard and deficiencies in preparedness.



[그림 4-1]의 “risk triangle”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그림 4-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기존 “risk triangle”에서 3개의 각 정점을 구성하였던 3가지 구성요소 외에 위험에 대한 노출의 개념을 추가하고 각 구성요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Risk)을 위험요인(hazard), 위험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대처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중 위험요인은 위험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성(severity)로 정의되고, 위험노출(exposure)은 위험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구, 경제 등에 의해 특성화된다. 이에 반해, 취약성(vulnerability)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coping capacity)은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 사회적 대처능력(social capacity),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city)과 관리능력(management) 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The conceptual framework to identify risk.



위와 같은 개념적 틀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 위험지수(KSRI: Korea Social Risk Index)를 구하기 위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KSRI = \frac{(w \times H + w \times E + w \times V) - w \times C}{5}$$

- KSRI = Korea Social Risk Index
- H = Hazard
- E = Exposure
- V = Vulnerability
- C = Capacities and Measures
- w = w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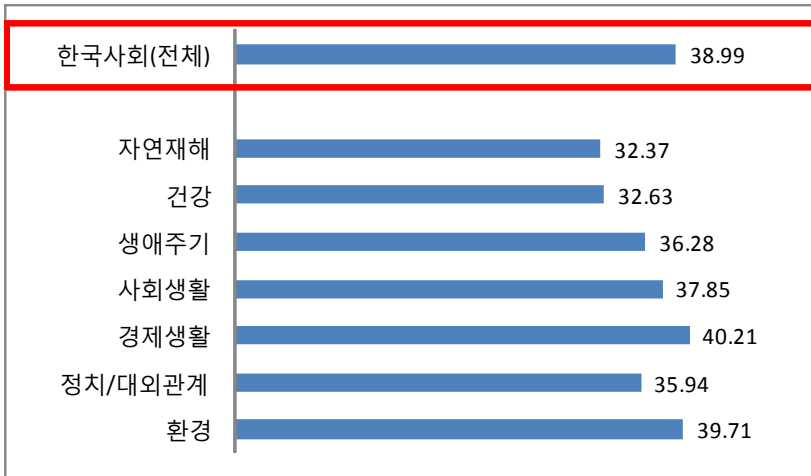
KSRI는 한국사회의 안전 및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H: Hazard), 노출정도(E: Exposure), 취약성(V: Vulnerability)의 합에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C: Capacities and Measures)을 뺀 값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가중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요인적재값(0 ~ 1)이 부여되었으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결과값에 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KSRI는 점수가 낮을수록 덜 위험한 사회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한국사회 위험지수 현황

1. 한국사회 위험지수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38.99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각 영역별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32.37점, 건강 관련 위험 32.63점, 생애주기 관련 위험 36.28점, 사회생활 관련 위험 37.85점, 경제생활 관련 위험 40.21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35.94점, 환경 관련 위험 39.71점이었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환경 관련 위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연재해와 건강 관련 위험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3] K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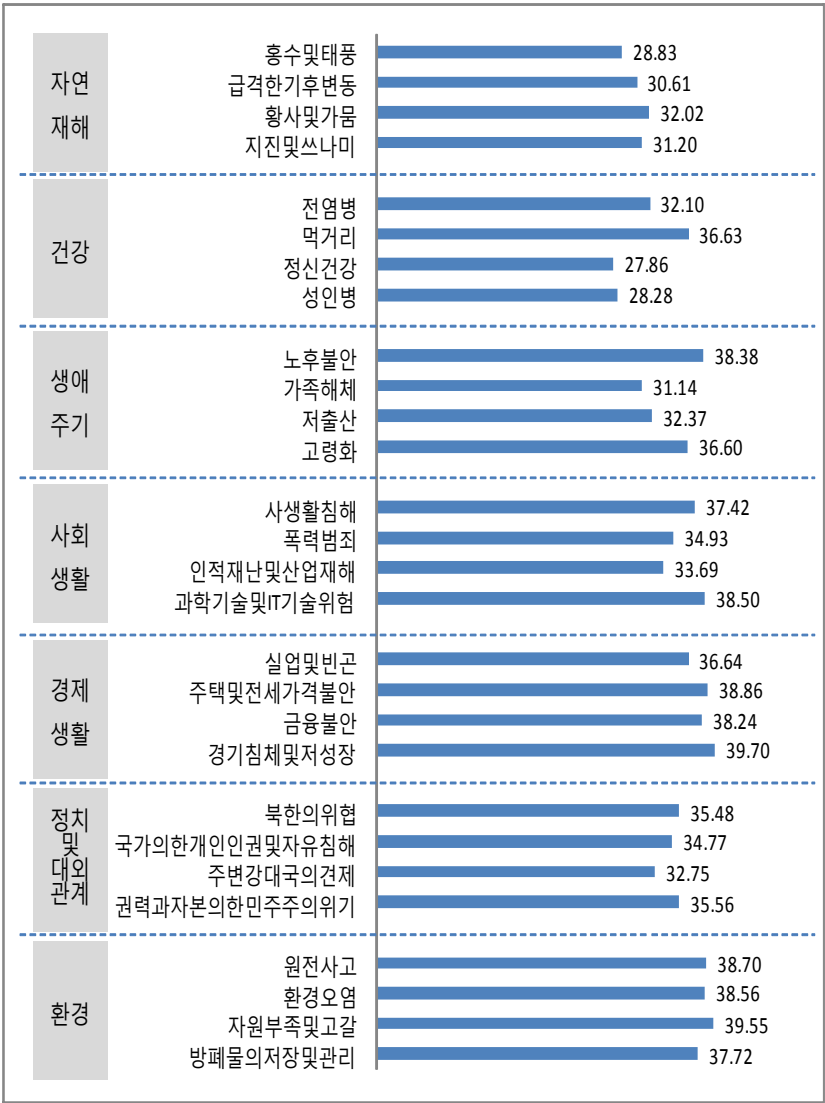


자연재해 등 7개 영역별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황사 및 가뭄에 대한 위험지수가 32.0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진 및 쓰나미, 급격한 기후변동, 홍수 및 태풍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은 먹거리에 대한 위험지수가 36.6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염병, 성인병, 정신건강 순이었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화, 저출산, 가족해체 순이었으며, 사회생활 관련 위험은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이 38.5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생활 관련 위험은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 대한 위험지수가 39.7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실업 및 빈곤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35.5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위험은 자원부족 및 고갈에 관한 위험지수가 39.5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원전사고, 환경오염,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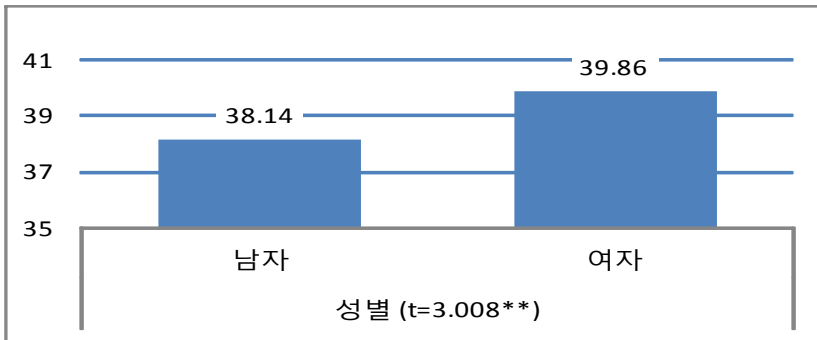
자연재해와 건강관련 위험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이며 반복적인 위험들의 위험지수가 높은 반면, 기타 다른 영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위험들의 위험지수가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림 4-4] KSRI - 7개 영역별 위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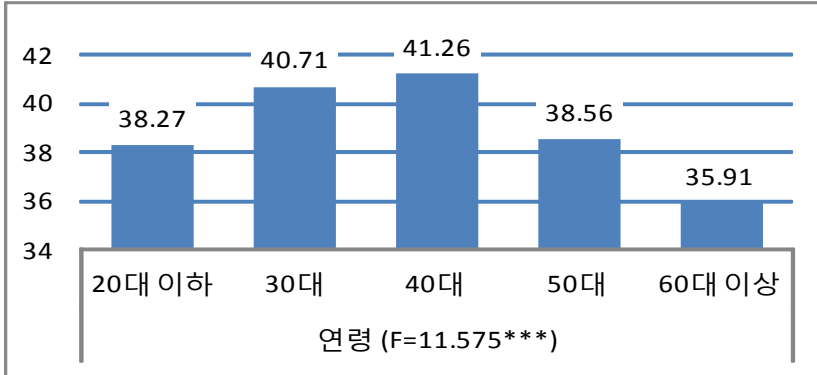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남자 38.14점, 여자 39.86점으로 여성들의 위험지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 모두에서 남정보다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KSRI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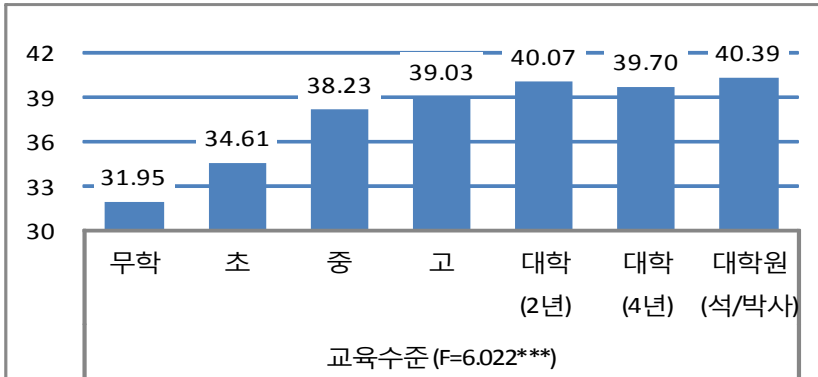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8.27점, 30대 40.71점, 40대 41.26점, 50대 38.56점, 60대 이상 35.91점으로 40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가 높은 반면,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대체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는 30~5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 모두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자연재해, 생애주기,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관련 위험지수를 가장 높게 나타냈고, 30대는 건강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연령대가 갖는 불안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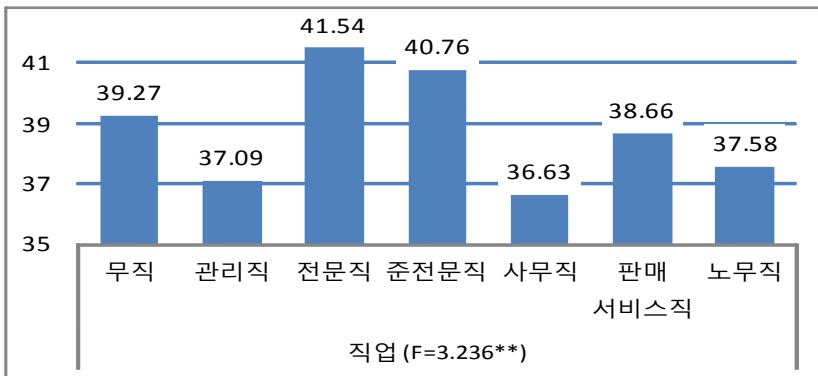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31.95점, 초등학교 34.61점, 중학교 38.23점, 고등학교 39.03점, 대학(2년) 40.07점, 대학(4년) 39.70점, 대학원(석/박사) 40.39점으로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보다는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의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지수가 낮다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의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과 이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림 4-7] KSRI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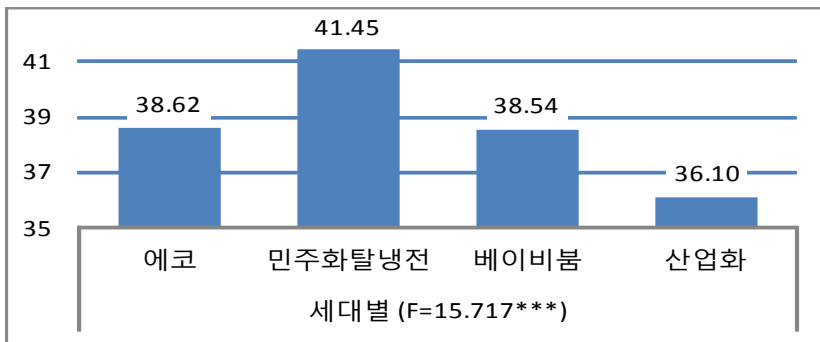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무직 39.27점, 관리직 37.09점, 전문직 41.54점, 준전문직 40.76점, 사무직 36.63점, 판매서비스직 38.66점, 노무직 37.58점이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 전문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KSRI -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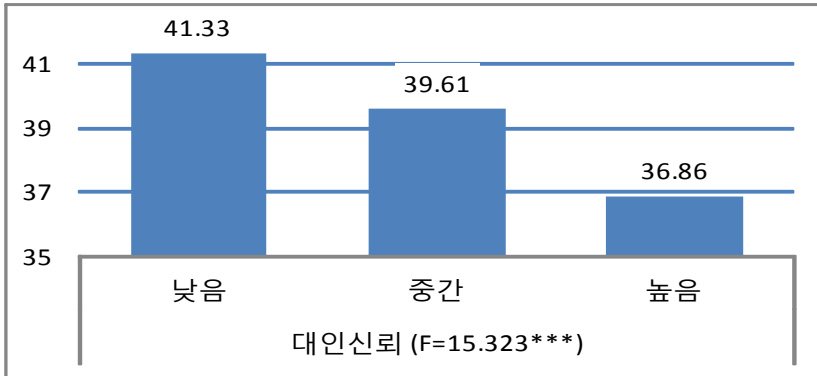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38.62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41.45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38.54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6.10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위험지수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덜 활발한 세대에 비해 한국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KSRI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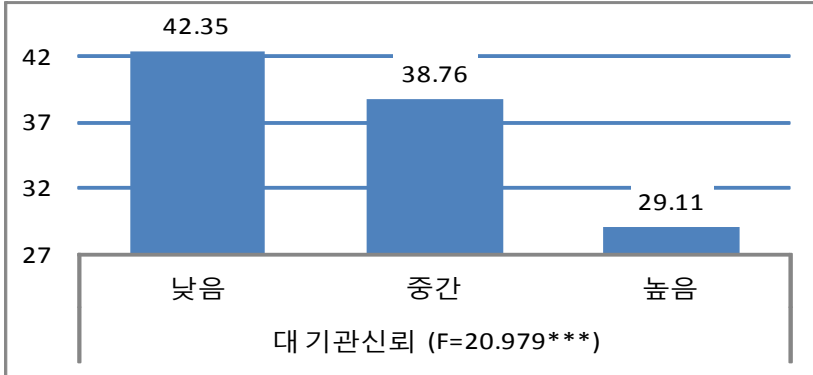
대인 신뢰수준에 따른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41.33점, 중간 39.61점, 높음 36.86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대인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KSRI -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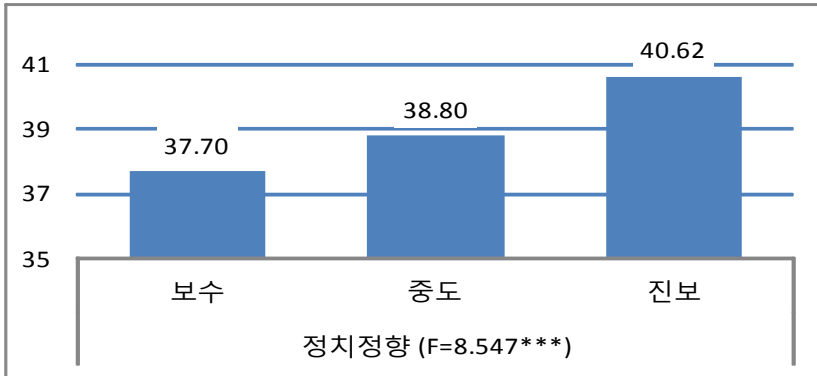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42.35점, 중간 38.76점, 높음 29.11점으로 나타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높은 반면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지수는 낮았다. 이는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위험지수와 같은 양상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덜 위험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반면,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더 위험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KSRI - 대 기관신뢰



정치정향별 위험지수는 보수 37.30점, 중도 38.80점, 진보 40.62점으로 보수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할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생각할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사회가 가진 안정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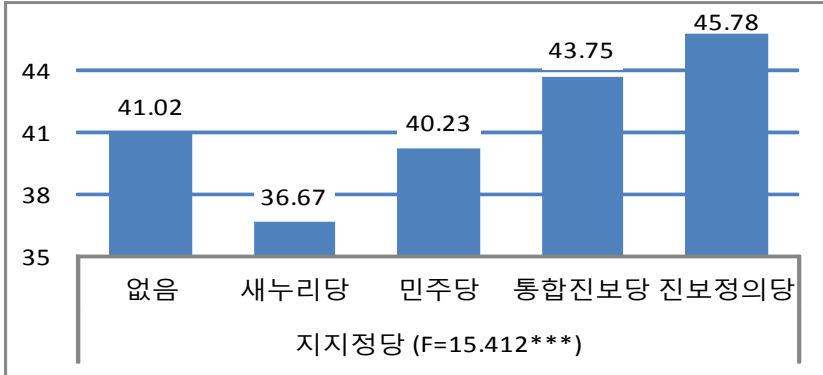
[그림 4-12] KSRI - 정치정향



지지하고 있는 정당별로 살펴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의 위험지수는 41.02점이었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6.67점, 민주당 40.23점, 통합진보당 43.75점, 진보정의당 45.78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경우의 위험지수가 더 높았으며,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높았다. 영역별로는 자연재해,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았고, 건강과 환경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았지만, 7개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위험지수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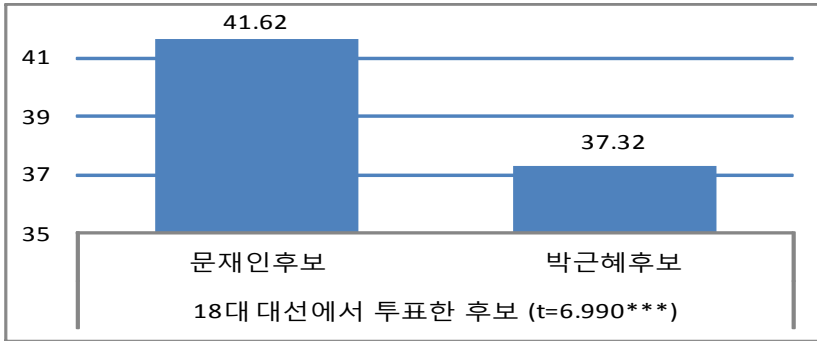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보다는 기존 사회가 가진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를 덜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사회가 가진 안정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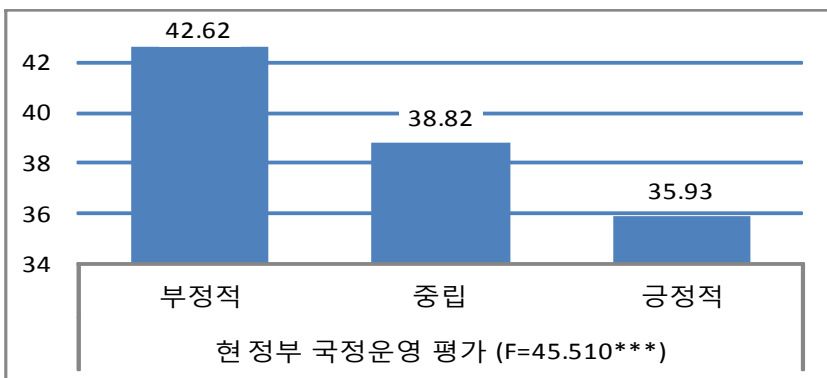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대통령 후보에 따른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41.62점, 박근혜 후보 37.32점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높았다. 즉,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의 후보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민주통합당의 후보였으므로 이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높았던 정치정향별 분석이나 보수적 성향의 새누리당에 비해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위험지수가 더 높았던 지지정당별 분석과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14]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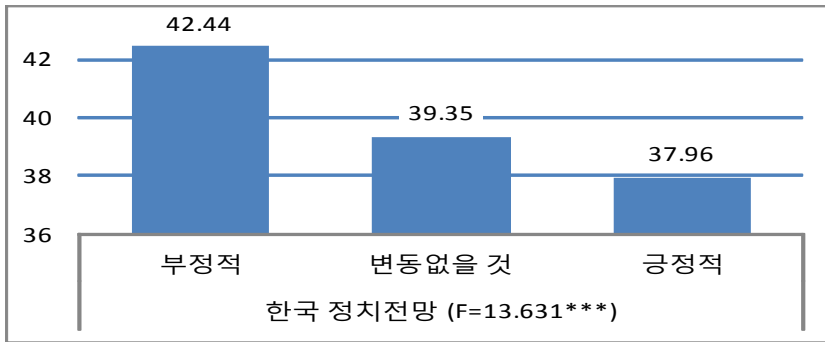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위험지수는 부정적 42.62점, 중립 38.82점, 긍정적 35.93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즉,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 위험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덜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한국의 정치전망과 관련한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부정적 42.44점, 변동이 없을 것 39.35점, 긍정적 37.96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즉,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덜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일수록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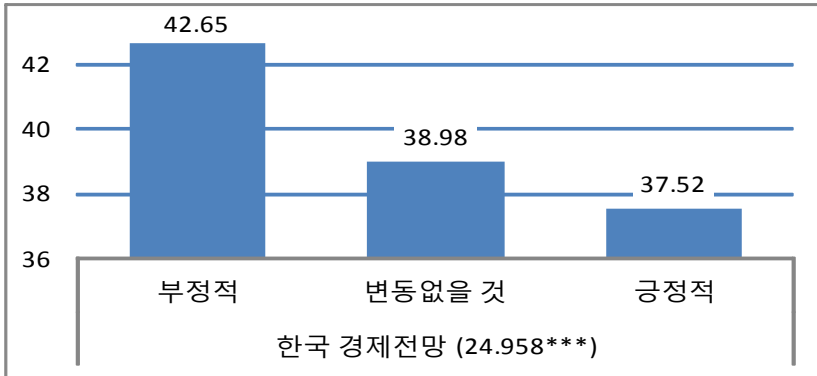
[그림 4-16]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과 관련한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부정적 42.65점, 변동이 없을 것 38.98점, 긍정적 37.52점으로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은 반면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한국의 정치전망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덜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일수록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한국위험지수 통계검정표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그림 4-17] KSRI - 한국 경제전망



2. 자연재해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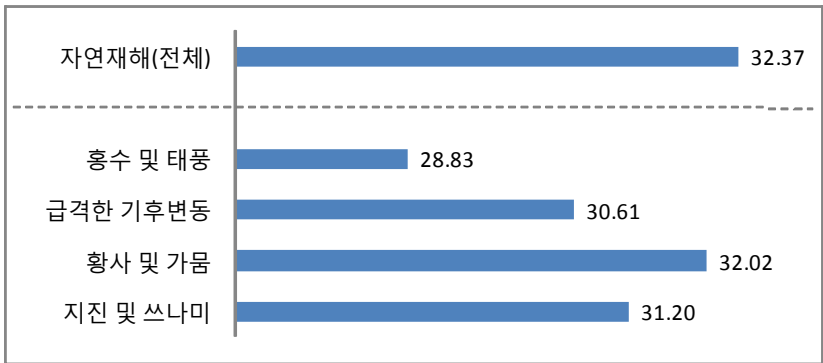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32.37점으로 다른 영역(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자연재해 관련 위험요소별로는 홍수 및 태풍 28.83점, 급격한 기후변동 30.61점, 황사 및 가뭄 32.02점, 지진 및 쓰나미 31.20점으로 나타나 황사 및 가뭄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았고 홍수 및 태풍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았다. 그런데, 이 결과는 실제 자연재해 발생빈도나 피해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2012년도 기상특보 발표현황(기상청, 2012: 155)에 의하면, 2012년에 주의보와 경보를 포함한 기상특보는 풍랑 27.5%, 호우 24.3%, 강풍 15.1%, 대설 12.8%였으며, 또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역시 주로 태풍, 호우, 대설 등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2: 34). 2012년에 한 해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 가뭄, 연이은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대설, 가뭄, 홍수 등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기상청, 2013: 189; 기상청·녹색성장위원회, 2013: 12-21).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2년의 경우 규모 3.0이상의 지진은 9회,有感지진은 4회로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고 그 피해규모 역시 홍수나 태풍 등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특히, 2012년의 황사관측일수(서울 기준)는 11월 1번뿐이었으며 황사에 의한 주의보나 경보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황사와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지진 역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지진 발생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기상청, 2013: 207)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황사는 대중매체를 통한 기상예보에 의해 매년 봄이면 반복적으로 다뤄졌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위험을 포함하여 그 위험성이 커지고 겨울에도 자주 발생하는 등 계절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대중매체의 노출빈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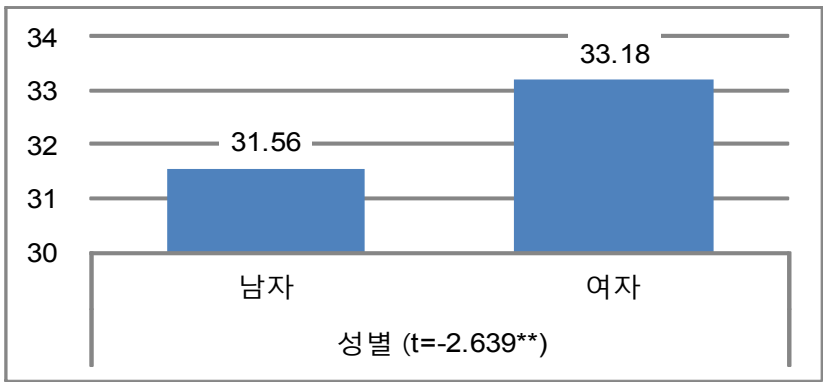
홍수 및 태풍의 높은 발생빈도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한국에서 꾸준히 발생된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과 대비가 가능해진 반면, 다른 자연재해 위험은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꾸준히 그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수나 태풍이 비교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황사문제는 광범위한 체감이 이루어졌고 미디어에 의해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8] 자연재해 관련 KSRI



성별로는 남자 31.56점, 여자 33.18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연재해와 관련한 위험을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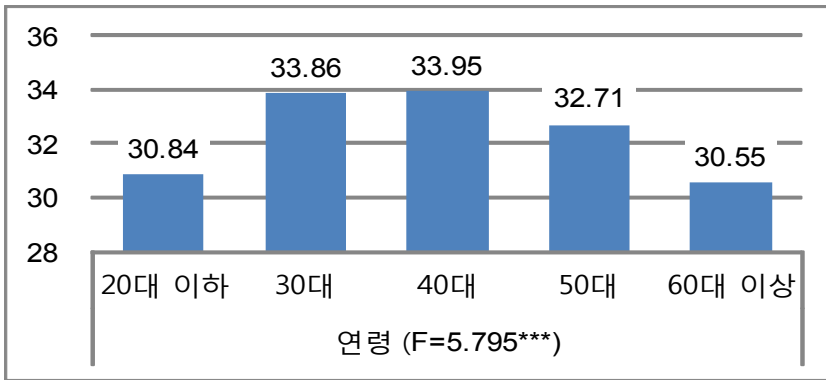
[그림 4-19] 자연재해 관련 KSRI- 성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0.84점, 30대 33.86점, 40대 33.95점, 50대 32.71점, 60대 이상 30.55점으로 자연재해관련 위험지수는 40대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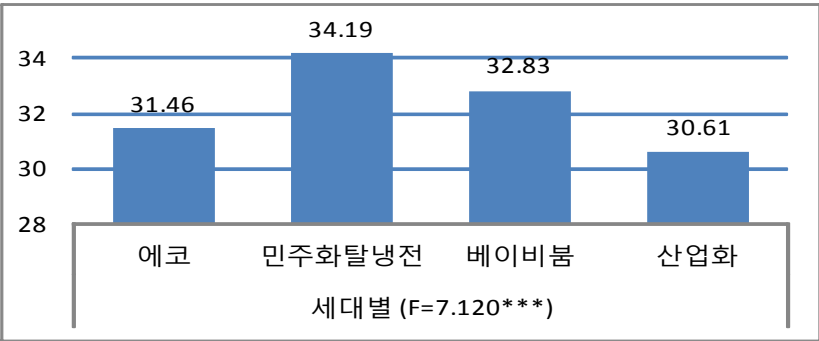
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30~40대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참여가 낮은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연령층은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수에 따른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포물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림 4-20] 자연재해 관련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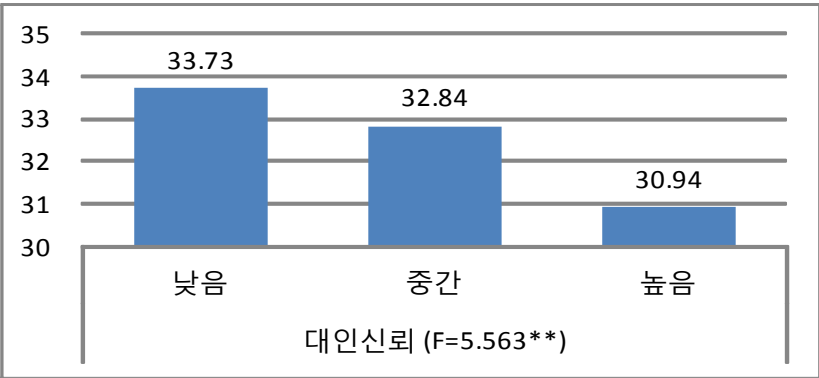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31.46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34.19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32.83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0.61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1] 자연재해 관련 KSRI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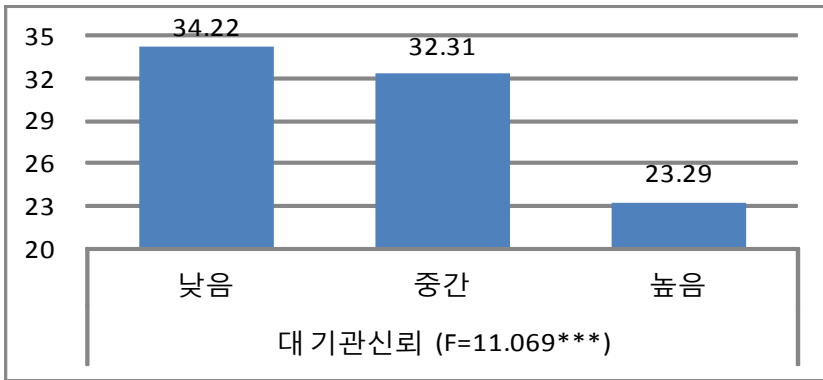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33.73점, 중간 32.84점, 높음 30.94점으로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자연재해 관련 KSRI -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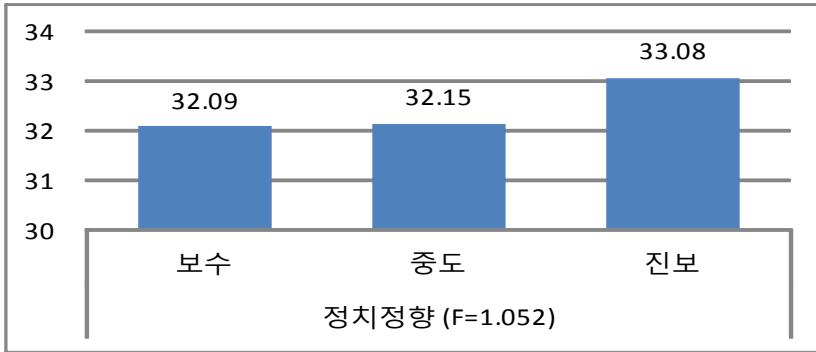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34.22점, 중간 32.31점, 높음 23.29점으로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인신뢰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3] 자연재해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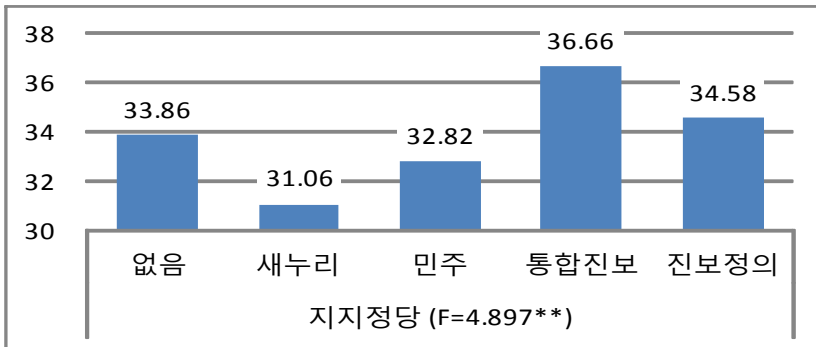
정치정향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2.09점, 중도 32.15점, 진보 33.08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자연재해 관련 KSRI - 정치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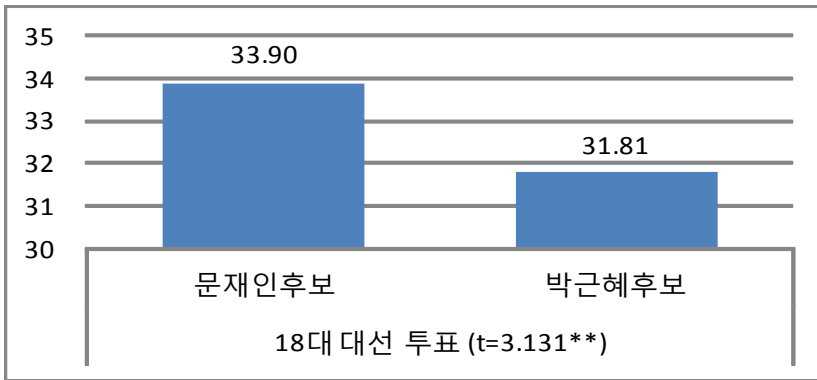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33.86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1.06점, 민주당 32.82점, 통합진보당 36.66점, 진보정의당 34.58점으로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5] 자연재해 관련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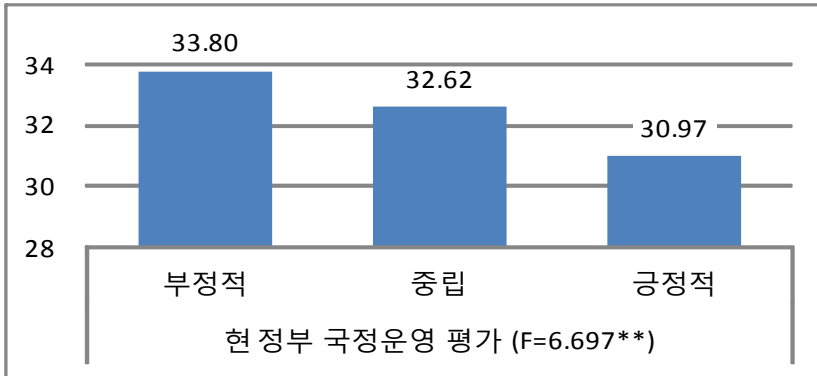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33.90점, 박근혜 후보 31.81점으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6] 자연재해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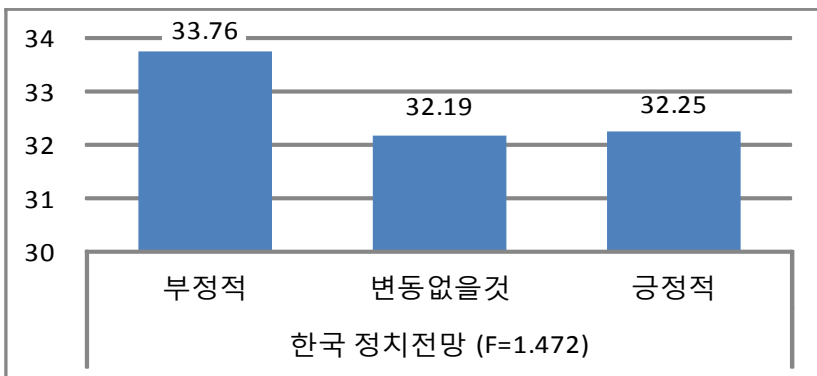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3.80점, 중립적인 경우 32.62점, 긍정적인 경우 30.97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7] 자연재해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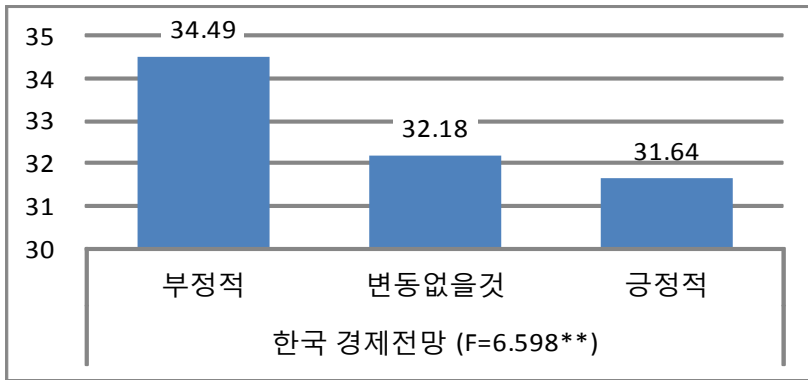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3.76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2.19점, 긍정적인 경우 32.25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8] 자연재해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4.49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2.18점, 긍정적인 경우 31.64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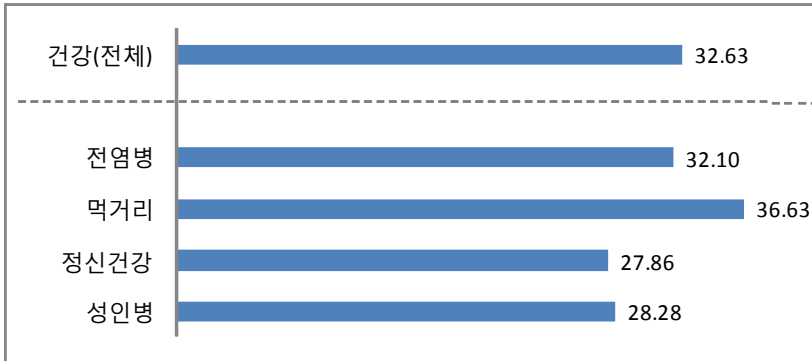
[그림 4-29] 자연재해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3. 건강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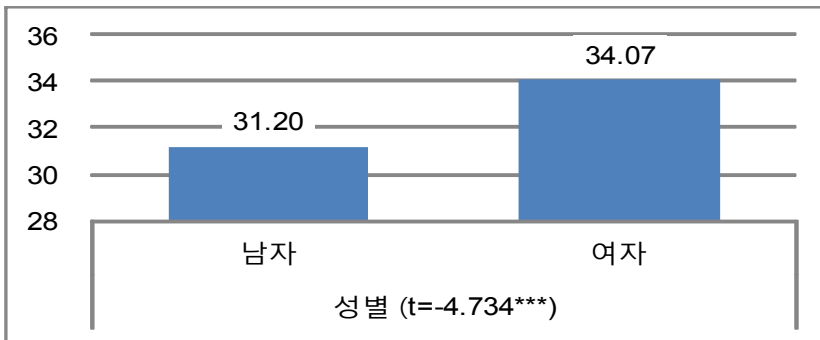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32.63점으로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32.37점)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다른 영역(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건강관련 위험요소별로는 전염병 32.10점, 먹거리 36.63점, 정신건강 27.86점, 성인병 28.28점으로 나타나 먹거리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건강 관련 KSRI



성별로는 남자 31.20점, 여자 34.07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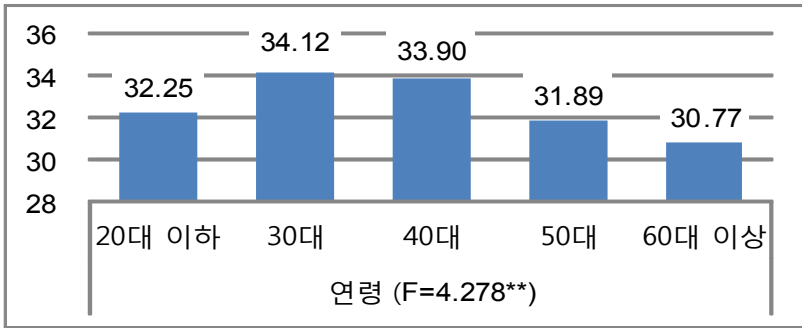
[그림 4-31] 건강 관련 KSRI - 성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2.25점, 30대 34.12점, 40대 33.90점, 50대 31.89점, 60대 이상 30.77점으로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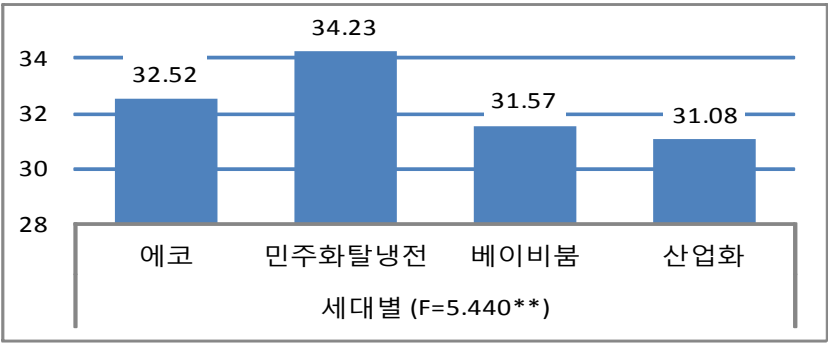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30~40대는 건강 관련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참여가 낮은 연령대 중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특히 더 낮게 나타나 위험지수에 따른 연령별 분포가 전체적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4-32] 건강 관련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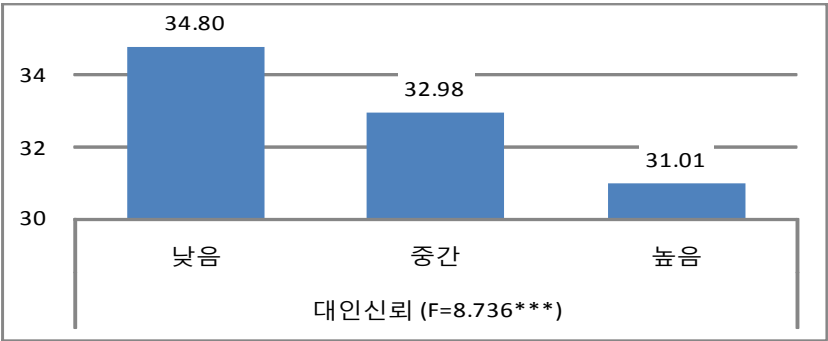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예코세대(34세 이하) 32.52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34.23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31.57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1.08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3] 건강 관련 KSRI - 세대별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34.80 점, 중간 32.98점, 높음 31.01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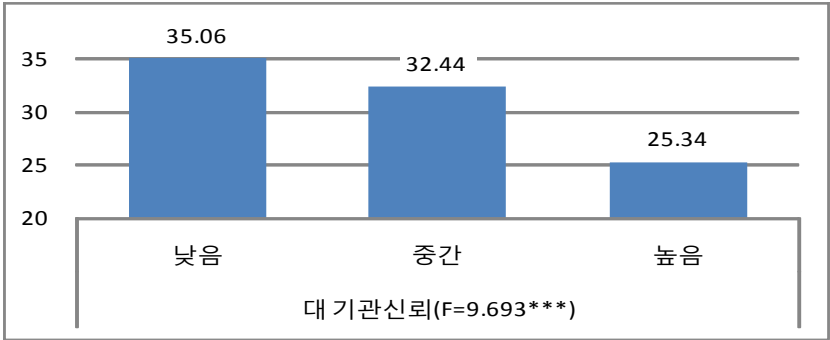
[그림 4-34] 건강 관련 KSRI - 대인신뢰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35.06 점, 중간 32.44점, 높음 25.34점으로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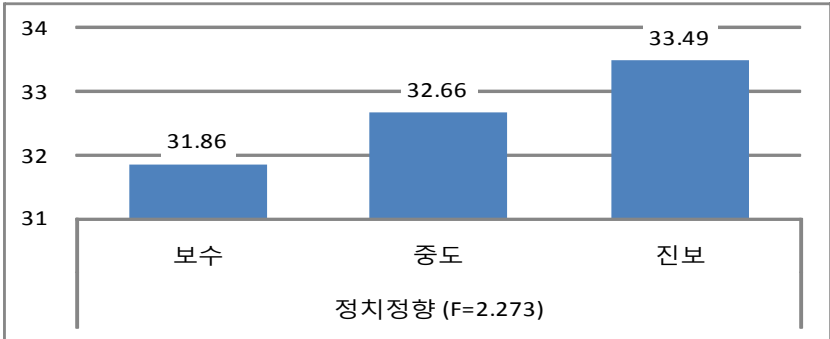
험지수가 낮고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인신뢰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4-35] 건강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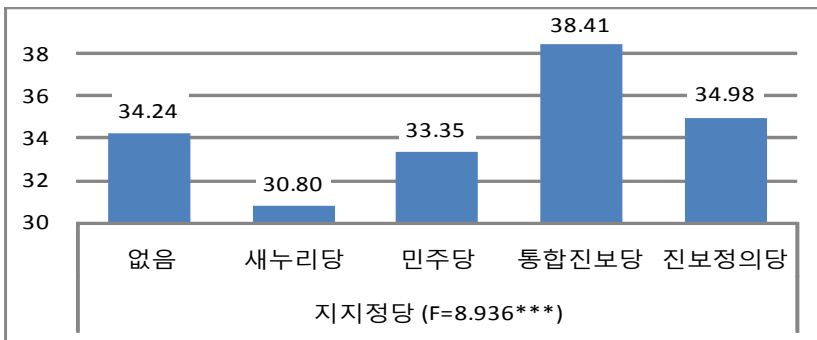
정치정향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1.86점, 중도 32.66점, 진보 33.49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건강 관련 KSRI - 정치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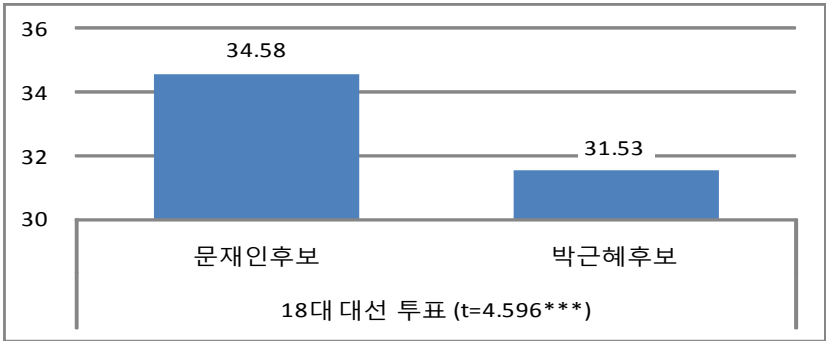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34.24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0.80점, 민주당 33.35점, 통합진보당 38.41점, 진보정의당 34.98점으로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7] 건강 관련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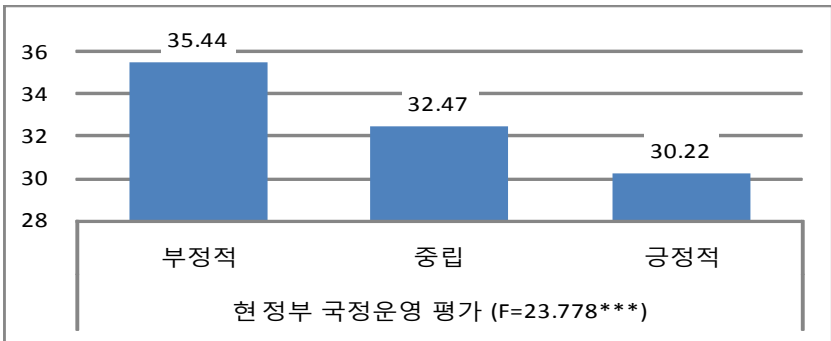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34.58점, 박근혜 후보 31.53점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8] 건강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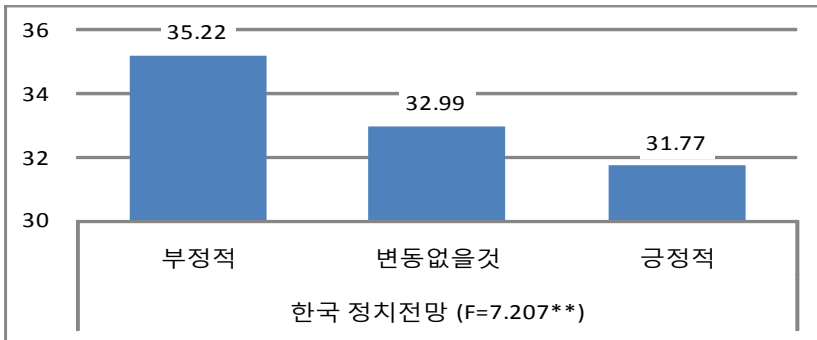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5.44점, 중립적인 경우 32.47점, 긍정적인 경우 30.22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9] 건강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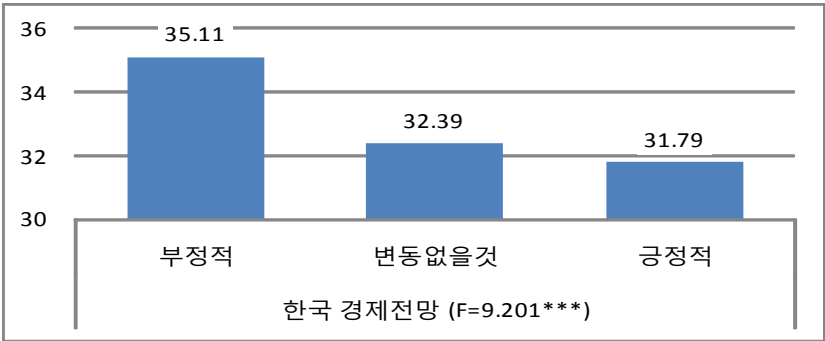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5.22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2.99점, 긍정적인 경우 31.77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0] 건강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5.11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2.39점, 긍정적인 경우 31.79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건강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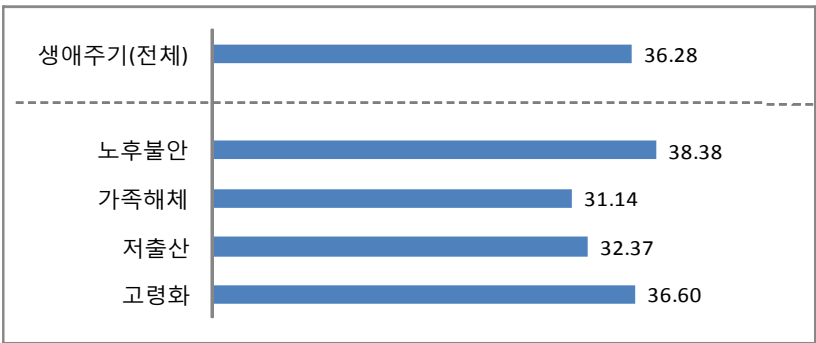
[그림 4-41] 건강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4. 생애주기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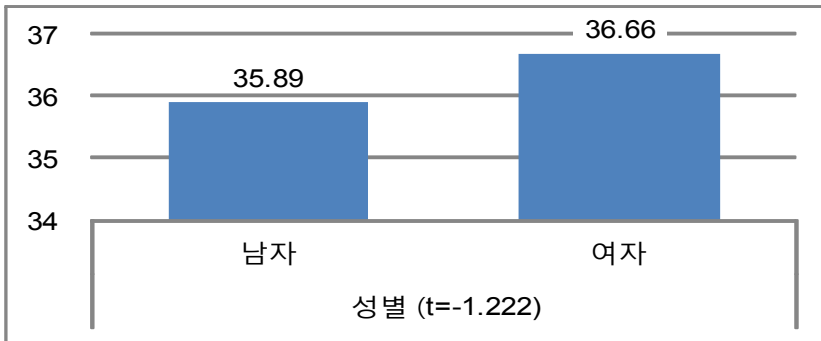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36.28점이며, 구체적인 생애주기관련 위험 요소별로는 노후불안 38.38점, 고령화 36.60점, 저출산 32.37점, 가족 해체 31.14점 순으로 나타나 노후불안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가족해체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2] 생애주기 관련 K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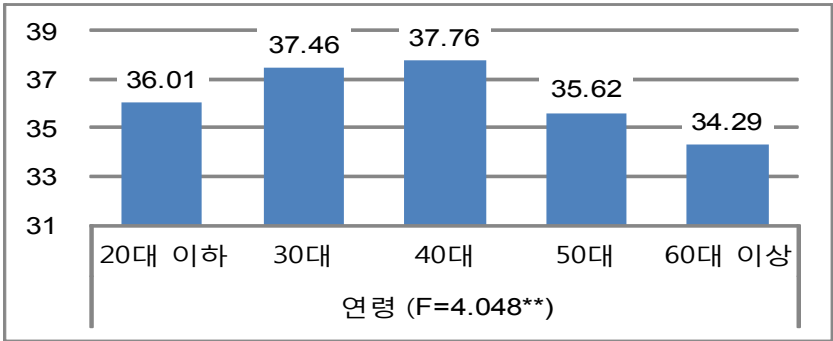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 35.89점, 여자 36.66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생애주기와 관련한 위험을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3] 생애주기 관련 KSRI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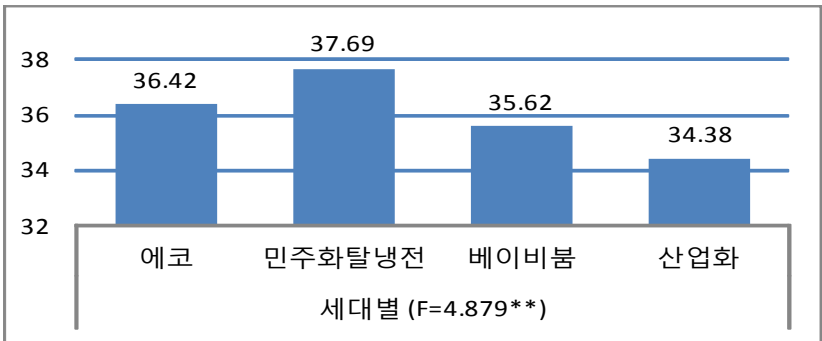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6.01점, 30대 37.46점, 40대 37.76점, 50대 35.62점, 60대 이상 34.2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수의 크기는 40대>30대>20대 이하>50대>60대 이상 순으로 4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30~40대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참여가 적은 연령대 중에서도 60대 이상 연령층이 특히 더 낮게 나타나 위험지수에 따른 연령별 분포가 전체적으로 포물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림 4-44] 생애주기 관련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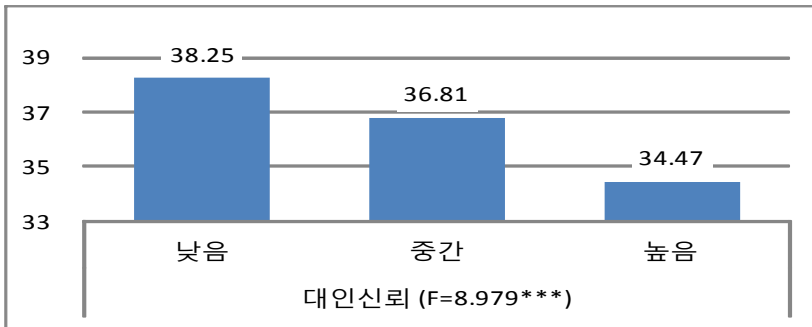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36.42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37.69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35.62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4.38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5] 생애주기 관련 KSRI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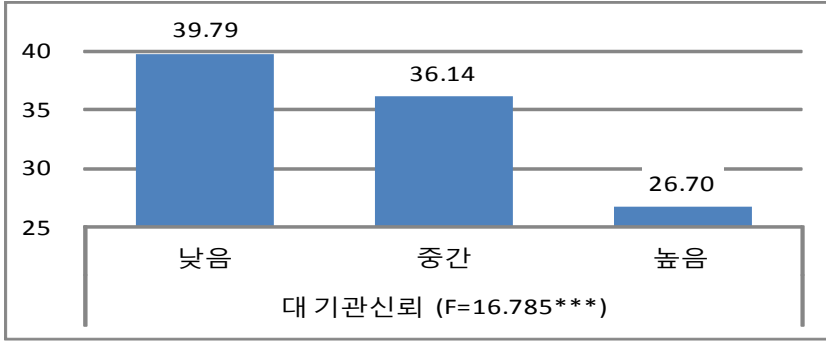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38.25점, 중간 36.81점, 높음 34.47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사회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6] 생애주기 관련 KSRI -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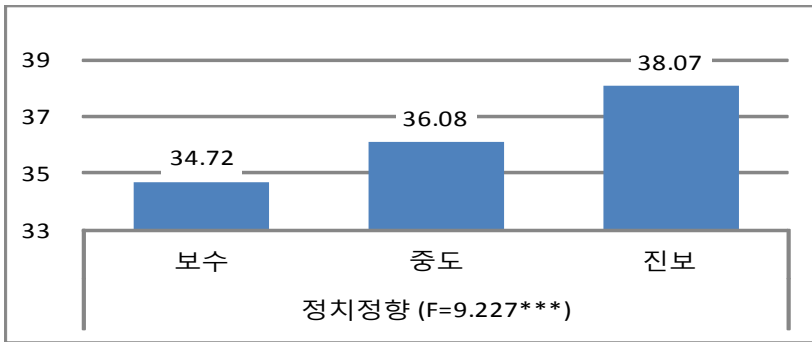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39.79점, 중간 36.14점, 높음 26.70점으로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사회지수가 높고,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7] 생애주기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정치정향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4.72점, 중도 36.08점, 진보 38.07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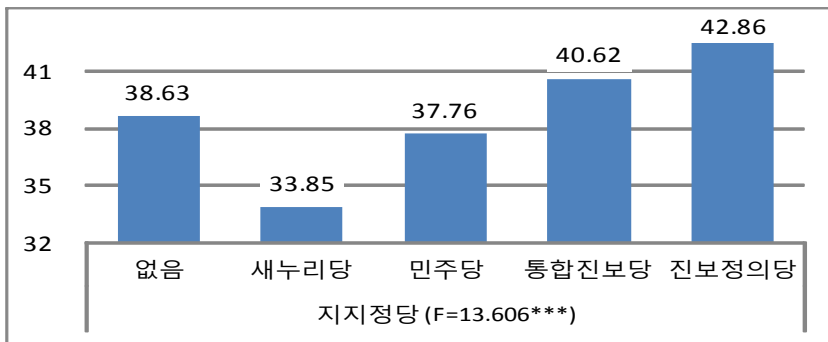
[그림 4-48] 생애주기 관련 KSRI - 정치정향



지지정당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38.63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3.85점, 민주당 37.76점, 통합진보당 40.62점, 진보정의당 42.86점으로 진보정의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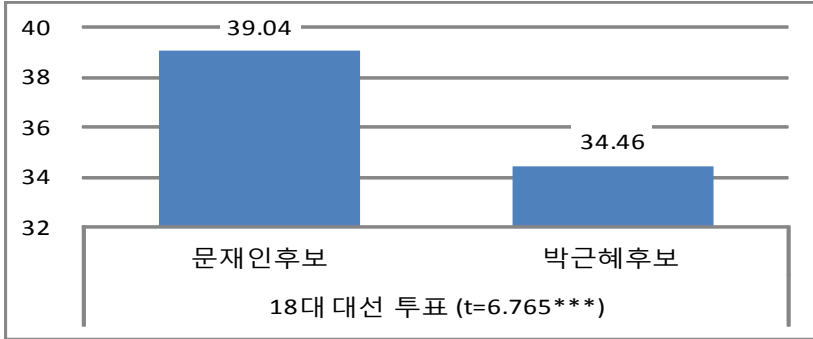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9] 생애주기 관련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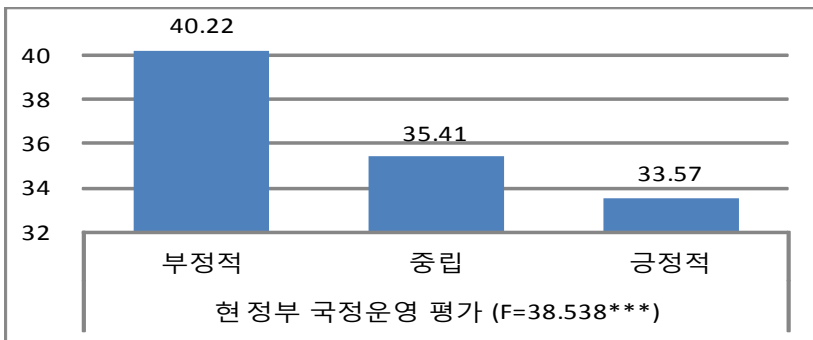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39.04점, 박근혜 후보 34.46점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0] 생애주기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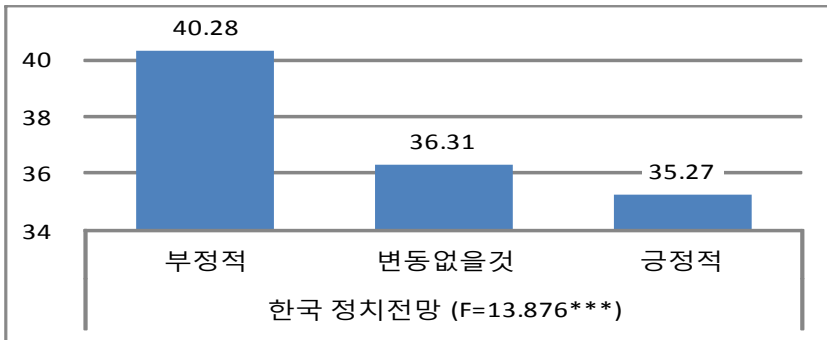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0.22점, 중립적인 경우 35.41점, 긍정적인 경우 33.57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1] 생애주기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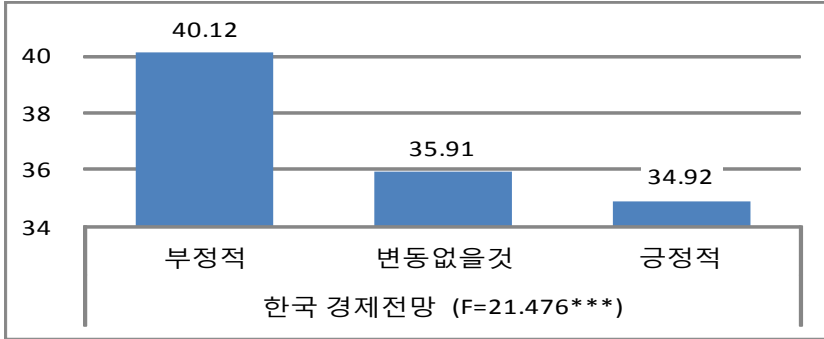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0.28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6.31점, 긍정적인 경우 35.27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긍정적인일 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2] 생애주기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0.12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5.91점, 긍정적인 경우 34.92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인일 수록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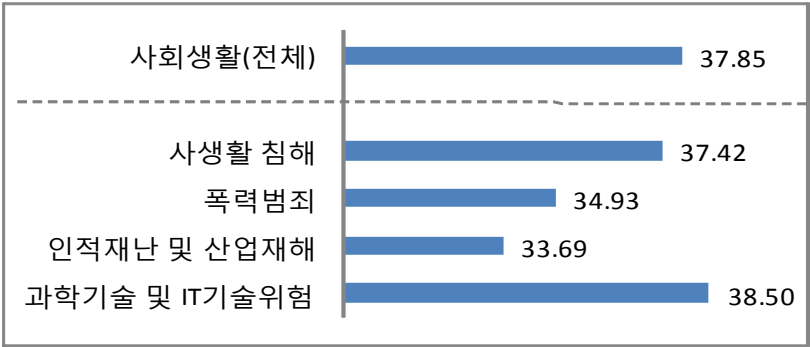
[그림 4-53] 생애주기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5. 사회생활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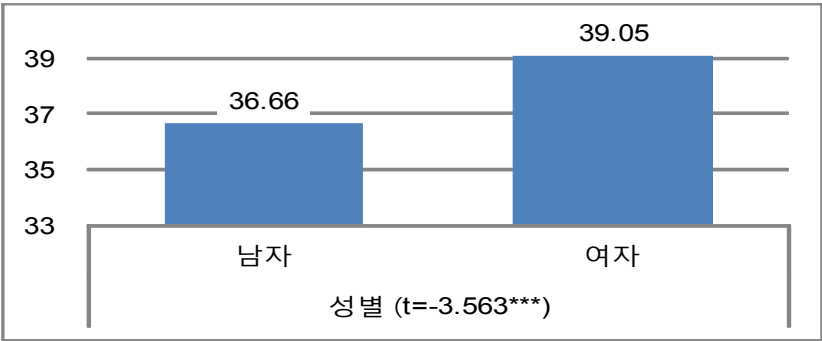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37.85점으로 구체적인 사회생활 관련 위험 요소별로는 사생활 침해 37.42점, 폭력범죄 34.93점, 인적 재난 및 산업 재해 33.69점,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 38.50점으로 나타났다. 지수 크기는 과학기술 및 IT기술위험 > 사생활 침해 > 폭력범죄 >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순이었으며,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았다.

[그림 4-54] 사회생활 관련 KSRI



성별로는 남자 36.66점, 여자 39.05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생활과 관련한 위험을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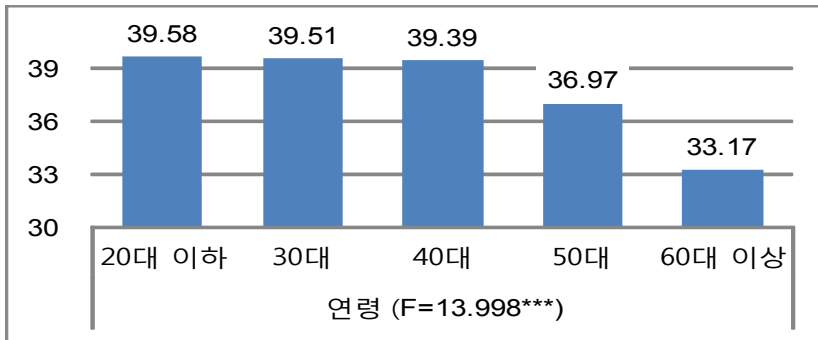
[그림 4-55] 사회생활 관련 KSRI - 성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9.58점, 30대 39.51점, 40대 39.39점, 50대 36.97점, 60대 이상 33.1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0~40대를 포함한 40대 이하 연령층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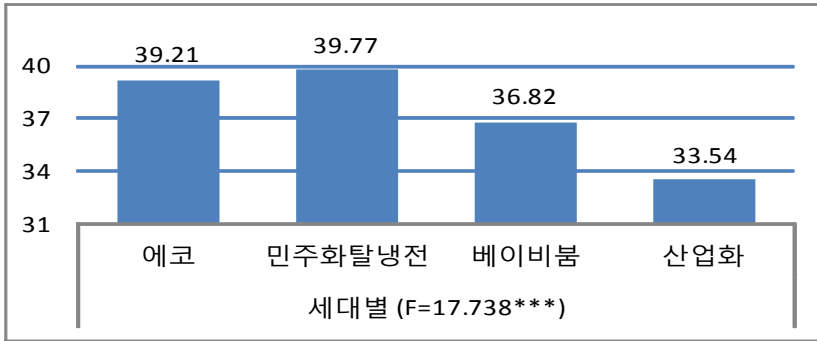
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나이일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위험지수가 전체적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다른 영역(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사회경험이 풍부한 연령대에 비해 사회경험이 적은 나이일수록 사회생활과 관련한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56] 사회생활 관련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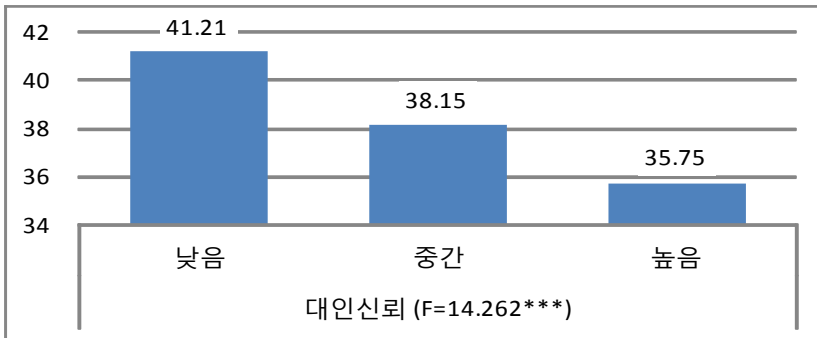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39.21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39.77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36.82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3.54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57] 사회생활 관련 KSRI - 세대별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41.21점, 중간 38.15점, 높음 35.75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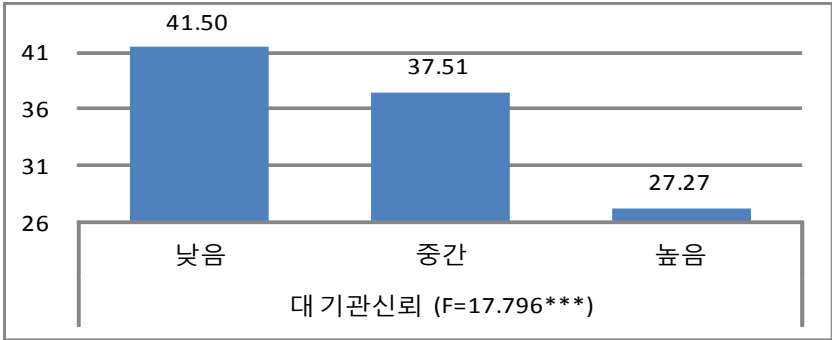
[그림 4-58] 사회생활 관련 KSRI - 대인신뢰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41.50점, 중간 37.51점, 높음 27.27점으로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사회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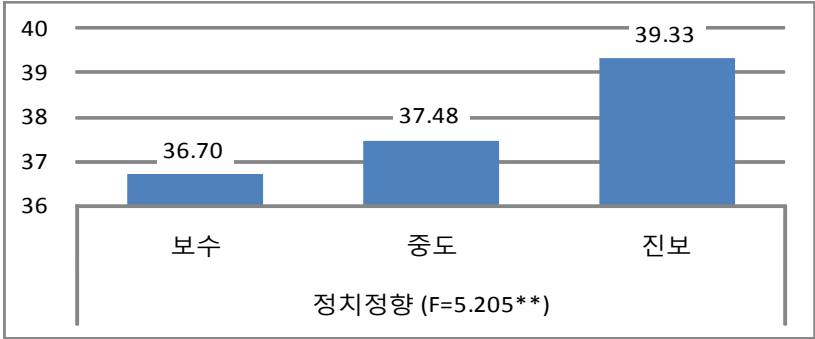
활 관련 위험사회지수가 높고,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인신뢰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4-59] 사회생활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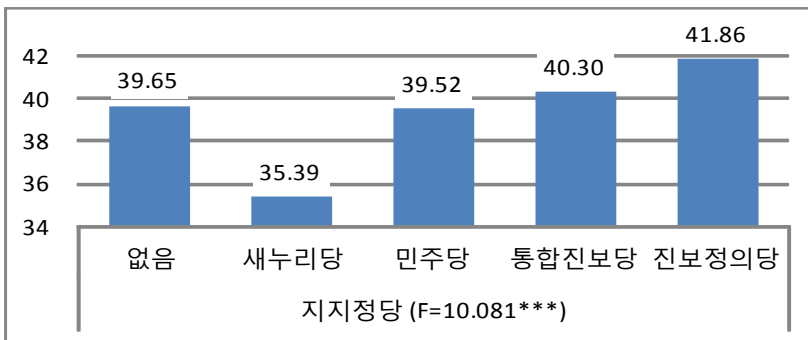
정치정향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6.70점, 중도 37.48점, 진보 39.33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0] 사회생활 관련 KSRI - 정치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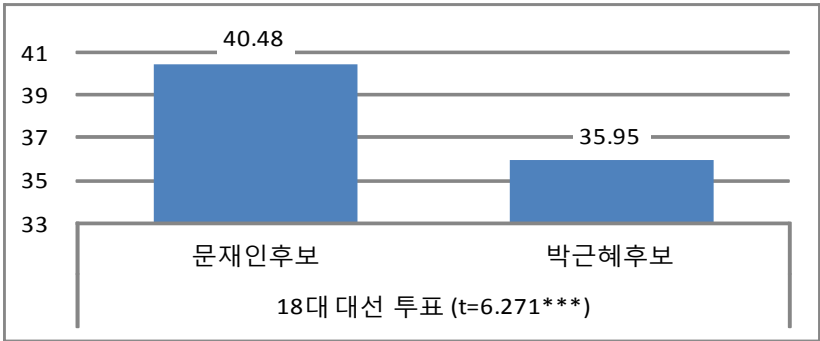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39.65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5.39점, 민주당 39.52점, 통합진보당 40.30점, 진보정의당 41.86점으로 진보정의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1] 사회생활 관련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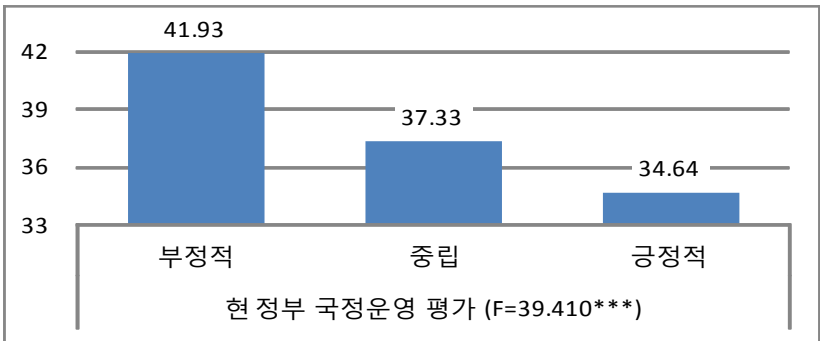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40.48점, 박근혜 후보 35.95점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2] 사회생활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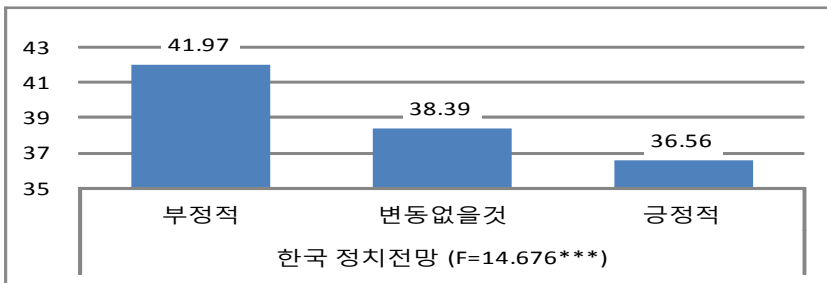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1.93점, 중립적인 경우 37.33점, 긍정적인 경우 34.64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3] 사회생활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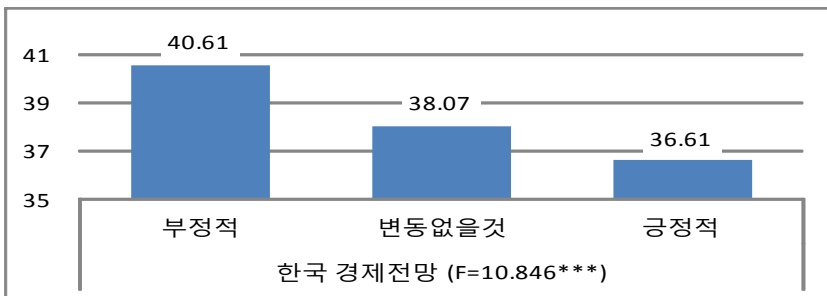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1.97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8.39점, 긍정적인 경우 36.56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긍정적인일 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4] 사회생활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0.61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8.07점, 긍정적인 경우 36.61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인일 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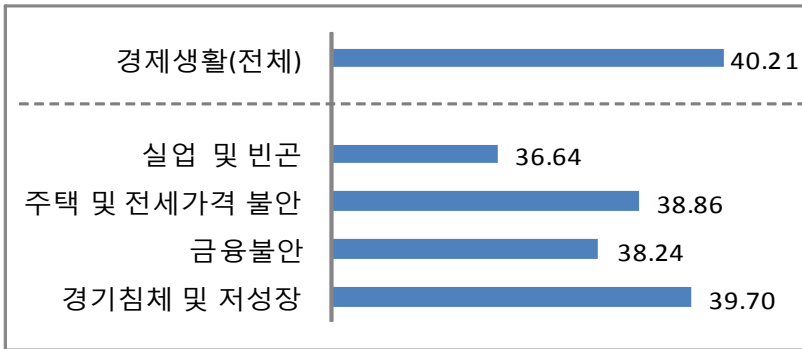
[그림 4-65] 사회생활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6. 경제생활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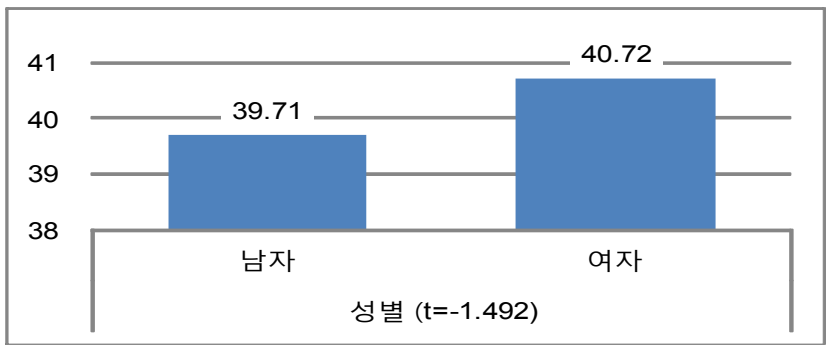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40.21점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제생활관련 위험요소별로는 경기침체 및 저성장 39.70점,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 38.86점, 금융불안 38.24점, 실업 및 빈곤 36.64점 순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 대한 위험사회지수가 가장 높고 실업 및 빈곤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았다.

[그림 4-66] 경제생활 관련 K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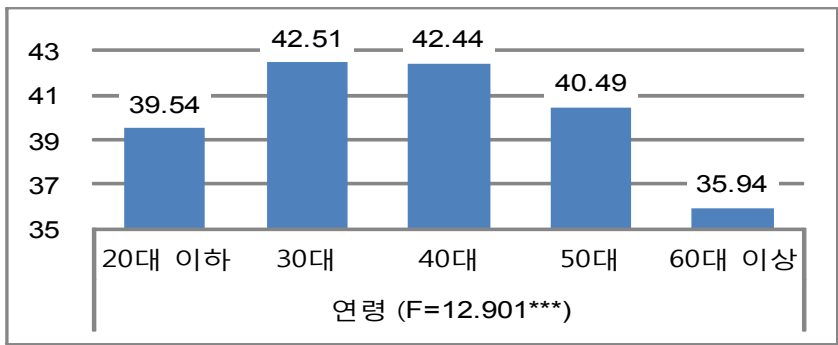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 39.71점, 여자 40.72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생활과 관련한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7] 경제생활 관련 KSRI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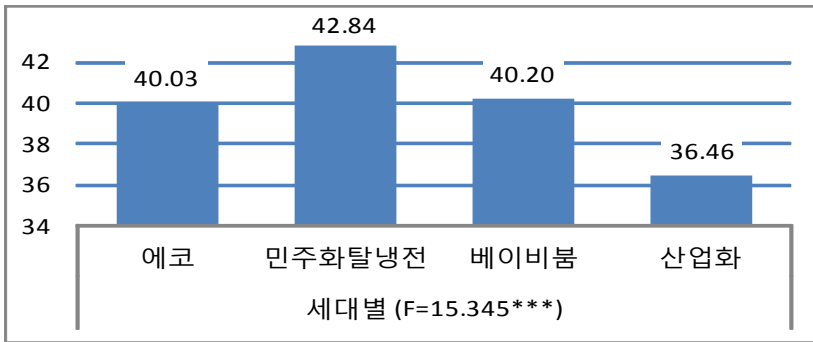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9.54점, 30대 42.51점, 40대 42.44점, 50대 40.49점, 60대 이상 35.94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수의 크기는 30대>40대>50대>20대 이하>60대 이상 순으로 40대와 근소한 차이지만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30~40대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참여가 적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포물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림 4-68] 경제생활 관련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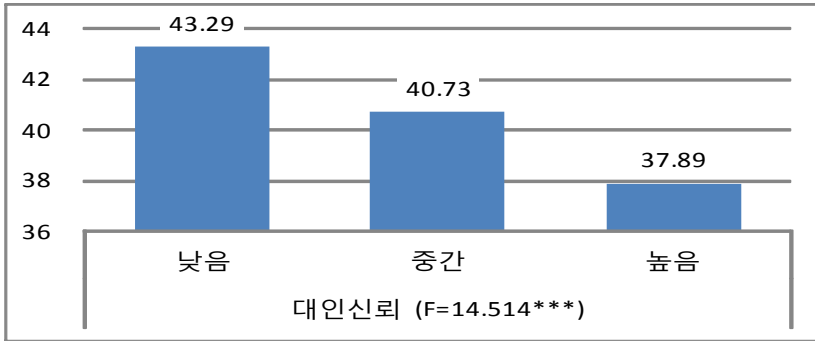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40.03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42.84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40.20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6.46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69] 경제생활 관련 KSRI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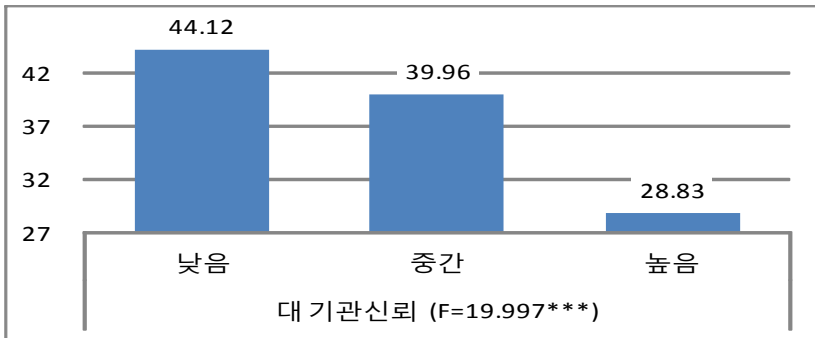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43.29점, 중간 40.73점, 높음 37.89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0] 경제생활 관련 KSRI - 대인신뢰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44.12점, 중간 39.96점, 높음 28.83점으로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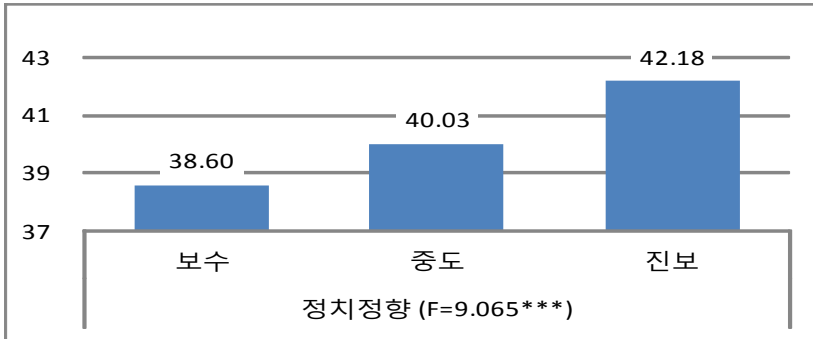
[그림 4-71] 경제생활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정치정향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8.60점, 중도 40.03점, 진보 42.18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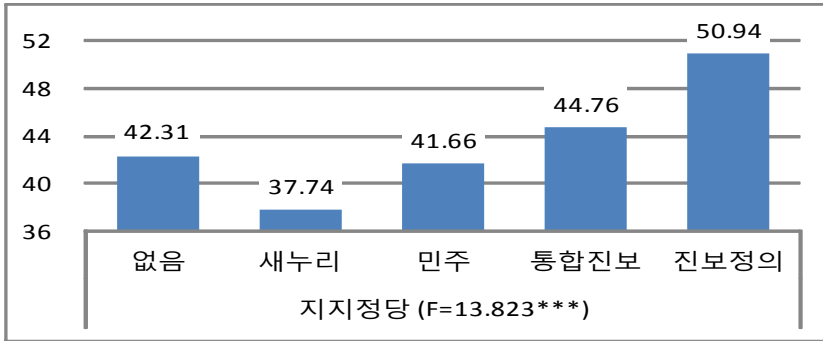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2] 경제생활 관련 KSRI - 정치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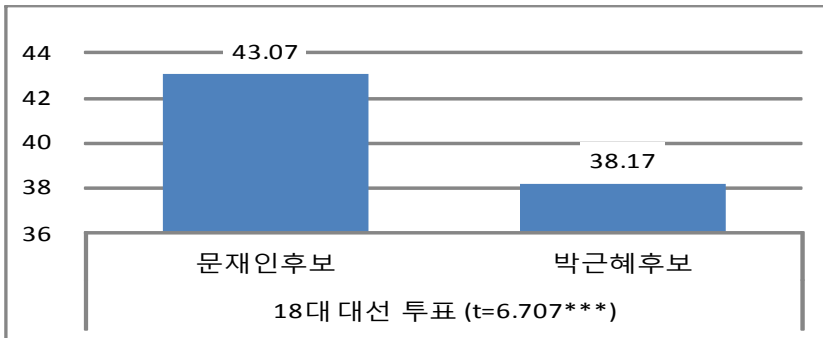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42.31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7.74점, 민주당 41.66점, 통합진보당 44.76점, 진보정의당 50.94점으로 진보정의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3] 경제생활 관련 KSRI - 지지정당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43.07점, 박근혜 후보 38.17점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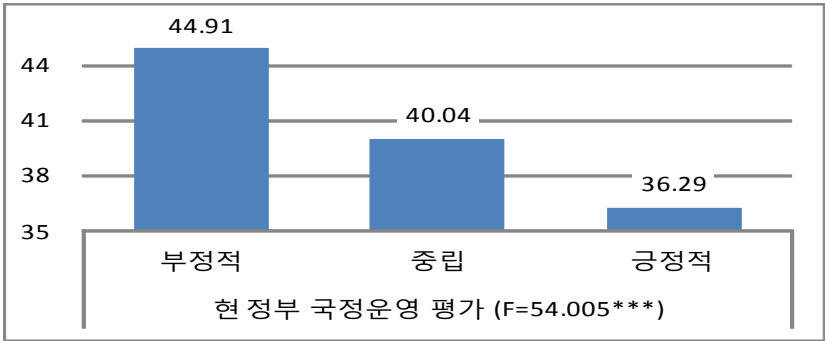
[그림 4-74] 경제생활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4.91점, 중립적인 경우 40.04점,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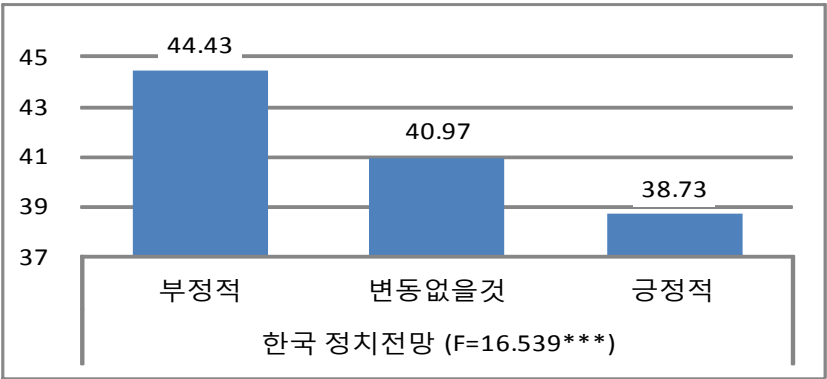
적인 경우 36.29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5] 경제생활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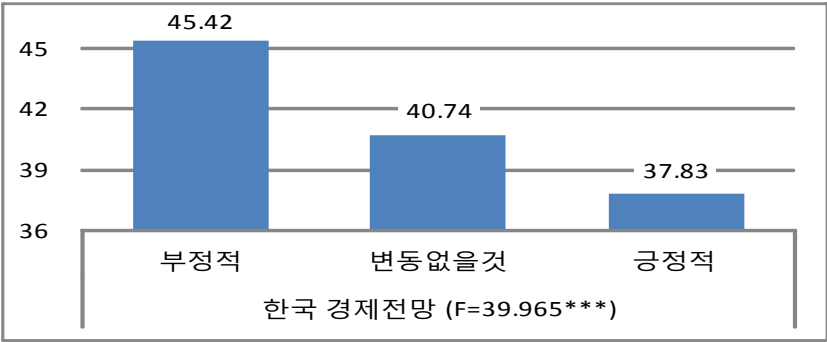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4.43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40.97점, 긍정적인 경우 38.73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6] 경제생활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5.42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40.74점, 긍정적인 경우 37.83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 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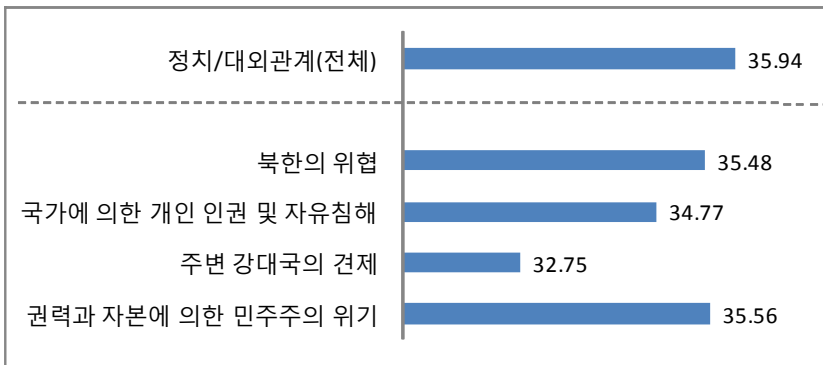
[그림 4-77] 경제생활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7.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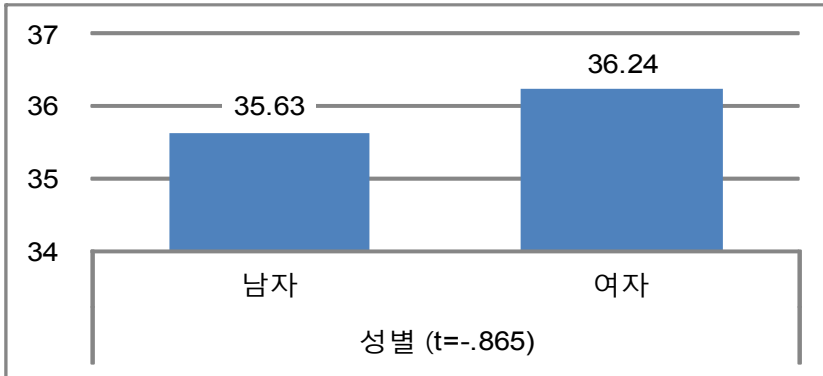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35.94점으로 자연재해와 건강 관련 위험지수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지만 경제생활, 환경, 사회생활, 생애주기 관련 위험사회지수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요소별로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35.56 점, 북한의 위협 35.48점,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34.77 점, 주변 강대국의 견제 32.75점 순으로 나타나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가장 높고, 주변 강대국의 견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78]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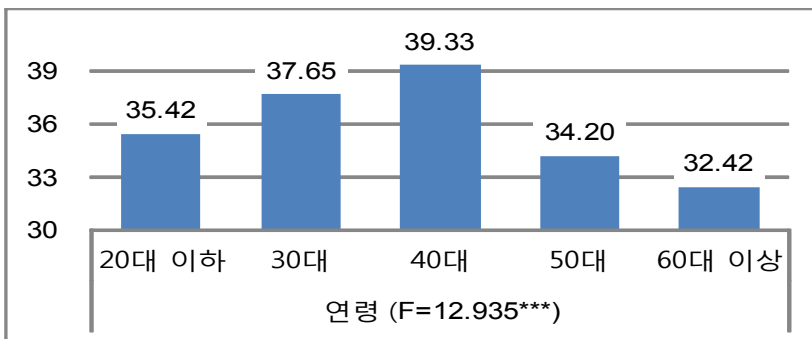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 35.63점, 여자 36.24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9]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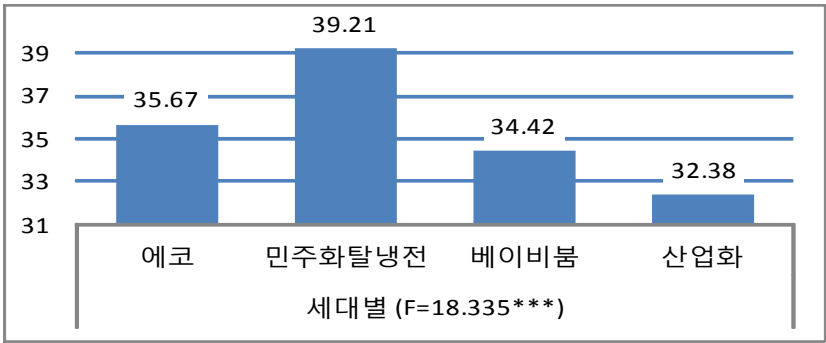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5.42점, 30대 37.65점, 40대 39.33점, 50대 34.20점, 60대 이상 32.42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수의 크기는 40대>30대>20대 이하>50대>60대 이상 순으로 4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50대 이상 연령 층에 비해 비교적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30~40대를 포함한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0]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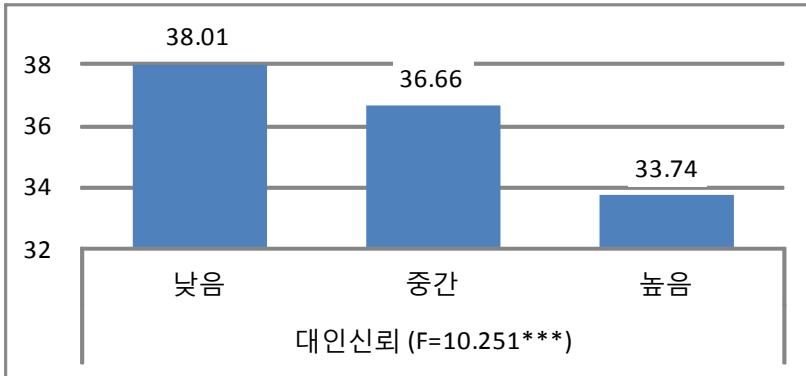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본 정치 및 대외경제 관련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35.67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39.21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34.42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2.38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81]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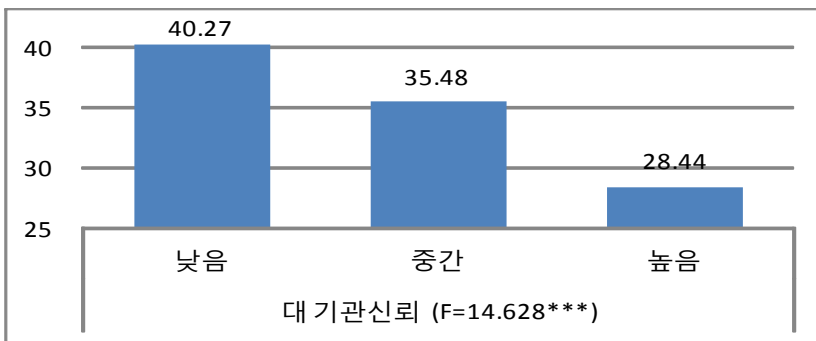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38.01점, 중간 36.66점, 높음 33.74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2]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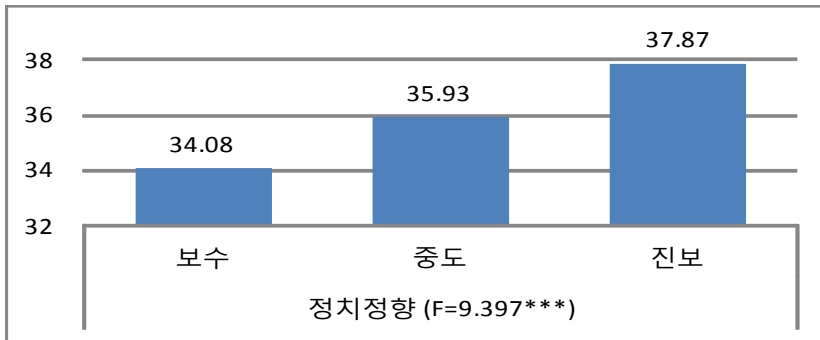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40.27점, 중간 35.48점, 높음 28.44점으로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3]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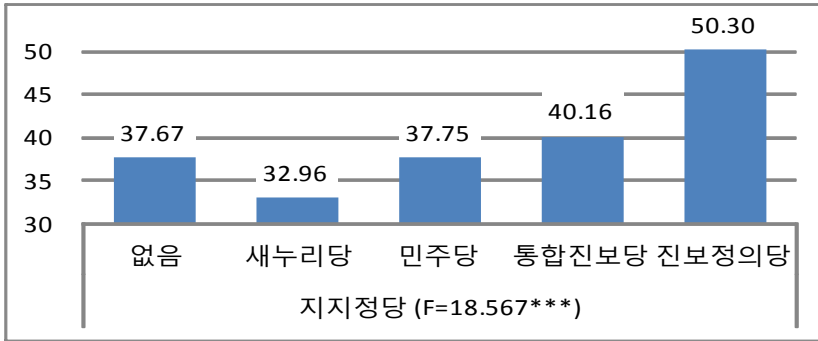
정치정향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4.08점, 중도 35.93점, 진보 37.87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4]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정치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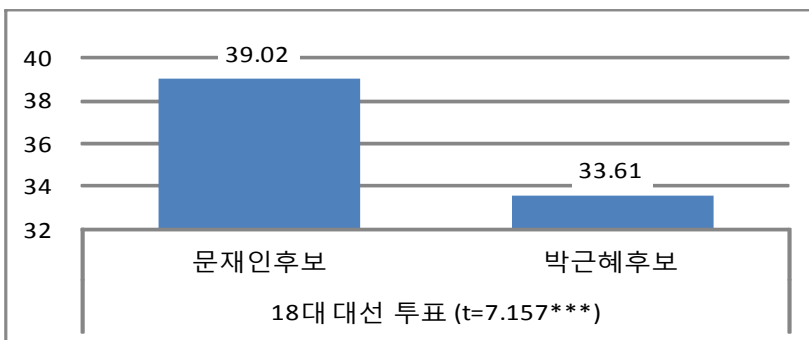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37.67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2.96점, 민주당 37.75점, 통합진보당 40.16점, 진보정의당 50.30점으로 진보정의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5]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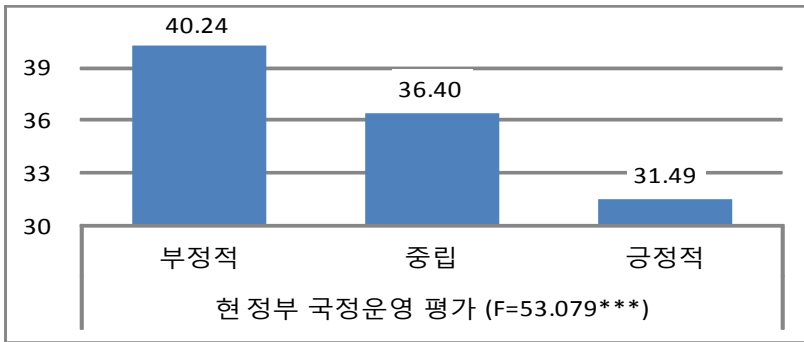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39.02점, 박근혜 33.61점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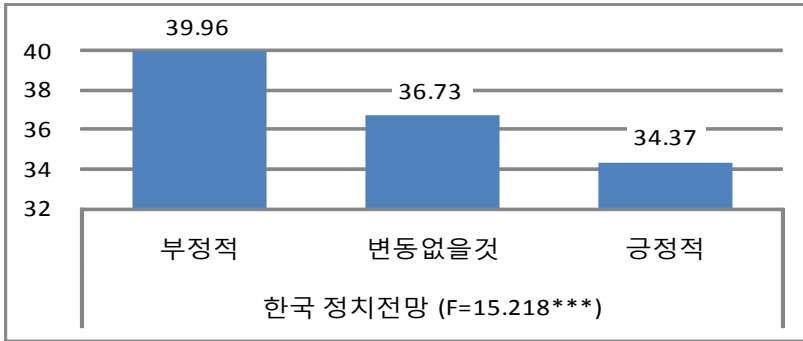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0.24점, 중립적인 경우 36.40점, 긍정적인 경우 31.49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7]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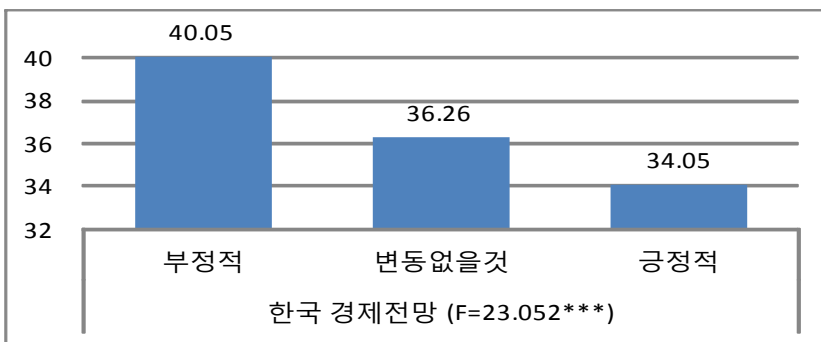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39.96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6.73점, 긍정적인 경우 34.37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8]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0.05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6.26점, 긍정적인 경우 34.05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인일수록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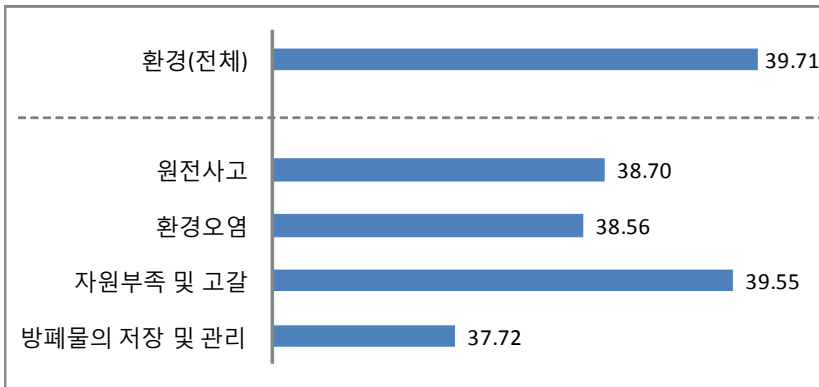
[그림 4-89]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8. 환경 관련 사회적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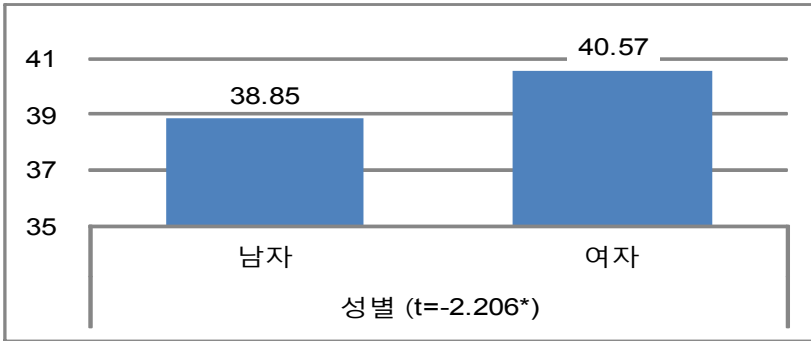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39.71점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의 영역 중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40.21점)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그 밖의 다른 영역(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환경관련 위험요소별 위험지수는 자원부족 및 고갈 39.55점, 원전사고 38.70점, 환경오염 38.56점,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37.72점 순으로 자원부족 및 고갈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0] 환경 관련 K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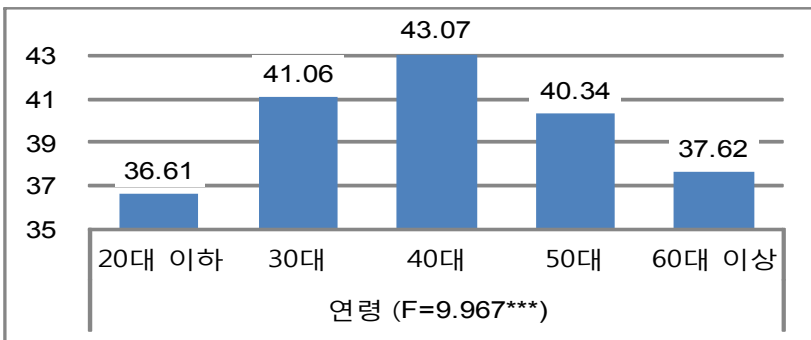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 38.85점, 여자 40.57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환경과 관련한 위험을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1] 환경 관련 KSRI - 성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6.61점, 30대 41.06점, 40대 43.07점, 50대 40.34점, 60대 이상 37.62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수의 크기는 40대>30대>50대>60대 이상>20대 이하 순으로 40대가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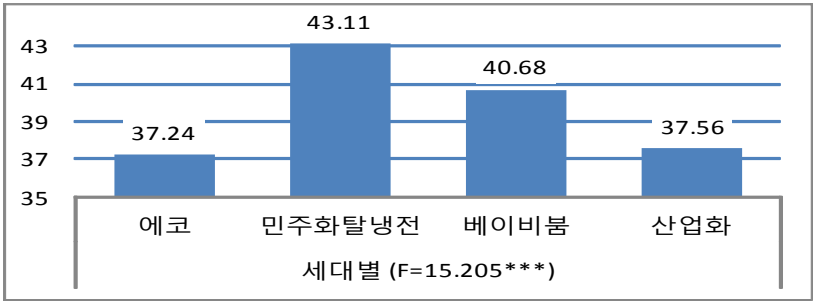
[그림 4-92] 환경 관련 KSRI - 연령별



세대별로 살펴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에코세대(34세 이하) 37.24점, 민주화/탈냉전세대(35-49세) 43.11점, 베이비붐세대(50-58세) 4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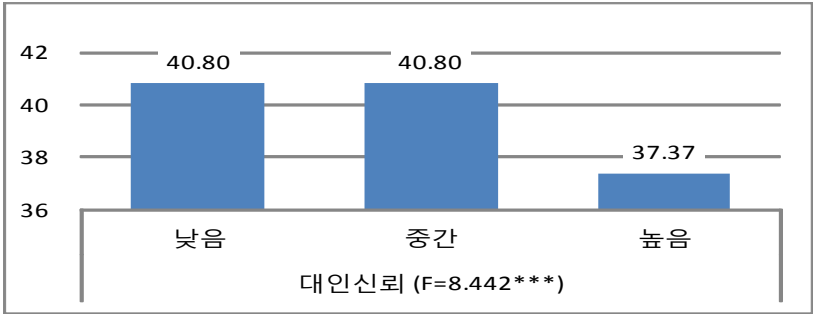
점, 산업화세대(59세 이상) 37.56점으로 35세-49세에 해당하는 민주화/탈냉전세대가 가장 위험지수가 높고, 5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93] 환경 관련 KSRI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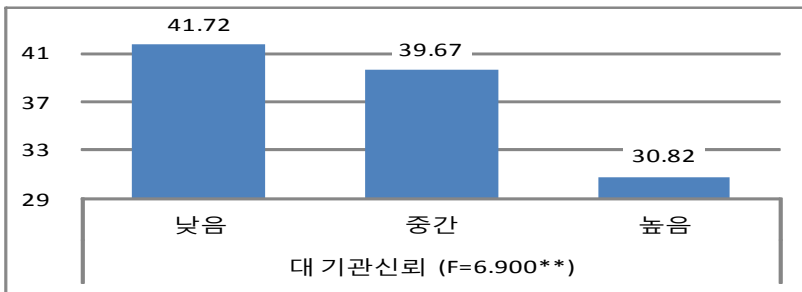
대인신뢰 수준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대인신뢰가 낮음 40.80 점, 중간 40.80점, 높음 37.37점으로 대인신뢰가 낮거나 중간인 경우에 비해 대인신뢰가 높을 때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특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4] 환경 관련 KSRI -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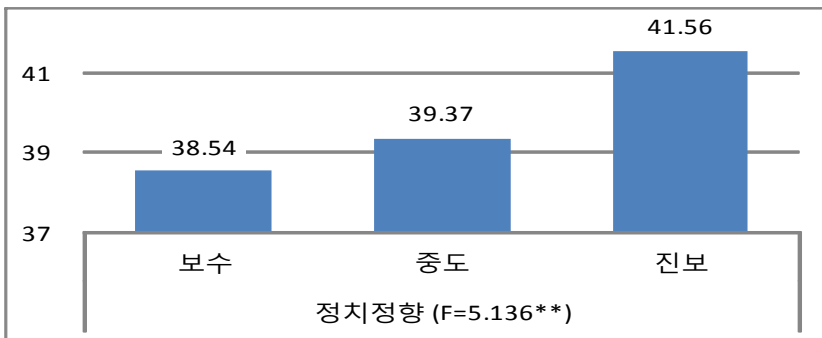
기관신뢰 수준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기관신뢰가 낮음 41.72점, 중간 39.67점, 높음 30.82점으로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높고,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5] 환경 관련 KSRI - 대 기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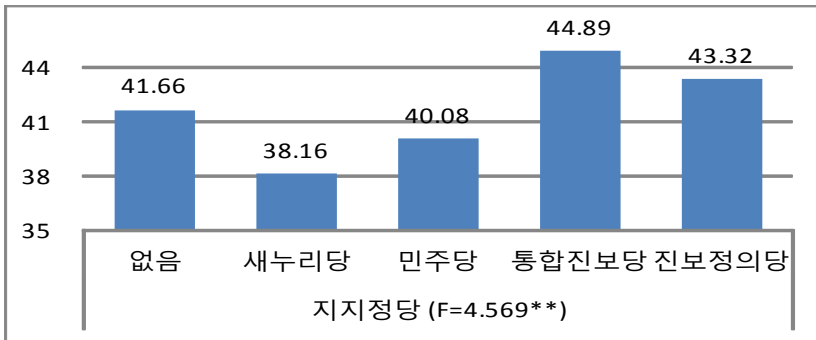
정치정향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정치적 보수 38.54점, 중도 39.37점, 진보 41.56점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6] 환경 관련 KSRI - 정치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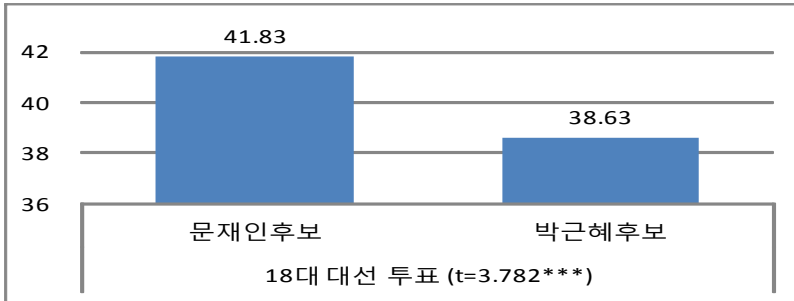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41.66점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8.16점, 민주당 40.08점, 통합진보당 44.89점, 진보정의당 43.32점으로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은 양상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7] 환경 관련 KSRI -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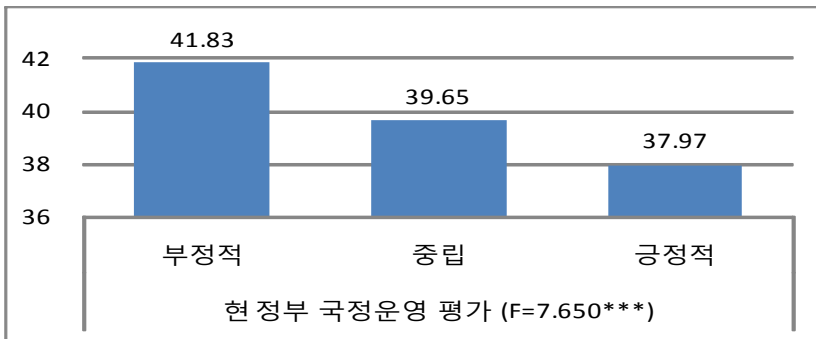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 41.83점, 박근혜 후보 38.63점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에 비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8] 환경 관련 KSRI - 18대 대선 투표 후보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1.83점, 중립적인 경우 39.65점, 긍정적인 경우 37.97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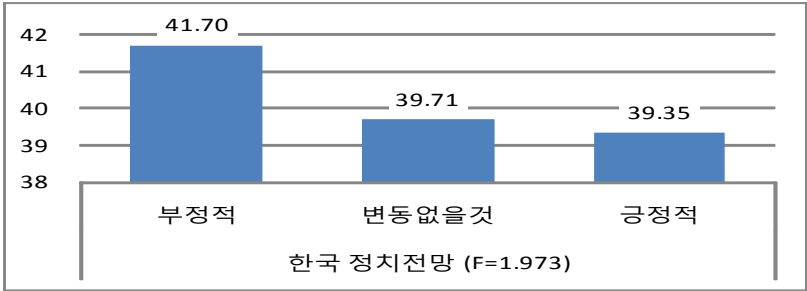
[그림 4-99] 환경 관련 KSRI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한국의 정치전망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1.70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 3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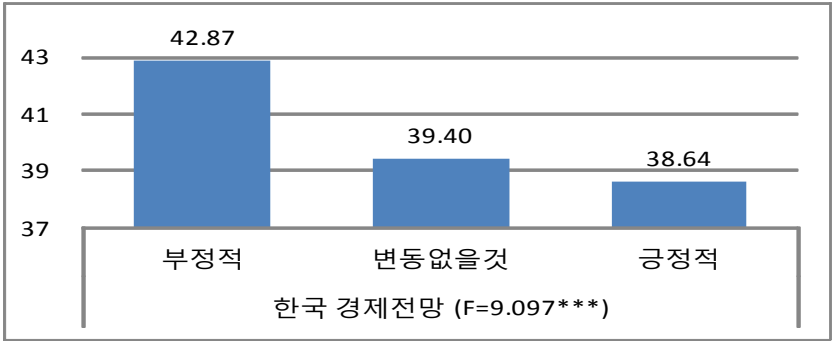
점, 긍정적인 경우 39.35점으로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0] 환경 관련 KSRI - 한국 정치전망



한국의 경제전망에 따른 환경 관련 위험지수는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42.87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 39.40점, 긍정적인 경우 38.64점으로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환경 관련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1] 환경 관련 KSRI - 한국 경제전망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평균차이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표 4-1 참조), 자연재해 등 7개 영역별 위험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위험지수는 남성보다 여성의 위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연재해 및 건강, 생애주기 영역은 40대의 위험지수가 높고, 60대 이상은 위험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생활의 영역은 20대 이하는 위험지수가 높고, 60대 이상은 위험지수가 낮았으며, 경제생활 영역은 30대의 위험지수가 높고 60대 이상의 위험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영역에서는 40대의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 60대 이상, 환경 영역에서는 20대 이하가 위험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영역,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민주/탈냉전>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순으로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생활과 환경 영역은 민주/탈냉전>베이비붐세대>에코 세대> 산업화 세대 순으로 조금 다른 순으로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른 위험 지수는 7개 모든 영역에서 신뢰가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7개 모든 영역에서 정치정향에 따른 위험지수는 보수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진보일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7개 영역별로 지지하고 있는 정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위험지수가 낮았다. 또한 7개 모든 영역에서 18대 대선에서 투표한 대통령 후보에 따른 위험지수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보다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에 국정운영에 평가에 따른 위험지수는 7개 영역 모두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한국의 정치전망과 경제 전망과 관련한 위험지수도 7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제3절 위험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표 4-2, 4-3 참조) 자연재해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지수가 낮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위계주의적 성향,宿命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건강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지수가 낮았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이 위험지수가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계층 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宿命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으며, 과학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생애주기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노무직에 비해 사무직이 위험지수가 낮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宿命주의적, 평등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지수가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한국 정치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대인 및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宿命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

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사무직이 위험지수가 낮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으며,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宿命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정치 및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위험지수가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으며,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宿命주의적, 평등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지수가 낮았다. 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직에 위험지수가 높았다.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다. 대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았으며 위계주의적,宿命주의적 성향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표 4-4〉에는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영역간 상관관계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2〉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1

구분	전체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r	b	r	b	r	b	r	b
남성	-.084**	-1.911***	-.073**	-1.895**	-.131***	-2.847***	-.034	-1.017
연령	-.069**	-.020**	-.018	-.010	-.038	-.013	-.052*	-.016
학력	.023	.001	.023	.008	.053*	.020	-.017	-.017
소득	.043	.000	.020	.000	.013	.000	.007	.000
관리전문직	.019	1.457	.018	1.041	-.009	.615	.012	1.007
준전문직	.057*	1.764	.050*	1.523	.065*	2.038*	.052*	1.676
사무직	-.052*	-2.817*	-.019	-1.337	-.031	-1.914	-.048*	-2.895*
판매서비스직	-.012	-.499	-.025	-1.008	-.014	-.798	-.039	-1.428
정치정향	.049*	.109	-.005	-.212	.018	-.093	.068**	.335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224***	-1.075***	-.113***	-.655**	-.152***	-.800***	-.193***	-.948***
한국 정치전망	-.166***	-.246	-.066**	.186	-.123***	-.282	-.151***	-.329
한국 경제전망	-.198***	-.848**	-.106***	-.549	-.123***	-.355	-.178***	-.900**
계층 귀속감	.014	.042	.035	.071	.041	.075*	.008	.035
건강상태	-.095***	-.806**	-.085**	-.758**	-.118***	-1.004***	-.054*	-.445
대인신뢰	-.144***	-.858	-.085**	-.439	-.120***	-.904	-.117***	-.644
대 기관신뢰	-.241***	-5.621***	-.162***	-5.054***	-.178***	-4.167***	-.208***	-5.318***
개인주의적 성향	.040	.404	.071**	.622	-.005	-.072	.029	.388
위계주의적 성향	.069**	1.182**	.120***	2.009***	.005	.465	.048*	.789
숙명주의적 성향	.183***	1.468***	.119***	.979*	.164***	1.633***	.151***	1.276**
평등주의적 성향	.108***	.889**	.056*	.238	.041	.199	.120***	1.307***
과학주의적 성향	-.057*	-.485	-.021	-.095	-.102***	-1.282*	-.043	-.510
상수	49.693***		36.152***		48.958***		44.652***	
R ²	.174		.086		.119		.126	
Adj R ²	.160		.071		.104		.111	

* p<.05, ** p<.01, *** p<.001

〈표 4-3〉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2

구분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대외관계		환경	
	r	b	r	b	r	b	r	b
남성	-.099***	-2.706***	-.042	-1.230	-.024	-.627	-.061*	-1.932*
연령	-.104***	-.029**	-.074**	-.022*	-.075**	-.026**	-.023	-.016
학력	.035	.008	-.013	-.018	.033	.006	.017	.002
소득	.059*	.000	.027	.000	.056*	.000	.049*	.000
관리전문직	-.033	.047	-.010	.331	.051*	2.787**	.069**	3.832**
준전문직	.012	.226	.021	.507	.034	1.695	.087**	4.087**
사무직	-.044	-2.765	-.070**	-4.880**	-.033	-1.966	-.045	-2.649
판매서비스직	.044	1.051	-.008	-.679	-.008	.104	-.021	-.464
정치정향	.057*	.182	.054*	.170	.060*	.262	.020	.075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191***	-.977***	-.254***	-1.433***	-.230***	-1.432***	-.108***	-.676*
한국 정치전망	-.166***	-.710*	-.186***	-.250	-.160***	-.355	-.074**	.130
한국 경제전망	-.136***	-.337	-.243***	-1.514***	-.190***	-.947**	-.124***	-.930*
계층 귀속감	.028	.054	-.013	.015	-.011	.006	-.002	.016
건강상태	-.011	-.108	-.065*	-.662*	-.099***	-1.202***	-.091**	-.994**
대인신뢰	-.143***	-1.307*	-.143***	-.979	-.109***	-.627	-.085**	-.629
대 기관신뢰	-.221***	-5.706***	-.227***	-5.564***	-.201***	-5.186***	-.147***	-5.503***
개인주의적 성향	-.002	.001	.029	.517	.001	-.101	.095***	1.330
위계주의적 성향	.025	.991	.020	.339	.031	.780	.131***	2.433***
숙명주의적 성향	.136***	1.293**	.186***	1.798***	.138***	1.170**	.121***	1.269*
평등주의적 성향	.051*	.508	.115***	1.240**	.126***	1.547***	.086**	.763
과학주의적 성향	-.055*	-.498	-.012	.360	-.046	-.367	-.041	-.726
상수	51.587***		52.203***		49.103***		40.670***	
R ²	.126		.175		.143		.103	
Adj R ²	.111		.161		.128		.088	

* p<.05, ** p<.01, *** p<.001

〈표 4-4〉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회귀분석 결과요약

	KRSI (전체)	자연 재해	건강	생애 주기	사회 생활	경제 생활	정치 및 대외 관계	환경
성별	남(—)				남(—)			
연령	(—)				(—)			
직업	사무직 (—)		준전 문직 (+)	사무 직 (—)		사무 직 (—)		준전 문직 (+)
대인신뢰					(—)			
기관신뢰	(—)							
현정부국정 운영 평가	(—)							
한국정치 전망						(—)		
한국경제 전망	(—)			(—)		(—)	(—)	(—)
건강상태	(—)					(—)		
개인성향	위계/ 숙명/ 평등(+)	위계/ 숙명 (+)	숙명 (+) 과학 (-)	숙명/ 평등 (+)	숙명 (+)	숙명/ 평등 (+)	숙명/ 평등 (+)	위계/ 숙명 (+)

〈표 4-5〉 영역간 상관관계

	자연 재해	건강	생애 주기	사회 생활	경제 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자연재해	1						
건강	.575***	1					
생애주기	.500***	.608***	1				
사회생활	.472***	.661***	.581***	1			
경제생활	.524***	.543***	.524***	.576***	1		
정치 및 대외관계	.661***	.533***	.518***	.534***	.632***	1	
환경	.491***	.562***	.693***	.635***	.600***	.539***	1

*** p<.00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38.99점으로 위험이 높은 사회는 아니지만 40점대에 육박하고 있어 관리와 대비는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사회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높고, 그 밖에 위험은 환경, 사회생활, 생애주기, 정치 및 대외관계, 건강, 자연재해 순으로 나타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과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황사 및 가뭄, 건강관련 위험은 먹거리, 생애주기에 대한 위험은 노후불안, 사회생활 관련 위험은 과학기술 및 IT기술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은 경기침체 및 성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환경관련 위험은 자원부족 및 고갈에 대한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위험지수는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지수가 더 높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연령대(30~40대)의 위험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30~40대가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와 기관신뢰에 대해서는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다른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 신뢰수준이 사회에 대한 위험 인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회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위험사회 수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정향 및 지지정당과 18대 대선에 투표한 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보수, 새누리당 지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진보, 새누리당 이외의 정당 지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정치전망과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전망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향상 또는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노력이야말로 사회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위험사회 인식수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한국사회의 4차원별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결과, 취약성 차원(Vulnerability)에서는 평균 4.89로 다른 차원에 비해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고, 영역별로는 생애주기, 경제생활, 환경의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및 대외관계, 자연재해, 건강에 대한 위험인식은 낮은 편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가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30-40대와 대졸자가 위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반면 20대의 저연령과 60대 이상 및 초졸자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다. 성별 및 소득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노출정도(Exposure)는 전체 평균 4.80으로 취약성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4차원 중 2번째로 위험인식이 높은 차원이다. 노출차원에서도 경제생활과 생애주기영역에서의 위험인식이 가장 높았고, 반면 정치 및 대외관계 및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 차원에서도 30-40대와 대졸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Hazard)에 있어서는 평균이 4.04로 별로 높은 편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생활과 환경, 건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과 달리 여자, 저학력자(중졸)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영역(자연재해, 건강 등)이 있었다. 다른 차원과 달리 건강영역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는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차원으로 평균이 중간이하인 3.32에 불과하였다. 특히 경제생활, 생애주기,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낮아,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영역에서 대처능력이 낮다고 보고 있다. 30-40대와 대졸자가 이러한 경향이 더 많았다. 반면, 건강,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간 더 높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영역의 평균도 중간 이하로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국민은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반면 이러한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30-40대와 대졸자는 우리 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영역별로는 경제생활, 생애주기 영역에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 분야는 위험정도와 정부의 대처능력 간의 차이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특이하게 건강영역의 위험도는 본인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나 정부의 대처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문제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대처도 낮은 편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와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2. 한국사회의 위험사회 지수 분석 결과

한국사회위험지수(KRSI)는 2013년 현재 종합 38.99점으로서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급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domains)별 KSRI를 살펴보면,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높고, 그 밖에 환경, 사회생활, 생애주기, 정치 및 대외관계, 건강, 자연재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우선적 관리가 요구된다.

자연재해 부문 위험은 황사 및 가뭄 지수가, 건강 부문 위험은 먹거리 지수가, 생애주기 부문은 노후불안 지수가, 사회생활 부문은 과학기술 및 IT기술위험 지수가, 경제생활 부문은 경기침체 및 성장 지수가, 정치 및 대외관계 부문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지수가, 환경 부문은 자원부족 및 고갈에 대한 지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부문의 위험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리와 대비가 절실하다.

사회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별 KSRI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30-40대 '민주화탈냉전세대'의 위험지수가 높으며, 저신뢰군(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높고, 사회경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위험의 부문별·인구집단특성별 복합적 차이에 있어서는, 청장년(20-30-40대)세대(एको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포함)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생활 관련 위험도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현저하며, 노년(50대 이

상)세대(베이붐세대, 산업화세대 포함)의 경우에는 건강, 환경, 자연재해 등 관련 위험도가 특별히 현저하고, 여타 직업군과 비교할 때,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경제생활 및 생애주기 부문의 위험도가 특별히 높으며, 소득, 직업, 학력 등 이른바 사회계층(social class)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일수록 환경문제, 건강문제, 정치·대외관계 문제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차원적(혹은 근원적, 성찰적) 문제 혹은 부문들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세대, 계층, 이념성향, 사회적 신뢰 등 핵심적 설명요인들의 차별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富)의 분배’ 및 ‘위험의 분배’가 중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중산층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 마련

30-40대, 대졸자들은 특히 우리 사회가 위험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은 주로 중산층으로서 외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안전이 본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중산층이 사회에 대한 불안의식이 높을 때 전체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의 우리 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중산층들이 불안감의 갖고 있는 노후생활보장, 사회의 폭력범죄 노출 문제, 실업 및 빈곤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세대별 차별화된 위기의식에 대한 접근 마련

세대별로도 뚜렷한 인식상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민주화탈냉전 세대(35-49세)가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산업화세대(59세 이상)는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건강, 환경, 자연재해 등에 대한 위험의식은 높았다. 연령코호트별로 차등화된 사회적 경험이 사회의 안전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생산층으로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층이다. 이 집단들이 사회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보는 비율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민주화 탈냉전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베이비붐세대나 산업화세대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호황을 지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이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이 이들에게 사회의 안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생활 관련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업과 빈곤대책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생활을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3. 정치이념적 상반된 견해를 가진 집단 포용정책 마련

정치이념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계층은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보는 의식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층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신은 사회에 대한 불만세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인신뢰, 기관 신뢰가 낮은 집단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들, 한국의 정치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집단들은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보는 의식이 더 많았으므로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특성 분석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집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비하여 자신들의 의견과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주체별 위험의 분산방안 마련

우리 국민은 정부의 위험대처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에 대한 관리는 국가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김영란(2011)

은 국가는 사회적 위험 관리에 대한 주체가 되고, 국가는 사회의 위험을 극복하도록 가족과 노동시장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가, 시장, 가족의 복지삼자관계에 기반을 둔 복지체제를 통해서 탈 위험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란, 2011). 따라서 시장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여 건실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험에 대한 상시점검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김영옥(2006)은 위험관리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위험관리 관련 법을 만들고, 이로써 위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사회적인 위험은 개인이 노력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김영옥, 2006).

그럼에도 정부만으로는 사회의 위험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과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5.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 마련

경제생활 영역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과 함께 안정된 계약직, 여성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공고화 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을 위해서는 경력이 단절되었더라도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할 수 있어야 하겠고, 중고령자의 탈빈곤을 위해서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특히 일자리의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해서 여

성도 중고령 인력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사회구성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합의

현대사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일반 대중들이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사회’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리는 다양한 편이성에 비해 사회적 안전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통제되지 않는 위험(risk)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제 범위를 이탈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적 위기와 원전사고, 각 국의 분쟁, 자연재해는 사회적 안정성 욕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적 안전성 욕구는 현대사회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전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이유는 위험의 원인이 깊은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데 반해 위험대비는 각 분야에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합의된 이행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Beck(1986)의 “위험 사회(risk society)” 개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산업화의 확대에 두고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위험대비는 물론 사회적 안전성 향상과 사회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로써, “위험(risk)”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 핵심개념으로 부상했다. 그는 위험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래의 잠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지진이나 폭우, 화산폭발 등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자연재해가 주된 위험의 대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의도

되지 않은 다양한 잠재적 위협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위협의 규모는 점차 증폭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위협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복잡한 위협이다.

산업사회가 양산한 위협의 경제적 이용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갈등과 합리성 논란을 유발하고, 위협의 생산과 인식 사이의 불일치, 위협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긴장은 위협의 규정을 둘러싼 적대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Beck, 1997).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위협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위험사회 지수개발과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

지금까지 많은 정책기관에서 수많은 지수들이 생산되어 쏟아져 왔지만 대부분 일회성 개발 및 조사에 머물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어 지수의 효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구성원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현재 개발된 위험사회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문항들을 면밀히 반복 검토하여 문항간의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이 엄격히 고려된 조사도구의 정확성 및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된 측정문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게 된다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다년간 추이 관찰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

리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 모형의 개발은 향후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평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표준화를 꾀할 수 있어 정책개발에 효용성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기상청(2013). 2012년도 기상연감. 기상청
- 기상청·녹색성장위원회(2013). 2012년 이상기후보고서. 기상청.
- 김선업, Geoffrey Lawrence(2012). 위험사회에서 먹거리 소비 양식의 사회적 제적 분화. 경제와 사회, 통권(96), pp.77-111.
- 김영란(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 2001, 14(3), pp.57-88.
- 김영옥(2006). 위험사회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2(3), pp.192-232.
- 김영진. (2011, 4, 16). 상위 20%(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소득 10년새 55% 늘고, 하위 20%는 35% 줄었다. 조선일보, A3면.
- 김원제(2003). 한국사회 위험(Risk)의 특성과 치유. 사회연구, (5), pp.169-196.
- 김철규, 윤병선, 김홍주(2012).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식량보장과 식품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96), pp.12-41.
- 박미숙, 김일수(2012).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pp.4-150.
- 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12).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 안정옥(2010). 위험인식의 구성과 위험경험의 구조: '권리를 가질 권리'.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41-74.
- 이재열 외(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적 의식조사. 소방방재청.
- 이진복(2006).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의 논의구도. 시민사회와 NGO. 4(1), pp.177-205.
- 정무권(2012).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pp.195-224.
- 한상진(2008).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사회이론, 통권(12), pp.37-72.

- 홍성만(2012). 위험사회의 공공성 탐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6). pp.865-871.
- 홍성만(2013). 위험사회와 공공성 탐색 : 불산가스 및 방사능 누출 위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2), pp.117-135.
- 홍성태(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 Abbott, David, Deborah Quilgars & Anwen Jones. (2006). Social Inequality and Risk' Peter Taylor-Gooby & Jens Zinn. *Risk in Social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28-249.
- Anthony Elliott (2002). Beck's Sociology of Risk: A Critical Assessment. *Sociology*, 36(2), pp. 293-315.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원저: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1986).
- Beck, Ulrich (1994). "The reinvention of politics: towards a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eds.) in U. Beck, A. Giddens, S.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1-5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ck, Ulrich., Giddens, Anthony., Lash Scott.(1994). *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임현진, 정일준(역). 1998.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 Beck, Ulrich(1997). 홍성태(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Beck, Ulrich(2010). 박미애, 이진우(역). 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도서출판 길.
- Bollin, C., C. Cárdenas, H. Hahn and K.S. Vatsa (2003) *Natural Disaster Network: Disaster Risk Management by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Inter-American

- Development Bank, available at <http://www.iadb.org/sds/doc/GTZ%2DStudyFinal.pdf>.
- Borradori, G.(2003). 손철성, 김은주, 김준성(역). 2004.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담화. 서울: 문학과 지성.
- Davidson, R. (1997) *An Urban Earthquake Disaster Risk Index*, The John A. Blume Earthquake Engineering Cente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Report No. 12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Esping-Andersen, Gosta(2007). 박시중(역).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Giddens, Anthony. (1991). 포스트 모더니티. 이윤희, 이현희(역). 서울: 민영사.
- Giddens, Anthony. (2009).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역). 서울: 을유문화사.
- Lemoine, Maurice.(2009). 낙오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낙오자의 운명.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4호(11월).
- Joffé, Hélène(1999). *Risk and 'The 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종연, 박해광 역.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 Taylor-Gooby, Peter(2005). New Social Risks in Post-industrial Societ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7(3), pp.45-64.
- Villagrán de León, J.C. (2004) *Manual para la estimación cuantitativa de riesgos asociados a diversas amenazas*, Guatemala: Acción Contra el Hambre, ACH.



부 록 <<

부록1. 영역별 주요 변수와의 연관성 분석

1.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부표 1-1〉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9	4.91	1.01	4.47*
	보통	332	4.75	1.08	
	높음	653	4.70	0.98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84	1.03	2.17
	보통	447	4.79	0.93	
	잘 하고 있음	412	4.69	1.09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4.82	1.01	0.83
	중도	410	4.74	0.99	
	보수적	397	4.75	1.04	
사회계층	하층	479	4.82	1.06	1.54
	중간	426	4.72	1.02	
	상층	371	4.72	0.94	
사회안전	불안전	325	4.85	1.06	5.87***
	보통	171	4.95	1.03	
	안전	788	4.69	0.99	
건강상태	나쁨	216	4.87	1.12	4.47*
	보통	371	4.85	1.04	
	좋음	697	4.69	0.97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95	0.96	2.71
	변화없음	403	4.73	1.03	
	긍정적	690	4.76	1.02	

* p<.05, ** p<.01, *** p<.001

2) 건강관련 위험

〈부표 1-2〉 주요 변수와 건강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4.95	0.96	19.27***
	보통	332	4.69	0.96	
	높음	653	4.53	0.95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87	0.94	14.92***
	보통	448	4.65	0.89	
	잘 하고 있음	412	4.50	1.0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73	0.92	1.74
	중도	410	4.68	0.99	
	보수적	397	4.60	1.00	
사회계층	하층	479	4.71	1.02	0.91
	중간	426	4.64	0.95	
	상층	371	4.63	0.92	
사회안전	불안전	325	4.86	0.97	21.30***
	보통	171	4.94	0.92	
	안전	789	4.54	0.95	
건강상태	나쁨	216	4.80	1.06	6.04**
	보통	371	4.75	0.99	
	좋음	698	4.59	0.92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83	0.95	3.32*
	변화없음	403	4.59	0.99	
	긍정적	691	4.69	0.96	

* p<.05, ** p<.01, *** p<.001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부표 1-3〉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5.39	0.95	10.68***
	보통	332	5.11	0.98	
	높음	652	5.09	0.95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5.44	0.94	25.01***
	보통	447	5.09	0.89	
	잘 하고 있음	412	4.99	1.01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5.29	0.89	5.48**
	중도	410	5.13	0.99	
	보수적	397	5.08	0.98	
사회계층	하층	479	5.24	0.99	3.07*
	중간	426	5.08	0.94	
	상층	370	5.15	0.95	
사회안전	불안전	325	5.33	0.97	8.28***
	보통	170	5.24	0.92	
	안전	789	5.08	0.96	
건강상태	나쁨	216	5.22	1.03	0.50
	보통	371	5.15	0.97	
	좋음	697	5.15	0.9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5.37	0.94	3.81*
	변화없음	402	5.14	0.93	
	긍정적	691	5.14	0.98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부표 1-4〉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5.11	1.03	8.62***
	보통	332	4.91	0.91	
	높음	652	4.83	0.9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5.18	0.95	23.67***
	보통	448	4.85	0.90	
	잘 하고 있음	411	4.74	0.98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5.00	0.88	2.34
	중도	410	4.89	0.98	
	보수적	396	4.87	1.01	
사회계층	하층	478	4.95	0.97	0.61
	중간	426	4.88	0.95	
	상층	371	4.90	0.97	
사회안전	불안전	324	5.12	0.98	16.45***
	보통	171	5.08	0.91	
	안전	789	4.80	0.94	
건강상태	나쁨	215	4.95	0.98	0.79
	보통	371	4.96	0.99	
	좋음	698	4.89	0.9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93	0.93	1.48
	변화없음	403	4.86	1.00	
	긍정적	690	4.96	0.94	

* p<.05, ** p<.01, *** p<.001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부표 1-5〉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9	5.39	0.95	19.96***
	보통	332	5.13	0.91	
	높음	651	4.97	0.96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1	5.42	0.95	33.78***
	보통	448	5.08	0.86	
	잘 하고 있음	412	4.88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5.23	0.89	4.66*
	중도	409	5.09	0.96	
	보수적	397	5.03	1.02	
사회계층	하층	477	5.19	1.01	2.39
	중간	426	5.08	0.92	
	상층	370	5.06	0.92	
사회안전	불안전	325	5.30	0.98	12.54***
	보통	171	5.23	0.95	
	안전	786	5.01	0.94	
건강상태	나쁨	215	5.12	0.98	0.84
	보통	371	5.16	1.00	
	좋음	696	5.08	0.93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5.20	1.00	1.80
	변화없음	402	5.05	0.96	
	긍정적	690	5.13	0.94	

* p<.05, ** p<.01, *** p<.001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위험

〈부표 1-6〉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9	4.91	1.09	17.53***
	보통	330	4.60	1.03	
	높음	652	4.49	0.95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91	1.03	38.72***
	보통	447	4.66	0.89	
	잘 하고 있음	410	4.29	1.05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74	1.00	6.16**
	중도	408	4.62	1.01	
	보수적	395	4.49	1.06	
사회계층	하층	479	4.71	1.05	3.18*
	중간	425	4.59	1.00	
	상층	368	4.54	1.00	
사회안전	불안전	325	4.69	1.01	3.75*
	보통	169	4.76	1.08	
	안전	787	4.56	1.01	
건강상태	나쁨	216	4.71	1.07	7.60**
	보통	371	4.76	1.01	
	좋음	694	4.52	1.00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73	1.02	2.68
	변화없음	402	4.53	1.02	
	긍정적	688	4.65	1.02	

* p<.05, ** p<.01, *** p<.001

7) 환경 관련 위험

〈부표 1-7〉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8	5.03	1.09
	보통	331	4.93	1.02
	높음	651	4.86	1.03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2	5.04	1.08
	보통	444	4.93	1.02
	잘 하고 있음	412	4.83	1.02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9	5.03	1.02
	중도	408	4.91	1.03
	보수적	396	4.85	1.07
사회계층	하층	476	4.97	1.07
	중간	425	4.89	1.01
	상층	370	4.90	1.05
사회안전	불안전	324	4.99	1.11
	보통	169	5.05	1.02
	안전	787	4.87	1.02
건강상태	나쁨	216	4.99	1.06
	보통	370	5.01	1.05
	좋음	694	4.85	1.03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5.08	0.99
	변화없음	401	4.84	1.07
	긍정적	688	4.94	1.04

* p<.05, ** p<.01, *** p<.001

8) 위험 취약성 전체

〈부표 1-8〉 주요 변수와 위험 취약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5	5.10	0.78	18.96***
	보통	329	4.88	0.72	
	높음	646	4.79	0.71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0	5.10	0.73	29.77***
	보통	441	4.88	0.66	
	잘 하고 있음	409	4.70	0.76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6	4.98	0.69	5.39**
	중도	405	4.87	0.74	
	보수적	393	4.82	0.77	
사회계층	하층	473	4.95	0.80	2.94
	중간	424	4.84	0.71	
	상층	365	4.85	0.67	
사회안전	불안전	323	5.02	0.75	16.06***
	보통	166	5.05	0.77	
	안전	781	4.80	0.71	
건강상태	나쁨	214	4.95	0.79	4.28*
	보통	370	4.95	0.78	
	좋음	686	4.83	0.69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5.02	0.76	3.95*
	변화없음	398	4.82	0.75	
	긍정적	682	4.90	0.73	

* p<.05, ** p<.01, *** p<.001

2. 한국사회의 노출정도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부표 1-9〉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4.68	1.06	2.08
	보통	332	4.57	1.05	
	높음	652	4.53	1.02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4.64	1.04	1.00
	보통	447	4.54	1.04	
	잘 하고 있음	411	4.57	1.0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4.65	1.05	1.40
	중도	408	4.54	0.99	
	보수적	397	4.58	1.04	
사회계층	하층	480	4.61	1.08	0.48
	중간	425	4.55	1.01	
	상층	370	4.55	1.01	
사회안전	불안전	325	4.69	1.05	6.67**
	보통	171	4.73	1.01	
	안전	788	4.49	1.03	
건강상태	나쁨	216	4.65	1.10	5.79**
	보통	371	4.70	0.98	
	좋음	697	4.49	1.0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4.79	1.01	3.97*
	변화없음	403	4.52	1.04	
	긍정적	691	4.56	1.04	

* $p<.05$, ** $p<.01$, *** $p<.001$

2) 건강관련 위험

〈부표 1-10〉 주요 변수와 건강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5.01	1.01	10.60***
	보통	332	4.73	0.95	
	높음	652	4.71	0.98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4.97	0.96	10.34***
	보통	448	4.72	0.97	
	잘 하고 있음	411	4.69	0.99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89	0.93	3.21*
	중도	410	4.75	0.99	
	보수적	397	4.73	1.02	
사회계층	하층	480	4.85	1.00	2.82
	중간	425	4.70	1.01	
	상층	371	4.81	0.92	
사회안전	불안전	325	4.96	0.95	15.74***
	보통	170	5.02	0.91	
	안전	790	4.67	0.99	
건강상태	나쁨	215	4.85	1.01	4.44*
	보통	371	4.89	0.96	
	좋음	699	4.71	0.99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95	1.02	2.74
	변화없음	403	4.73	1.03	
	긍정적	691	4.79	0.96	

* p<.05, ** p<.01, *** p<.001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부표 1-11〉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5.28	1.06	7.86***
	보통	332	5.03	1.04	
	높음	653	5.00	1.06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5.32	1.04	16.21***
	보통	448	4.99	0.99	
	잘 하고 있음	412	4.93	1.11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5.21	1.01	4.76**
	중도	410	5.02	1.08	
	보수적	397	5.01	1.08	
사회계층	하층	480	5.18	1.01	4.34*
	중간	426	4.99	1.08	
	상층	371	5.03	1.08	
사회안전	불안전	325	5.21	1.03	5.10**
	보통	171	5.16	1.01	
	안전	790	5.00	1.08	
건강상태	나쁨	216	5.10	1.06	1.45
	보통	371	5.14	0.99	
	좋음	699	5.03	1.10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5.25	0.96	3.49*
	변화없음	403	4.99	1.11	
	긍정적	692	5.08	1.04	

* p<.05, ** p<.01, *** p<.001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부표 1-12〉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5.12	1.05	14.27***
	보통	331	4.79	0.97	
	높음	653	4.75	1.0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5.12	1.01	21.62***
	보통	447	4.78	0.95	
	잘 하고 있음	412	4.67	1.1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4.98	0.97	5.71 **
	중도	410	4.78	1.03	
	보수적	397	4.77	1.10	
사회계층	하층	480	4.90	1.02	2.33
	중간	425	4.75	1.05	
	상층	370	4.87	1.04	
사회안전	불안전	325	5.10	1.04	20.83 ***
	보통	170	5.03	1.00	
	안전	789	4.70	1.02	
건강상태	나쁨	216	4.76	1.14	1.64
	보통	371	4.92	0.99	
	좋음	697	4.84	1.03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88	1.01	1.70
	변화없음	403	4.77	1.11	
	긍정적	690	4.89	1.00	

* p<.05, ** p<.01, *** p<.001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부표 1-13〉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5.32	1.00	15.63***
	보통	331	4.97	1.01	
	높음	652	4.94	1.01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5.32	1.00	24.01***
	보통	446	4.99	0.93	
	잘 하고 있음	412	4.83	1.09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5.21	0.94	8.50***
	중도	410	4.97	1.03	
	보수적	397	4.94	1.07	
사회계층	하층	479	5.15	1.04	5.24**
	중간	426	4.97	1.00	
	상층	370	4.96	0.99	
사회안전	불안전	325	5.22	0.99	7.75***
	보통	170	5.08	1.03	
	안전	789	4.96	1.02	
건강상태	나쁨	216	5.10	1.02	3.12*
	보통	370	5.12	0.98	
	좋음	698	4.97	1.03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5.22	0.94	5.36**
	변화없음	403	4.92	1.05	
	긍정적	690	5.06	1.01	

* p<.05, ** p<.01, *** p<.001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위험

〈부표 1-14〉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4.73	1.15	8.73***
	보통	331	4.44	1.08	
	높음	653	4.44	0.99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4.73	1.12	14.33***
	보통	448	4.50	0.92	
	잘 하고 있음	411	4.34	1.11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4.68	1.02	7.18**
	중도	409	4.46	1.05	
	보수적	397	4.42	1.10	
사회계층	하층	479	4.55	1.08	0.76
	중간	426	4.47	1.04	
	상층	371	4.50	1.05	
사회안전	불안전	325	4.57	1.05	2.65
	보통	171	4.63	1.12	
	안전	789	4.46	1.04	
건강상태	나쁨	216	4.60	1.13	4.67*
	보통	370	4.61	1.05	
	좋음	699	4.43	1.0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4.67	1.13	2.80
	변화없음	403	4.44	1.09	
	긍정적	692	4.53	1.02	

* p<.05, ** p<.01, *** p<.001

7) 환경 관련 위험

〈부표 1-15〉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노출정도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4.76	1.18	0.36
	보통	332	4.73	1.04	
	높음	649	4.70	1.06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4.83	1.13	2.48
	보통	447	4.69	1.02	
	잘 하고 있음	410	4.68	1.11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86	1.03	4.29*
	중도	409	4.66	1.08	
	보수적	396	4.68	1.11	
사회계층	하층	478	4.77	1.10	0.69
	중간	424	4.71	1.05	
	상층	371	4.69	1.10	
사회안전	불안전	324	4.85	1.10	7.62**
	보통	170	4.91	0.99	
	안전	788	4.63	1.09	
건강상태	나쁨	214	4.82	1.16	3.88*
	보통	371	4.81	1.07	
	좋음	697	4.65	1.07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4.86	1.15	1.71
	변화없음	402	4.67	1.09	
	긍정적	690	4.72	1.07	

* p<.05, ** p<.01, *** p<.001

8) 노출정도 전체

〈부표 1-16〉 주요 변수와 위험 노출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9	4.99	0.84	11.13***
	보통	330	4.75	0.81	
	높음	647	4.73	0.79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99	0.81	16.70***
	보통	444	4.75	0.77	
	잘 하고 있음	408	4.67	0.83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8	4.93	0.76	7.64**
	중도	406	4.74	0.81	
	보수적	396	4.74	0.85	
사회계층	하층	476	4.86	0.82	3.02*
	중간	422	4.73	0.83	
	상층	369	4.78	0.78	
사회안전	불안전	324	4.95	0.76	13.39***
	보통	169	4.94	0.85	
	안전	783	4.70	0.81	
건강상태	나쁨	214	4.84	0.84	4.73**
	보통	369	4.89	0.78	
	좋음	693	4.73	0.82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0	4.96	0.84	4.97**
	변화없음	402	4.72	0.84	
	긍정적	686	4.81	0.79	

* p<.05, ** p<.01, *** p<.001

3. 위험의 발생 가능성 현황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부표 1-17〉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3.80	1.16	3.53*
	보통	331	3.77	1.13	
	높음	653	3.62	1.0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3.78	1.10	1.69
	보통	447	3.71	1.05	
	잘 하고 있음	412	3.64	1.13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3.75	1.08	1.74
	중도	410	3.74	1.04	
	보수적	396	3.62	1.14	
사회계층	하층	478	3.78	1.12	2.52
	중간	426	3.67	1.06	
	상층	371	3.62	1.10	
사회안전	불안전	325	3.93	1.07	21.28***
	보통	171	3.98	1.07	
	안전	788	3.55	1.08	
건강상태	나쁨	216	3.90	1.26	9.81***
	보통	370	3.81	1.00	
	좋음	698	3.58	1.07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83	1.12	1.69
	변화없음	403	3.71	1.14	
	긍정적	690	3.65	1.06	

* p<.05, ** p<.01, *** p<.001

2) 건강관련 위험

〈부표 1-18〉 주요 변수와 건강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4.32	1.14	7.08**
	보통	332	4.19	1.05	
	높음	653	4.05	1.05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28	1.07	4.67*
	보통	448	4.15	0.99	
	잘 하고 있음	412	4.05	1.13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18	1.01	0.24
	중도	410	4.15	1.07	
	보수적	397	4.13	1.14	
사회계층	하층	479	4.23	1.08	2.17
	중간	426	4.08	1.10	
	상층	371	4.12	1.05	
사회안전	불안전	325	4.43	1.05	23.72***
	보통	171	4.35	0.95	
	안전	789	3.99	1.08	
건강상태	나쁨	216	4.52	1.11	27.80***
	보통	371	4.29	1.01	
	좋음	698	3.96	1.06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31	1.02	2.08
	변화없음	403	4.13	1.10	
	긍정적	691	4.11	1.07	

* p<.05, ** p<.01, *** p<.001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부표 1-19〉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4.35	1.13	14.43***
	보통	332	4.21	1.13	
	높음	652	3.94	1.15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33	1.09	12.28***
	보통	448	4.09	1.06	
	잘 하고 있음	411	3.93	1.27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22	1.11	5.97**
	중도	409	4.12	1.11	
	보수적	397	3.95	1.23	
사회계층	하층	479	4.32	1.14	14.50***
	중간	425	4.03	1.10	
	상층	371	3.91	1.21	
사회안전	불안전	324	4.37	1.12	21.51***
	보통	171	4.36	1.13	
	안전	789	3.94	1.14	
건강상태	나쁨	216	4.31	1.16	12.61***
	보통	371	4.26	1.10	
	좋음	697	3.96	1.16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41	1.05	7.52**
	변화없음	403	4.12	1.12	
	긍정적	690	4.02	1.19	

* p<.05, ** p<.01, *** p<.001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부표 1-20〉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9	4.33	1.26	14.79***
	보통	332	4.07	1.15	
	높음	653	3.89	1.1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2	4.31	1.20	23.41***
	보통	448	4.09	1.06	
	잘 하고 있음	412	3.76	1.21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17	1.15	5.98**
	중도	409	4.05	1.17	
	보수적	397	3.88	1.20	
사회계층	하층	478	4.09	1.22	0.91
	중간	426	4.02	1.11	
	상층	371	3.98	1.21	
사회안전	불안전	324	4.36	1.21	28.33***
	보통	171	4.32	1.07	
	안전	789	3.85	1.16	
건강상태	나쁨	216	3.93	1.37	4.48*
	보통	371	4.19	1.14	
	좋음	697	3.99	1.1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00	1.16	0.10
	변화없음	403	4.04	1.23	
	긍정적	691	4.05	1.15	

* p<.05, ** p<.01, *** p<.001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부표 1-21〉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4.65	1.22	20.19***
	보통	332	4.30	1.21	
	높음	653	4.12	1.18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3	4.56	1.22	21.91***
	보통	448	4.36	1.10	
	잘 하고 있음	412	4.01	1.2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1	4.43	1.19	6.03**
	중도	410	4.30	1.23	
	보수적	397	4.13	1.20	
사회계층	하층	479	4.51	1.22	14.75***
	중간	426	4.25	1.19	
	상층	371	4.07	1.19	
사회안전	불안전	325	4.56	1.25	15.21***
	보통	171	4.44	1.19	
	안전	789	4.15	1.18	
건강상태	나쁨	216	4.30	1.35	10.73***
	보통	371	4.53	1.14	
	좋음	698	4.17	1.19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4.56	1.06	4.99**
	변화없음	403	4.20	1.26	
	긍정적	691	4.28	1.21	

* p<.05, ** p<.01, *** p<.001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위험

〈부표 1-22〉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9	4.04	1.24	7.92***
	보통	332	3.84	1.10	
	높음	653	3.73	1.0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2	4.00	1.14	12.59***
	보통	448	3.88	0.99	
	잘 하고 있음	412	3.62	1.17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3.92	1.07	2.69
	중도	410	3.80	1.11	
	보수적	397	3.74	1.16	
사회계층	하층	478	3.89	1.15	1.98
	중간	426	3.82	1.10	
	상층	371	3.74	1.07	
사회안전	불안전	325	3.98	1.12	9.83***
	보통	171	4.02	1.05	
	안전	788	3.72	1.11	
건강상태	나쁨	216	3.90	1.30	8.77***
	보통	371	4.00	1.08	
	좋음	697	3.71	1.05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97	1.22	2.01
	변화없음	403	3.76	1.12	
	긍정적	690	3.83	1.08	

* p<.05, ** p<.01, *** p<.001

7) 환경 관련 위험

〈부표 1-23〉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0	4.29	1.35	2.73
	보통	331	4.18	1.20	
	높음	650	4.09	1.21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2	4.22	1.28	1.76
	보통	446	4.21	1.15	
	잘 하고 있음	411	4.07	1.28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0	4.29	1.24	3.20*
	중도	409	4.13	1.19	
	보수적	396	4.08	1.27	
사회계층	하층	477	4.20	1.30	0.32
	중간	426	4.15	1.17	
	상층	370	4.13	1.24	
사회안전	불안전	323	4.34	1.26	9.52***
	보통	171	4.39	1.14	
	안전	787	4.05	1.24	
건강상태	나쁨	215	4.28	1.37	4.34*
	보통	369	4.27	1.22	
	좋음	697	4.07	1.21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4.33	1.23	1.79
	변화없음	403	4.11	1.26	
	긍정적	689	4.14	1.24	

* p<.05, ** p<.01, *** p<.001

8) 전체 위험발생 가능성

〈부표 1-24〉 주요 변수와 위험 발생가능성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298	4.25	0.93	15.81***
	보통	331	4.08	0.88	
	높음	649	3.92	0.80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0	4.21	0.85	15.85***
	보통	446	4.07	0.79	
	잘 하고 있음	410	3.87	0.9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9	4.13	0.83	5.48**
	중도	407	4.04	0.86	
	보수적	396	3.93	0.88	
사회계층	하층	475	4.14	0.89	6.07**
	중간	425	4.00	0.85	
	상층	370	3.94	0.85	
사회안전	불안전	321	4.28	0.85	31.40***
	보통	171	4.27	0.82	
	안전	786	3.89	0.85	
건강상태	나쁨	215	4.17	0.97	14.73***
	보통	369	4.19	0.85	
	좋음	694	3.92	0.82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2	4.19	0.82	2.95
	변화없음	403	4.01	0.89	
	긍정적	687	4.01	0.86	

* p<.05, ** p<.01, *** p<.001

4. 주요변수와 정부의 위험대처와의 연관성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부표 1-25〉 주요 변수와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3.22	1.06	11.28***
	보통	332	3.37	1.07	
	높음	653	3.56	1.0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3.23	1.07	20.67***
	보통	448	3.36	0.93	
	잘 하고 있음	412	3.69	1.1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3.41	1.08	0.15
	중도	410	3.45	1.02	
	보수적	397	3.44	1.07	
사회계층	하층	480	3.46	1.09	0.72
	중간	426	3.39	1.06	
	상층	371	3.46	1.02	
사회안전	불안전	325	3.28	1.10	9.65***
	보통	171	3.26	1.05	
	안전	791	3.53	1.04	
건강상태	나쁨	217	3.43	1.15	1.26
	보통	371	3.36	1.04	
	좋음	699	3.47	1.0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33	1.05	0.87
	변화없음	403	3.46	1.11	
	긍정적	692	3.43	1.04	

* p<.05, ** p<.01, *** p<.001

2) 건강 관련 위험

〈부표 1-26〉 주요 변수와 건강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3.35	1.02	21.91***
	보통	332	3.63	0.97	
	높음	653	3.81	1.00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3.38	0.92	33.00***
	보통	448	3.61	0.92	
	잘 하고 있음	412	3.95	1.12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3.60	1.00	1.49
	중도	410	3.63	1.02	
	보수적	397	3.72	1.03	
사회계층	하층	480	3.69	1.05	1.25
	중간	426	3.60	0.99	
	상층	371	3.69	0.99	
사회안전	불안전	325	3.40	0.98	18.99***
	보통	171	3.51	0.97	
	안전	791	3.79	1.01	
건강상태	나쁨	217	3.59	1.14	3.53*
	보통	371	3.56	0.97	
	좋음	699	3.72	0.99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58	1.05	0.36
	변화없음	403	3.66	1.05	
	긍정적	692	3.65	1.00	

* p<.05, ** p<.01, *** p<.001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부표 1-27〉 주요 변수와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2.76	0.97	20.12***
	보통	332	3.06	1.06	
	높음	653	3.21	1.04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2.71	0.98	41.01***
	보통	448	3.13	0.93	
	잘 하고 있음	412	3.35	1.13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2.93	0.99	8.74***
	중도	410	3.05	1.05	
	보수적	397	3.23	1.07	
사회계층	하층	480	3.00	1.06	1.90
	중간	426	3.12	1.02	
	상층	371	3.11	1.05	
사회안전	불안전	325	2.92	1.03	5.18**
	보통	171	3.02	0.97	
	안전	791	3.14	1.07	
건강상태	나쁨	217	3.01	1.16	0.89
	보통	371	3.04	1.05	
	좋음	699	3.10	1.01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2.92	1.10	2.02
	변화없음	403	3.05	1.03	
	긍정적	692	3.11	1.04	

* p<.05, ** p<.01, *** p<.001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부표 1-28〉 주요 변수와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2.94	0.98	17.48***
	보통	332	3.25	1.04	
	높음	653	3.36	1.02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2.91	0.92	34.75***
	보통	448	3.28	0.96	
	잘 하고 있음	412	3.51	1.1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3.17	1.00	1.47
	중도	410	3.26	1.02	
	보수적	397	3.29	1.07	
사회계층	하층	480	3.22	1.04	0.34
	중간	426	3.27	1.03	
	상층	371	3.22	1.02	
사회안전	불안전	325	3.01	1.00	10.77***
	보통	171	3.25	1.02	
	안전	791	3.32	1.03	
건강상태	나쁨	217	3.17	1.03	0.57
	보통	371	3.23	1.04	
	좋음	699	3.26	1.03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19	0.92	0.81
	변화없음	403	3.28	1.05	
	긍정적	692	3.21	1.04	

* p<.05, ** p<.01, *** p<.001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부표 1-29〉 주요 변수와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2.69	1.01	27.11***
	보통	332	3.02	0.95	
	높음	653	3.20	1.02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2.62	0.96	64.22***
	보통	448	3.04	0.88	
	잘 하고 있음	412	3.40	1.07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2.90	1.03	6.39**
	중도	410	3.01	0.95	
	보수적	397	3.16	1.07	
사회계층	하층	480	2.95	1.04	2.53
	중간	426	3.09	1.00	
	상층	371	3.07	1.01	
사회안전	불안전	325	2.85	1.01	7.60**
	보통	171	3.03	1.00	
	안전	791	3.11	1.02	
건강상태	나쁨	217	2.92	1.11	1.94
	보통	371	3.02	1.03	
	좋음	699	3.07	0.99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2.94	1.06	0.76
	변화없음	403	3.03	1.00	
	긍정적	692	3.05	1.02	

* p<.05, ** p<.01, *** p<.001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위험

〈부표 1-30〉 주요 변수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3.20	1.15	29.96***
	보통	332	3.65	1.07	
	높음	653	3.78	1.06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3.12	1.09	97.36***
	보통	448	3.56	0.91	
	잘 하고 있음	412	4.13	1.09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3.47	1.13	12.13***
	중도	410	3.53	1.07	
	보수적	397	3.83	1.10	
사회계층	하층	480	3.53	1.09	1.99
	중간	426	3.66	1.10	
	상층	371	3.66	1.12	
사회안전	불안전	325	3.43	1.08	7.18**
	보통	171	3.55	1.13	
	안전	791	3.70	1.10	
건강상태	나쁨	217	3.48	1.20	5.63**
	보통	371	3.52	1.14	
	좋음	699	3.71	1.05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50	1.22	1.30
	변화없음	403	3.67	1.09	
	긍정적	692	3.61	1.09	

* p<.05, ** p<.01, *** p<.001

7) 환경 관련 위험

〈부표 1-31〉 주요 변수와 환경 위험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3.04	1.15	29.96***
	보통	332	3.18	1.14	
	높음	653	3.34	1.11	
행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2.95	1.12	97.36**
	보통	448	3.25	1.07	
	잘 하고 있음	412	3.44	1.12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3.09	1.12	12.13***
	중도	410	3.24	1.10	
	보수적	397	3.33	1.15	
사회계층	하층	480	3.18	1.12	1.99
	중간	426	3.27	1.14	
	상층	371	3.24	1.12	
사회안전	불안전	325	3.10	1.15	7.18**
	보통	171	3.19	1.13	
	안전	791	3.28	1.12	
건강상태	나쁨	217	3.13	1.22	5.63**
	보통	371	3.15	1.13	
	좋음	699	3.29	1.10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05	1.11	1.30
	변화없음	403	3.26	1.13	
	긍정적	692	3.22	1.13	

* p<.05, ** p<.01, *** p<.001

8) 전체 정부대처

〈부표 1-32〉 주요 변수와 정부대처와의 연관성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음	301	3.03	0.77	32.78***
	보통	332	3.31	0.79	
	높음	653	3.47	0.77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 못하고 있음	384	2.99	0.72	74.27***
	보통	448	3.32	0.68	
	잘 하고 있음	412	3.64	0.8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22	3.22	0.76	6.78**
	중도	410	3.31	0.78	
	보수적	397	3.43	0.83	
사회계층	하층	480	3.29	0.83	0.73
	중간	426	3.34	0.79	
	상층	371	3.35	0.76	
사회안전	불안전	325	3.14	0.78	14.12***
	보통	171	3.26	0.82	
	안전	791	3.41	0.79	
건강상태	나쁨	217	3.25	0.90	3.29*
	보통	371	3.27	0.82	
	좋음	699	3.38	0.74	
향후 10년 후 경제상태 전망	부정적	153	3.21	0.83	1.55
	변화없음	403	3.34	0.81	
	긍정적	692	3.32	0.78	

* p<.05, ** p<.01, *** p<.001

부록2. 한국의 사회적 위험지수(Korea Social Risk Index)

〈부표 2-1〉 KSRI -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8.14	10.473	-3.008**
	여자	641	39.86	10.049	
	계	1,286	38.99	10.296	
연령	20대 이하	289	38.27	9.695	11.575***
	30대	247	40.71	10.419	
	40대	289	41.26	10.128	
	50대	211	38.56	9.948	
	60대 이상	248	35.91	10.493	
	계	1284	39.00	10.29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6.44	10.468	7.470**
	고졸	359	38.96	10.707	
	대졸 이상	722	39.85	9.916	
	계	1244	39.15	10.276	
직업	관리/전문직	104	40.43	9.677	2.445*
	사무/준전문직	121	38.42	10.567	
	판매/서비스직	93	39.83	9.823	
	생산/기능/노무직	151	38.23	11.230	
	무직	297	37.22	10.838	
	주부/학생	279	39.43	9.015	
	계	1045	38.65	10.240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6.35	10.186	2.208
	100-199만원	134	38.14	12.242	
	200-299만원	167	38.70	10.315	
	300-399만원	199	39.24	11.028	
	400만원 이상	585	39.37	9.388	
	계	1191	38.85	10.248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2-2〉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세대별	예코세대	409	38.62	9.852	15.717***
	민주화탈냉전세대	416	41.45	10.239	
	베이비붐세대	193	38.54	10.299	
	산업화세대	266	36.10	10.232	
	계	1284	39.00	10.298	
대인신뢰	낮음	194	41.33	10.040	15.323***
	중간	682	39.61	10.370	
	높음	410	36.86	9.933	
	계	1,286	38.99	10.296	
대 기관신뢰	낮음	142	42.35	10.643	20.979***
	중간	1,059	38.76	9.863	
	높음	26	29.11	11.892	
	계	1,227	38.97	10.163	
정치정향	보수	397	37.70	10.728	8.547***
	중도	410	38.80	10.346	
	진보	421	40.62	9.539	
	계	1,228	39.07	10.268	
지지정당	없음	169	41.02	11.064	15.412***
	새누리당	564	36.67	9.803	
	민주당	423	40.23	9.929	
	통합진보당	47	43.75	9.382	
	진보정의당	16	45.78	9.335	
	계	1,219	38.90	10.244	
18대 대선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08	41.62	10.049	6.990***
	박근혜후보	575	37.32	10.111	
	계	1,083	39.34	10.303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42.62	10.091	45.510***
	중립	448	38.82	9.052	
	긍정적	412	35.93	10.556	
	계	1,243	39.03	10.240	

* p<.05, ** p<.01, *** p<.001

〈부표 2-3〉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42.44	10.488	13.631***
	변동없을것	454	39.35	10.046	
	긍정적	625	37.96	10.192	
	계	1,257	39.10	10.284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42.65	9.951	24.958***
	변동없을것	345	38.98	10.273	
	긍정적	628	37.52	10.127	
	계	1,255	39.08	10.320	

* p<.05, ** p<.01, *** p<.001

1.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

〈부표 2-4〉 자연재해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1.56	11.292	-2.639**
	여자	641	33.18	10.775	
	계	1,286	32.37	11.062	
연령	20대 이하	289	30.84	10.616	5.795***
	30대	247	33.86	10.833	
	40대	289	33.95	10.949	
	50대	211	32.71	10.976	
	60대 이상	248	30.55	11.540	
	계	1,284	32.37	11.05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1.54	12.172	.809
	고졸	359	32.86	11.264	
	대졸 이상	722	32.52	10.636	
	계	1,244	32.49	11.029	
직업	관리/전문직	104	33.35	9.972	1.510
	사무/준전문직	121	32.12	11.339	
	판매/서비스직	93	33.26	10.729	
	생산/기능/노무직	151	32.00	11.870	
	무직	297	30.69	11.837	
	주부/학생	279	32.56	10.372	
	계	1,045	32.04	11.147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39	10.742	1.824
	100-199만원	134	31.97	12.264	
	200-299만원	167	31.20	11.615	
	300-399만원	199	33.04	11.523	
	400만원 이상	585	32.83	10.282	
	계	1,191	32.32	10.978	

* p<.05, ** p<.01, *** p<.001

〈부표 2-5〉 자연재해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자연재해	에코세대	409	31.46	10.754	7.120***
	민주화탈냉전세대	416	34.19	10.856	
	베이비붐세대	193	32.83	11.084	
	산업화세대	266	30.61	11.424	
	계	1284	32.37	11.056	
대인신뢰	낮음	194	33.73	10.718	5.563**
	중간	682	32.84	11.165	
	높음	410	30.94	10.928	
	계	1,286	32.37	11.062	
대 기관신뢰	낮음	142	34.22	11.681	11.069***
	중간	1,059	32.31	10.770	
	높음	26	23.29	11.661	
	계	1,227	32.34	10.987	
정치정향	보수	397	32.09	11.258	1.052
	중도	410	32.15	10.681	
	진보	421	33.08	11.159	
	계	1,228	32.45	11.035	
지지정당	없음	169	33.86	11.220	4.897**
	새누리당	564	31.06	11.031	
	민주당	423	32.82	10.840	
	통합진보당	47	36.66	11.322	
	진보정의당	16	34.58	10.960	
	계	1,219	32.32	11.072	
18대 대선 투<부표 후보	문재인후보	508	33.90	10.786	3.131**
	박근혜후보	575	31.81	11.143	
	계	1,083	32.79	11.022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33.80	11.274	6.697**
	중립	448	32.62	10.203	
	긍정적	412	30.97	11.535	
	계	1,243	32.44	11.040	

* p<.05, ** p<.01, *** p<.001

〈부표 2-6〉 자연재해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33.76	11.194	1.472
	변동없을것	454	32.19	11.230	
	긍정적	625	32.25	10.933	
	계	1,257	32.44	11.082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34.49	11.054	6.598**
	변동없을것	345	32.18	11.159	
	긍정적	628	31.64	10.968	
	계	1,255	32.43	11.089	

* p<.05, ** p<.01, *** p<.001

〈부표 2-7〉 홍수 및 태풍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28.12	10.133	-2.573*
	여자	641	29.54	9.675	
	계	1,286	28.83	9.929	
연령	20대 이하	289	27.48	9.508	5.877***
	30대	247	30.17	9.718	
	40대	289	30.27	9.839	
	50대	211	29.13	9.837	
	60대 이상	248	27.16	10.377	
	계	1,284	28.83	9.92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28.01	10.900	.900
	고졸	359	29.24	10.113	
	대졸 이상	722	29.00	9.546	
	계	1,244	28.94	9.896	
직업	관리/전문직	104	29.74	8.918	1.524
	사무/준전문직	121	28.61	10.261	
	판매/서비스직	93	29.63	9.586	
	생산/기능/노무직	151	28.45	10.623	
	무직	297	27.32	10.613	
	주부/학생	279	29.01	9.320	
	계	1,045	28.53	10.003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7.03	9.570	1.901
	100-199만원	134	28.41	11.086	
	200-299만원	167	27.78	10.397	
	300-399만원	199	29.41	10.364	
	400만원 이상	585	29.28	9.219	
	계	1,191	28.79	9.854	

* p<.05, ** p<.01, *** p<.001

〈부표 2-8〉 급격한 기후변화(지구온난화)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29.86	10.396	-2.648**
	여자	641	31.36	9.921	
	계	1,286	30.61	10.186	
연령	20대 이하	289	29.17	9.794	5.719***
	30대	247	31.97	9.981	
	40대	289	32.06	10.071	
	50대	211	30.92	10.114	
	60대 이상	248	28.98	10.611	
	계	1,284	30.61	10.18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29.91	11.225	.751
	고졸	359	31.08	10.369	
	대졸 이상	722	30.72	9.795	
	계	1,244	30.72	10.15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1.51	9.208	1.493
	사무/준전문직	121	30.40	10.391	
	판매/서비스직	93	31.43	9.897	
	생산/기능/노무직	151	30.30	10.941	
	무직	297	29.07	10.906	
	주부/학생	279	30.78	9.549	
	계	1,045	30.31	10.264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8.81	9.944	1.772
	100-199만원	134	30.29	11.235	
	200-299만원	167	29.52	10.714	
	300-399만원	199	31.24	10.596	
	400만원 이상	585	31.01	9.473	
	계	1,191	30.56	10.108	

* p<.05, ** p<.01, *** p<.001

〈부표 2-9〉 황사 및 가뭄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1.23	10.951	-2.661**
	여자	641	32.82	10.453	
	계	1,286	32.02	10.731	
연령	20대 이하	289	30.52	10.317	5.680***
	30대	247	33.46	10.503	
	40대	289	33.54	10.620	
	50대	211	32.35	10.649	
	60대 이상	248	30.31	11.189	
	계	1,284	32.03	10.7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1.30	11.842	.735
	고졸	359	32.52	10.914	
	대졸 이상	722	32.14	10.321	
	계	1,244	32.14	10.701	
직업	관리/전문직	104	32.97	9.675	1.489
	사무/준전문직	121	31.78	10.948	
	판매/서비스직	93	32.89	10.461	
	생산/기능/노무직	151	31.71	11.531	
	무직	297	30.41	11.474	
	주부/학생	279	32.21	10.069	
	계	1,045	31.71	10.813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16	10.464	1.725
	100-199만원	134	31.67	11.856	
	200-299만원	167	30.90	11.272	
	300-399만원	199	32.69	11.171	
	400만원 이상	585	32.44	9.979	
	계	1,191	31.97	10.648	

* p<.05, ** p<.01, *** p<.001

〈부표 2-10〉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0.48	10.302	-2.590*
	여자	641	31.93	9.843	
	계	1,286	31.20	10.098	
연령	20대 이하	289	29.77	9.710	5.702***
	30대	247	32.54	9.892	
	40대	289	32.64	9.993	
	50대	211	31.52	10.011	
	60대 이상	248	29.60	10.528	
	계	1,284	31.21	10.09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0.50	11.130	.746
	고졸	359	31.66	10.274	
	대졸 이상	722	31.33	9.715	
	계	1,244	31.31	10.070	
직업	관리/전문직	104	32.11	9.111	1.488
	사무/준전문직	121	31.00	10.338	
	판매/서비스직	93	32.01	9.799	
	생산/기능/노무직	151	30.88	10.829	
	무직	297	29.68	10.802	
	주부/학생	279	31.37	9.481	
	계	1,045	30.91	10.175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9.44	9.835	1.763
	100-199만원	134	30.88	11.167	
	200-299만원	167	30.13	10.611	
	300-399만원	199	31.82	10.520	
	400만원 이상	585	31.61	9.386	
	계	1,191	31.16	10.021	

* p<.05, ** p<.01, *** p<.001

2. 건강 관련 위험지수

〈부표 2-11〉 건강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1.20	11.014	-4.734 ^{***}
	여자	641	34.07	10.672	
	계	1,286	32.63	10.935	
연령	20대 이하	289	32.25	10.844	4.278 ^{**}
	30대	247	34.12	11.279	
	40대	289	33.90	10.283	
	50대	211	31.89	10.801	
	60대 이상	248	30.77	11.238	
	계	1,284	32.63	10.9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1.19	11.721	2.970
	고졸	359	32.18	11.070	
	대졸 이상	722	33.28	10.692	
	계	1,244	32.68	10.958	
직업	관리/전문직	104	33.08	10.309	.889
	사무/준전문직	121	32.39	10.988	
	판매/서비스직	93	32.73	11.285	
	생산/기능/노무직	151	32.37	10.801	
	무직	297	31.51	11.523	
	주부/학생	279	33.33	10.184	
	계	1,045	32.49	10.86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58	11.458	1.071
	100-199만원	134	32.23	11.996	
	200-299만원	167	32.57	11.218	
	300-399만원	199	32.82	11.540	
	400만원 이상	585	32.90	10.261	
	계	1,191	32.56	10.931	

* p<.05, ** p<.01, *** p<.001

〈부표 2-12〉 건강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건강	예코세대	409	32.52	10.965	5.440**
	민주화탈냉전세대	416	34.23	10.590	
	베이비붐세대	193	31.57	11.088	
	산업화세대	266	31.08	11.024	
	계	1284	32.63	10.932	
대인신뢰	낮음	194	34.80	11.637	8.763***
	중간	682	32.98	10.862	
	높음	410	31.01	10.502	
	계	1,286	32.63	10.935	
대 기관신뢰	낮음	142	35.06	10.311	9.693***
	중간	1,059	32.44	10.833	
	높음	26	25.34	11.879	
	계	1,227	32.59	10.873	
정치정향	보수	397	31.86	11.478	2.273
	중도	410	32.66	11.210	
	진보	421	33.49	10.101	
	계	1,228	32.69	10.944	
지지정당	없음	169	34.24	10.426	8.936***
	새누리당	564	30.80	10.973	
	민주당	423	33.35	10.780	
	통합진보당	47	38.41	10.995	
	진보정의당	16	34.98	10.505	
	계	1,219	32.51	10.967	
18대 대선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08	34.58	10.912	4.596***
	박근혜후보	575	31.53	10.944	
	계	1,083	32.96	11.030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35.44	10.452	23.778***
	중립	448	32.47	10.136	
	긍정적	412	30.22	11.442	
	계	1,243	32.64	10.875	

* p<.05, ** p<.01, *** p<.001

〈부표 2-13〉 건강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35.22	10.777	7.207**
	변동없을것	454	32.99	10.991	
	긍정적	625	31.77	10.878	
	계	1,257	32.70	10.959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35.11	10.855	9.201***
	변동없을것	345	32.39	11.004	
	긍정적	628	31.79	10.890	
	계	1,255	32.70	10.985	

* p<.05, ** p<.01, *** p<.001

〈부표 2-14〉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0.76	10.381	-4.706
	여자	641	33.44	10.058	
	계	1,286	32.10	10.305	
연령	20대 이하	289	31.71	10.220	4.242
	30대	247	33.50	10.641	
	40대	289	33.28	9.700	
	50대	211	31.39	10.157	
	60대 이상	248	30.37	10.591	
	계	1,284	32.10	10.30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0.76	11.060	2.924
	고졸	359	31.66	10.427	
	대졸 이상	722	32.70	10.075	
	계	1,244	32.15	10.32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2.51	9.703	.877
	사무/준전문직	121	31.86	10.387	
	판매/서비스직	93	32.22	10.632	
	생산/기능/노무직	151	31.84	10.158	
	무직	297	31.06	10.849	
	주부/학생	279	32.75	9.599	
	계	1,045	31.96	10.23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18	10.816	1.044
	100-199만원	134	31.72	11.309	
	200-299만원	167	32.05	10.542	
	300-399만원	199	32.27	10.877	
	400만원 이상	585	32.34	9.673	
	계	1,191	32.03	10.300	

* p<.05, ** p<.01, *** p<.001

〈부표 2-15〉 먹거리(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5.20	11.156	-4.691***
	여자	641	38.07	10.815	
	계	1,286	36.63	11.077	
연령	20대 이하	289	36.16	11.026	3.950**
	30대	247	38.09	11.473	
	40대	289	37.89	10.418	
	50대	211	35.92	10.958	
	60대 이상	248	34.87	11.297	
	계	1,284	36.63	11.07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5.25	11.767	2.707
	고졸	359	36.17	11.240	
	대졸 이상	722	37.26	10.859	
	계	1,244	36.68	11.10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7.11	10.514	.819
	사무/준전문직	121	36.43	11.060	
	판매/서비스직	93	36.66	11.550	
	생산/기능/노무직	151	36.41	10.961	
	무직	297	35.50	11.642	
	주부/학생	279	37.25	10.312	
	계	1,045	36.47	11.009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4.76	11.536	.889
	100-199만원	134	36.32	12.044	
	200-299만원	167	36.46	11.447	
	300-399만원	199	36.88	11.681	
	400만원 이상	585	36.89	10.418	
	계	1,191	36.57	11.071	

* p<.05, ** p<.01, *** p<.001

〈부표 2-16〉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26.57	10.042	-4.714***
	여자	641	29.16	9.718	
	계	1,286	27.86	9.963	
연령	20대 이하	289	27.60	9.860	4.494**
	30대	247	29.20	10.264	
	40대	289	29.04	9.343	
	50대	211	27.17	9.860	
	60대 이상	248	26.07	10.273	
	계	1,284	27.87	9.96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26.42	10.718	3.471*
	고졸	359	27.43	10.074	
	대졸 이상	722	28.49	9.722	
	계	1,244	27.91	9.979	
직업	관리/전문직	104	28.28	9.380	.996
	사무/준전문직	121	27.67	10.036	
	판매/서비스직	93	28.01	10.229	
	생산/기능/노무직	151	27.59	9.861	
	무직	297	26.80	10.496	
	주부/학생	279	28.55	9.275	
	계	1,045	27.74	9.902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5.85	10.466	1.251
	100-199만원	134	27.43	11.013	
	200-299만원	167	27.86	10.186	
	300-399만원	199	28.01	10.521	
	400만원 이상	585	28.13	9.316	
	계	1,191	27.79	9.956	

* p<.05, ** p<.01, *** p<.001

〈부표 2-17〉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27.07	9.407	-4.698***
	여자	641	29.50	9.111	
	계	1,286	28.28	9.336	
연령	20대 이하	289	27.97	9.247	4.364**
	30대	247	29.57	9.629	
	40대	289	29.37	8.785	
	50대	211	27.64	9.192	
	60대 이상	248	26.68	9.625	
	계	1,284	28.29	9.33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27.04	10.060	3.074*
	고졸	359	27.89	9.436	
	대졸 이상	722	28.85	9.117	
	계	1,244	28.33	9.353	
직업	관리/전문직	104	28.65	8.765	.915
	사무/준전문직	121	28.05	9.447	
	판매/서비스직	93	28.44	9.591	
	생산/기능/노무직	151	28.03	9.192	
	무직	297	27.34	9.834	
	주부/학생	279	28.92	8.697	
	계	1,045	28.17	9.275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6.48	9.835	1.128
	100-199만원	134	27.90	10.289	
	200-299만원	167	28.29	9.509	
	300-399만원	199	28.41	9.855	
	400만원 이상	585	28.52	8.754	
	계	1,191	28.22	9.331	

* p<.05, ** p<.01, *** p<.001

3.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

〈부표 2-18〉 생애주기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5.89	11.572	-1.222
	여자	641	36.66	11.123	
	계	1,286	36.28	11.353	
연령	20대 이하	289	36.01	10.937	4.048**
	30대	247	37.46	11.101	
	40대	289	37.76	10.843	
	50대	211	35.62	11.212	
	60대 이상	248	34.29	12.471	
	계	1,284	36.29	11.35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3.82	12.572	6.582**
	고졸	359	35.66	11.819	
	대졸 이상	722	37.16	10.772	
	계	1,244	36.29	11.380	
직업	관리/전문직	104	36.61	11.365	.553
	사무/준전문직	121	36.02	11.108	
	판매/서비스직	93	36.08	11.441	
	생산/기능/노무직	151	35.71	12.656	
	무직	297	35.04	12.118	
	주부/학생	279	36.42	9.962	
	계	1,045	35.87	11.396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4.56	11.905	.813
	100-199만원	134	36.05	13.598	
	200-299만원	167	36.00	10.491	
	300-399만원	199	36.15	12.114	
	400만원 이상	585	36.66	10.534	
	계	1,191	36.23	11.303	

* p<.05, ** p<.01, *** p<.001

〈부표 2-19〉 생애주기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생애주기	에코세대	409	36.42	11.007	4.879**
	민주화탈냉전세대	416	37.69	10.906	
	베이비붐세대	193	35.62	11.515	
	산업화세대	266	34.38	12.192	
	계	1284	36.29	11.358	
대인신뢰	낮음	194	38.25	10.918	8.979***
	중간	682	36.81	11.229	
	높음	410	34.47	11.540	
	계	1,286	36.28	11.353	
대 기관신뢰	낮음	142	39.79	10.981	16.785***
	중간	1,059	36.14	11.073	
	높음	26	26.70	13.526	
	계	1,227	36.36	11.260	
정치정향	보수	397	34.72	11.476	9.227***
	중도	410	36.08	11.678	
	진보	421	38.07	10.585	
	계	1,228	36.32	11.323	
지지정당	없음	169	38.63	11.668	13.606***
	새누리당	564	33.85	11.263	
	민주당	423	37.76	10.907	
	통합진보당	47	40.62	10.418	
	진보정의당	16	42.86	10.204	
	계	1,219	36.25	11.383	
18대 대선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08	39.04	10.941	6.765***
	박근혜후보	575	34.46	11.280	
	계	1,083	36.61	11.350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40.22	10.942	38.538***
	중립	448	35.41	9.938	
	긍정적	412	33.57	12.061	
	계	1,243	36.28	11.314	

* p<.05, ** p<.01, *** p<.001

〈부표 2-20〉 생애주기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40.28	11.438	13.876***
	변동없을것	454	36.31	10.617	
	긍정적	625	35.27	11.541	
	계	1,257	36.36	11.315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40.12	10.788	21.476***
	변동없을것	345	35.91	11.412	
	긍정적	628	34.92	11.220	
	계	1,255	36.36	11.359	

* p<.05, ** p<.01, *** p<.001

〈부표 2-21〉 노후 불안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7.99	11.507	-1.264
	여자	641	38.78	11.046	
	계	1,286	38.38	11.282	
연령	20대 이하	289	38.04	10.847	3.806**
	30대	247	39.52	11.066	
	40대	289	39.85	10.814	
	50대	211	37.78	11.169	
	60대 이상	248	36.51	12.346	
	계	1,284	38.39	11.28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6.11	12.466	5.755**
	고졸	359	37.80	11.779	
	대졸 이상	722	39.21	10.722	
	계	1,244	38.40	11.31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8.65	11.263	.526
	사무/준전문직	121	38.11	11.078	
	판매/서비스직	93	38.25	11.393	
	생산/기능/노무직	151	37.81	12.616	
	무직	297	37.15	11.981	
	주부/학생	279	38.49	9.911	
	계	1,045	37.96	11.31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6.85	11.661	.633
	100-199만원	134	38.27	13.501	
	200-299만원	167	38.12	10.486	
	300-399만원	199	38.26	12.077	
	400만원 이상	585	38.70	10.468	
	계	1,191	38.33	11.226	

* p<.05, ** p<.01, *** p<.001

〈부표 2-22〉 가족 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0.83	9.938	-1.154
	여자	641	31.46	9.561	
	계	1,286	31.14	9.753	
연령	20대 이하	289	30.96	9.425	4.203**
	30대	247	32.19	9.515	
	40대	289	32.41	9.281	
	50대	211	30.56	9.617	
	60대 이상	248	29.38	10.738	
	계	1,284	31.15	9.75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28.88	10.819	7.465**
	고졸	359	30.59	10.119	
	대졸 이상	722	31.95	9.248	
	계	1,244	31.15	9.772	
직업	관리/전문직	104	31.52	9.824	.604
	사무/준전문직	121	30.95	9.525	
	판매/서비스직	93	30.92	9.819	
	생산/기능/노무직	151	30.63	10.845	
	무직	297	30.07	10.439	
	주부/학생	279	31.31	8.554	
	계	1,045	30.80	9.79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9.51	10.336	1.020
	100-199만원	134	30.86	11.706	
	200-299만원	167	30.92	8.945	
	300-399만원	199	31.02	10.346	
	400만원 이상	585	31.52	9.065	
	계	1,191	31.10	9.714	

* p<.05, ** p<.01, *** p<.001

〈부표 2-23〉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2.05	10.475	-1.134
	여자	641	32.70	10.070	
	계	1,286	32.37	10.276	
연령	20대 이하	289	32.21	9.934	4.270**
	30대	247	33.48	10.035	
	40대	289	33.71	9.777	
	50대	211	31.75	10.130	
	60대 이상	248	30.49	11.304	
	계	1,284	32.38	10.2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29.96	11.389	7.702***
	고졸	359	31.78	10.654	
	대졸 이상	722	33.24	9.750	
	계	1,244	32.39	10.29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2.80	10.360	.626
	사무/준전문직	121	32.16	10.056	
	판매/서비스직	93	32.12	10.341	
	생산/기능/노무직	151	31.83	11.427	
	무직	297	31.24	11.000	
	주부/학생	279	32.56	9.013	
	계	1,045	32.02	10.327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64	10.879	1.070
	100-199만원	134	32.05	12.336	
	200-299만원	167	32.12	9.419	
	300-399만원	199	32.24	10.895	
	400만원 이상	585	32.79	9.556	
	계	1,191	32.33	10.236	

* p<.05, ** p<.01, *** p<.001

〈부표 2-24〉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6.21	11.227	-1.266
	여자	641	36.99	10.783	
	계	1,286	36.60	11.010	
연령	20대 이하	289	36.28	10.588	3.858**
	30대	247	37.71	10.788	
	40대	289	38.03	10.547	
	50대	211	35.99	10.893	
	60대 이상	248	34.75	12.065	
	계	1,284	36.61	11.01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4.35	12.175	5.861**
	고졸	359	36.02	11.492	
	대졸 이상	722	37.41	10.457	
	계	1,244	36.61	11.042	
직업	관리/전문직	104	36.86	10.986	.522
	사무/준전문직	121	36.34	10.793	
	판매/서비스직	93	36.46	11.112	
	생산/기능/노무직	151	36.05	12.303	
	무직	297	35.39	11.710	
	주부/학생	279	36.70	9.670	
	계	1,045	36.19	11.046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5.08	11.425	.658
	100-199만원	134	36.47	13.173	
	200-299만원	167	36.34	10.227	
	300-399만원	199	36.48	11.786	
	400만원 이상	585	36.91	10.212	
	계	1,191	36.54	10.957	

* p<.05, ** p<.01, *** p<.001

4.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

〈부표 2-25〉 사회생활 관련 KSRI - 전체(사회 · 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6.66	12.189	-3.563***
	여자	640	39.05	11.794	
	계	1,284	37.85	12.048	
연령	20대 이하	289	39.58	11.936	13.998***
	30대	247	39.51	11.868	
	40대	288	39.39	11.184	
	50대	210	36.97	13.032	
	60대 이상	248	33.17	11.238	
	계	1,282	37.86	12.05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3.86	12.076	13.408***
	고졸	359	37.80	12.226	
	대졸 이상	720	39.18	11.700	
	계	1,242	38.08	12.022	
직업	관리/전문직	104	38.33	11.719	4.779***
	사무/준전문직	120	36.77	12.950	
	판매/서비스직	92	39.77	12.807	
	생산/기능/노무직	151	36.92	14.033	
	무직	297	35.43	12.004	
	주부/학생	279	39.86	10.130	
	계	1,043	37.66	12.125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3.77	11.752	3.872**
	100-199만원	134	36.29	14.068	
	200-299만원	167	38.48	11.216	
	300-399만원	199	37.96	11.934	
	400만원 이상	583	38.26	11.570	
	계	1,189	37.62	11.963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2-26〉 사회생활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사회생활	에코세대	409	39.21	11.841	17.738***
	민주화탈냉전세대	415	39.77	11.455	
	베이비붐세대	192	36.82	13.375	
	산업화세대	266	33.54	11.152	
	계	1282	37.86	12.053	
대인신뢰	낮음	194	41.21	11.313	14.262***
	중간	681	38.15	12.029	
	높음	409	35.75	12.034	
	계	1,284	37.85	12.048	
대 기관신뢰	낮음	142	41.50	11.254	17.796***
	중간	1,058	37.51	11.752	
	높음	26	27.27	13.787	
	계	1,226	37.76	11.901	
정치정향	보수	397	36.70	12.498	5.205***
	중도	410	37.48	12.157	
	진보	419	39.33	11.270	
	계	1,226	37.86	12.016	
지지정당	없음	169	39.65	12.281	10.081***
	새누리당	563	35.39	11.904	
	민주당	423	39.52	11.830	
	통합진보당	47	40.30	8.921	
	진보정의당	15	41.86	10.337	
	계	1,217	37.69	11.990	
18대 대선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07	40.48	11.662	6.271***
	박근혜후보	574	35.95	12.018	
	계	1,081	38.07	12.061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2	41.93	11.486	39.410***
	중립	447	37.33	10.855	
	긍정적	412	34.64	12.650	
	계	1,241	37.85	12.026	

* p<.05, ** p<.01, *** p<.001

〈부표 2-27〉 사회생활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41.97	12.449	14.676***
	변동없을것	454	38.39	11.310	
	긍정적	623	36.56	12.173	
	계	1,255	37.99	12.038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1	40.61	11.772	10.846***
	변동없을것	345	38.07	11.664	
	긍정적	627	36.61	12.272	
	계	1,253	37.91	12.090	

* p<.05, ** p<.01, *** p<.001

〈부표 2-28〉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6.30	11.687	-3.515***
	여자	640	38.55	11.322	
	계	1,284	37.42	11.557	
연령	20대 이하	289	39.11	11.418	14.351***
	30대	247	39.03	11.400	
	40대	288	38.90	10.716	
	50대	210	36.60	12.498	
	60대 이상	248	32.87	10.790	
	계	1,282	37.43	11.56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3.55	11.611	13.744***
	고졸	359	37.37	11.717	
	대졸 이상	720	38.72	11.218	
	계	1,242	37.65	11.533	
직업	관리/전문직	104	37.88	11.189	4.824***
	사무/준전문직	120	36.42	12.384	
	판매/서비스직	92	39.26	12.310	
	생산/기능/노무직	151	36.52	13.481	
	무직	297	35.08	11.519	
	주부/학생	279	39.34	9.706	
	계	1,043	37.23	11.627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3.49	11.249	3.904**
	100-199만원	134	35.92	13.559	
	200-299만원	167	38.02	10.736	
	300-399만원	199	37.51	11.420	
	400만원 이상	583	37.82	11.099	
	계	1,189	37.20	11.475	

* p<.05, ** p<.01, *** p<.001

〈부표 2-29〉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3.83	11.219	-3.579***
	여자	640	36.04	10.842	
	계	1,284	34.93	11.083	
연령	20대 이하	289	36.49	11.006	13.592***
	30대	247	36.44	10.917	
	40대	288	36.35	10.297	
	50대	210	34.11	11.989	
	60대 이상	248	30.70	10.331	
	계	1,282	34.94	11.08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1.29	11.093	13.134***
	고졸	359	34.90	11.250	
	대졸 이상	720	36.14	10.772	
	계	1,242	35.14	11.061	
직업	관리/전문직	104	35.39	10.836	4.699***
	사무/준전문직	120	33.91	11.931	
	판매/서비스직	92	36.69	11.774	
	생산/기능/노무직	151	34.08	12.894	
	무직	297	32.74	11.032	
	주부/학생	279	36.77	9.339	
	계	1,043	34.76	11.15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1.22	10.839	3.804**
	100-199만원	134	33.49	12.890	
	200-299만원	167	35.51	10.323	
	300-399만원	199	35.04	10.992	
	400만원 이상	583	35.30	10.650	
	계	1,189	34.72	11.005	

* p<.05, ** p<.01, *** p<.001

〈부표 2-30〉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2.63	10.803	-3.568***
	여자	640	34.75	10.448	
	계	1,284	33.69	10.676	
연령	20대 이하	289	35.21	10.587	13.826***
	30대	247	35.15	10.518	
	40대	288	35.05	9.914	
	50대	210	32.90	11.548	
	60대 이상	248	29.57	9.955	
	계	1,282	33.69	10.68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0.16	10.695	13.300***
	고졸	359	33.65	10.834	
	대졸 이상	720	34.86	10.372	
	계	1,242	33.89	10.654	
직업	관리/전문직	104	34.12	10.407	4.744***
	사무/준전문직	120	32.72	11.482	
	판매/서비스직	92	35.38	11.347	
	생산/기능/노무직	151	32.86	12.430	
	무직	297	31.56	10.632	
	주부/학생	279	35.46	8.985	
	계	1,043	33.52	10.746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09	10.425	3.841**
	100-199만원	134	32.30	12.446	
	200-299만원	167	34.24	9.940	
	300-399만원	199	33.79	10.580	
	400만원 이상	583	34.05	10.256	
	계	1,189	33.48	10.601	

* p<.05, ** p<.01, *** p<.001

〈부표 2-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7.39	11.668	-3.477**
	여자	640	39.62	11.310	
	계	1,284	38.50	11.541	
연령	20대 이하	289	40.20	11.390	14.385***
	30대	247	40.09	11.399	
	40대	288	39.98	10.694	
	50대	210	37.69	12.478	
	60대 이상	248	33.95	10.780	
	계	1,282	38.51	11.5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4.62	11.601	13.895***
	고졸	359	38.45	11.694	
	대졸 이상	720	39.80	11.202	
	계	1,242	38.73	11.516	
직업	관리/전문직	104	38.98	11.167	4.807***
	사무/준전문직	120	37.52	12.348	
	판매/서비스직	92	40.33	12.304	
	생산/기능/노무직	151	37.60	13.465	
	무직	297	36.16	11.504	
	주부/학생	279	40.41	9.693	
	계	1,043	38.31	11.609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4.58	11.226	3.895**
	100-199만원	134	36.99	13.565	
	200-299만원	167	39.10	10.698	
	300-399만원	199	38.58	11.387	
	400만원 이상	583	38.90	11.088	
	계	1,189	38.28	11.458	

* p<.05, ** p<.01, *** p<.001

5.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

〈부표 2-32〉 경제생활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9.71	12.650	-1.492
	여자	641	40.72	11.724	
	계	1,286	40.21	12.203	
연령	20대 이하	289	39.54	11.737	12.901***
	30대	247	42.51	11.615	
	40대	289	42.44	11.436	
	50대	211	40.49	12.768	
	60대 이상	248	35.94	12.574	
	계	1,284	40.23	12.20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6.70	12.881	9.326***
	고졸	359	40.22	12.397	
	대졸 이상	722	41.24	11.836	
	계	1,244	40.35	12.221	
직업	관리/전문직	104	41.34	11.303	1.449
	사무/준전문직	121	39.12	13.026	
	판매/서비스직	93	41.35	11.879	
	생산/기능/노무직	151	39.25	12.953	
	무직	297	38.61	12.604	
	주부/학생	279	40.30	10.774	
	계	1,045	39.73	12.067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8.03	12.327	.889
	100-199만원	134	39.94	14.617	
	200-299만원	167	40.09	11.611	
	300-399만원	199	40.31	12.380	
	400만원 이상	585	40.41	11.493	
	계	1,191	40.08	12.118	

* p<.05, ** p<.01, *** p<.001

〈부표 2-33〉 경제생활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경제생활	에코세대	409	40.03	11.734	15.345***
	민주화탈냉전세대	416	42.84	11.442	
	베이비붐세대	193	40.20	12.968	
	산업화세대	266	36.46	12.557	
	계	1284	40.23	12.208	
대인신뢰	낮음	194	43.29	12.050	14.514***
	중간	682	40.73	11.929	
	높음	410	37.89	12.332	
	계	1,286	40.21	12.203	
대 기관신뢰	낮음	142	44.12	12.408	19.997***
	중간	1,059	39.96	11.691	
	높음	26	28.83	14.413	
	계	1,227	40.21	12.019	
정치정향	보수	397	38.60	12.556	9.065***
	중도	410	40.03	12.320	
	진보	421	42.18	11.540	
	계	1,228	40.30	12.216	
지지정당	없음	169	42.31	12.415	13.823***
	새누리당	564	37.74	11.962	
	민주당	423	41.66	11.807	
	통합진보당	47	44.76	11.427	
	진보정의당	16	50.94	10.236	
	계	1,219	40.18	12.181	
18대 대선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08	43.07	12.026	6.707***
	박근혜후보	575	38.17	11.967	
	계	1,083	40.47	12.236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44.91	12.271	54.005***
	중립	448	40.04	10.563	
	긍정적	412	36.29	12.322	
	계	1,243	40.30	12.191	

* p<.05, ** p<.01, *** p<.001

〈부표 2-34〉 경제생활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44.43	12.643	16.539***
	변동없을것	454	40.97	11.761	
	긍정적	625	38.73	12.043	
	계	1,257	40.34	12.177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45.42	11.981	39.965***
	변동없을것	345	40.74	11.954	
	긍정적	628	37.83	11.804	
	계	1,255	40.33	12.249	

* p<.05, ** p<.01, *** p<.001

〈부표 2-35〉 실업 및 빈곤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6.18	11.460	-1.507
	여자	641	37.11	10.628	
	계	1,286	36.64	11.059	
연령	20대 이하	289	35.98	10.650	12.614***
	30대	247	38.72	10.549	
	40대	289	38.66	10.361	
	50대	211	36.89	11.555	
	60대 이상	248	32.85	11.393	
	계	1,284	36.65	11.06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3.49	11.662	9.185***
	고졸	359	36.61	11.230	
	대졸 이상	722	37.57	10.736	
	계	1,244	36.76	11.07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7.75	10.307	1.433
	사무/준전문직	121	35.65	11.815	
	판매/서비스직	93	37.66	10.740	
	생산/기능/노무직	151	35.75	11.700	
	무직	297	35.24	11.440	
	주부/학생	279	36.70	9.765	
	계	1,045	36.22	10.940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4.66	11.176	.915
	100-199만원	134	36.36	13.232	
	200-299만원	167	36.48	10.506	
	300-399만원	199	36.71	11.229	
	400만원 이상	585	36.85	10.425	
	계	1,191	36.53	10.985	

* p<.05, ** p<.01, *** p<.001

〈부표 2-36〉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8.40	11.879	-1.460
	여자	641	39.33	11.012	
	계	1,286	38.86	11.460	
연령	20대 이하	289	38.23	11.031	12.886***
	30대	247	41.02	10.908	
	40대	289	40.96	10.739	
	50대	211	39.12	11.993	
	60대 이상	248	34.86	11.796	
	계	1,284	38.88	11.4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5.56	12.085	9.356***
	고졸	359	38.87	11.645	
	대졸 이상	722	39.83	11.117	
	계	1,244	38.99	11.47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9.92	10.606	1.434
	사무/준전문직	121	37.85	12.228	
	판매/서비스직	93	39.91	11.170	
	생산/기능/노무직	151	37.95	12.166	
	무직	297	37.36	11.830	
	주부/학생	279	38.94	10.126	
	계	1,045	38.41	11.332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6.82	11.565	.880
	100-199만원	134	38.62	13.727	
	200-299만원	167	38.75	10.910	
	300-399만원	199	38.96	11.628	
	400만원 이상	585	39.04	10.791	
	계	1,191	38.74	11.379	

* p<.05, ** p<.01, *** p<.001

〈부표 2-37〉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확률폭등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7.77	11.825	-1.460
	여자	641	38.70	10.958	
	계	1,286	38.24	11.406	
연령	20대 이하	289	37.63	10.971	13.017***
	30대	247	40.38	10.843	
	40대	289	40.32	10.689	
	50대	211	38.49	11.939	
	60대 이상	248	34.21	11.747	
	계	1,284	38.25	11.41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4.93	12.037	9.416***
	고졸	359	38.26	11.592	
	대졸 이상	722	39.19	11.058	
	계	1,244	38.37	11.422	
직업	관리/전문직	104	39.24	10.528	1.447
	사무/준전문직	121	37.22	12.164	
	판매/서비스직	93	39.29	11.121	
	생산/기능/노무직	151	37.34	12.128	
	무직	297	36.72	11.769	
	주부/학생	279	38.32	10.076	
	계	1,045	37.78	11.276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6.20	11.517	.876
	100-199만원	134	38.01	13.666	
	200-299만원	167	38.14	10.862	
	300-399만원	199	38.34	11.562	
	400만원 이상	585	38.40	10.737	
	계	1,191	38.11	11.324	

* p<.05, ** p<.01, *** p<.001

〈부표 2-38〉 경기침체 및 저성장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9.23	12.089	-1.430
	여자	641	40.16	11.201	
	계	1,286	39.70	11.660	
연령	20대 이하	289	39.10	11.220	13.097***
	30대	247	41.89	11.075	
	40대	289	41.84	10.927	
	50대	211	39.96	12.207	
	60대 이상	248	35.56	12.006	
	계	1,284	39.71	11.6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6.30	12.303	9.491***
	고졸	359	39.73	11.855	
	대졸 이상	722	40.68	11.301	
	계	1,244	39.83	11.676	
직업	관리/전문직	104	40.70	10.734	1.446
	사무/준전문직	121	38.67	12.424	
	판매/서비스직	93	40.76	11.381	
	생산/기능/노무직	151	38.78	12.417	
	무직	297	38.13	12.023	
	주부/학생	279	39.80	10.306	
	계	1,045	39.22	11.526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7.61	11.775	.869
	100-199만원	134	39.49	13.971	
	200-299만원	167	39.62	11.112	
	300-399만원	199	39.81	11.810	
	400만원 이상	585	39.86	10.975	
	계	1,191	39.57	11.575	

* p<.05, ** p<.01, *** p<.001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

〈부표 2-39〉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5.63	12.884	- .865
	여자	641	36.24	12.153	
	계	1,286	35.94	12.524	
연령	20대 이하	289	35.42	11.118	12.935***
	30대	247	37.65	12.633	
	40대	289	39.33	12.381	
	50대	211	34.20	12.608	
	60대 이상	248	32.42	12.905	
	계	1,284	35.95	12.5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3.01	12.368	7.692***
	고졸	359	35.76	12.787	
	대졸 이상	722	37.12	12.089	
	계	1,244	36.19	12.397	
직업	관리/전문직	104	38.83	12.181	3.241**
	사무/준전문직	121	35.47	12.484	
	판매/서비스직	93	37.44	11.036	
	생산/기능/노무직	151	34.97	13.395	
	무직	297	33.89	13.056	
	주부/학생	279	36.24	11.042	
	계	1,045	35.66	12.337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3.76	13.928	1.941
	100-199만원	134	33.77	14.088	
	200-299만원	167	35.97	12.218	
	300-399만원	199	35.81	12.463	
	400만원 이상	585	36.41	11.840	
	계	1,191	35.72	12.481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2-40〉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정치 및 대외관계	एको세대	409	35.67	11.437	18.335***
	민주화탈냉전세대	416	39.21	12.542	
	베이비붐세대	193	34.42	12.943	
	산업화세대	266	32.38	12.625	
	계	1284	35.95	12.527	
대인신뢰	낮음	194	38.01	13.095	10.251***
	중간	682	36.66	12.636	
	높음	410	33.74	11.758	
	계	1,286	35.94	12.524	
대 기관신뢰	낮음	142	40.27	13.620	14.628***
	중간	1,059	35.48	11.965	
	높음	26	28.44	13.097	
	계	1,227	35.89	12.326	
정치정향	보수	397	34.08	13.028	9.397***
	중도	410	35.93	12.215	
	진보	421	37.87	12.248	
	계	1,228	36.00	12.580	
지지정당	없음	169	37.67	13.259	18.567***
	새누리당	564	32.96	12.075	
	민주당	423	37.75	11.943	
	통합진보당	47	40.16	11.710	
	진보정의당	16	50.30	10.445	
	계	1,219	35.78	12.515	
18대 대선 투<부표 후보	문재인후보	508	39.02	12.545	7.157***
	박근혜후보	575	33.61	12.329	
	계	1,083	36.15	12.716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40.24	13.011	53.079***
	중립	448	36.40	10.404	
	긍정적	412	31.49	12.695	
	계	1,243	35.95	12.519	

* p<.05, ** p<.01, *** p<.001

〈부표 2-41〉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8	39.96	13.203	15.218***
	변동없을것	454	36.73	11.981	
	긍정적	625	34.37	12.498	
	계	1,257	36.01	12.557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40.05	13.489	23.052***
	변동없을것	345	36.26	11.832	
	긍정적	628	34.05	12.129	
	계	1,255	36.00	12.584	

* p<.05, ** p<.01, *** p<.001

〈부표 2-42〉 북한의 위협(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5.25	11.486	-.748
	여자	641	35.72	10.838	
	계	1,286	35.48	11.166	
연령	20대 이하	289	35.03	9.939	12.455***
	30대	247	36.96	11.292	
	40대	289	38.47	11.026	
	50대	211	33.95	11.240	
	60대 이상	248	32.42	11.506	
	계	1,284	35.49	11.16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2.87	11.012	7.668***
	고졸	359	35.34	11.397	
	대졸 이상	722	36.53	10.780	
	계	1,244	35.71	11.050	
직업	관리/전문직	104	38.04	10.827	3.103**
	사무/준전문직	121	35.07	11.117	
	판매/서비스직	93	36.77	9.816	
	생산/기능/노무직	151	34.60	11.963	
	무직	297	33.72	11.662	
	주부/학생	279	35.75	9.834	
	계	1,045	35.25	10.996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3.60	12.438	1.836
	100-199만원	134	33.61	12.591	
	200-299만원	167	35.49	10.886	
	300-399만원	199	35.39	11.108	
	400만원 이상	585	35.90	10.558	
	계	1,191	35.30	11.131	

* p<.05, ** p<.01, *** p<.001

〈부표 2-43〉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4.48	12.526	-0.855
	여자	641	35.06	11.816	
	계	1,286	34.77	12.176	
연령	20대 이하	289	34.27	10.808	12.892***
	30대	247	36.43	12.284	
	40대	289	38.06	12.032	
	50대	211	33.10	12.264	
	60대 이상	248	31.34	12.549	
	계	1,284	34.78	12.17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1.90	12.025	7.789***
	고졸	359	34.60	12.443	
	대졸 이상	722	35.92	11.745	
	계	1,244	35.02	12.052	
직업	관리/전문직	104	37.59	11.829	3.247**
	사무/준전문직	121	34.33	12.120	
	판매/서비스직	93	36.21	10.732	
	생산/기능/노무직	151	33.82	13.027	
	무직	297	32.77	12.700	
	주부/학생	279	35.06	10.732	
소득	계	1,045	34.50	11.993	1.935
	100만원 미만	106	32.65	13.529	
	100-199만원	134	32.68	13.701	
	200-299만원	167	34.79	11.881	
	300-399만원	199	34.65	12.109	
	400만원 이상	585	35.23	11.512	
계		1,191	34.55	12.133	

* p<.05, ** p<.01, *** p<.001

〈부표 2-44〉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2.47	11.653	-0.875
	여자	641	33.02	10.991	
	계	1,286	32.75	11.327	
연령	20대 이하	289	32.27	10.057	12.975***
	30대	247	34.31	11.423	
	40대	289	35.82	11.202	
	50대	211	31.14	11.396	
	60대 이상	248	29.58	11.669	
	계	1,284	32.76	11.33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0.12	11.187	7.575**
	고졸	359	32.58	11.554	
	대졸 이상	722	33.81	10.942	
	계	1,244	32.97	11.213	
직업	관리/전문직	104	35.37	11.032	3.229**
	사무/준전문직	121	32.31	11.309	
	판매/서비스직	93	34.12	9.978	
	생산/기능/노무직	151	31.89	12.111	
	무직	297	30.90	11.802	
	주부/학생	279	33.02	9.991	
	계	1,045	32.50	11.159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0.79	12.612	1.946
	100-199만원	134	30.78	12.737	
	200-299만원	167	32.78	11.047	
	300-399만원	199	32.63	11.282	
	400만원 이상	585	33.18	10.707	
	계	1,191	32.55	11.290	

* p<.05, ** p<.01, *** p<.001

〈부표 2-45〉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5	35.27	12.775	-.849
	여자	641	35.86	12.049	
	계	1,286	35.56	12.417	
연령	20대 이하	289	35.06	11.021	12.856***
	30대	247	37.26	12.528	
	40대	289	38.91	12.271	
	50대	211	33.87	12.507	
	60대 이상	248	32.07	12.800	
	계	1,284	35.58	12.42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2.63	12.264	7.791***
	고졸	359	35.40	12.689	
	대졸 이상	722	36.74	11.976	
	계	1,244	35.82	12.290	
직업	관리/전문직	104	38.43	12.050	3.249**
	사무/준전문직	121	35.12	12.353	
	판매/서비스직	93	37.04	10.944	
	생산/기능/노무직	151	34.59	13.285	
	무직	297	33.53	12.957	
	주부/학생	279	35.86	10.940	
	계	1,045	35.29	12.229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3.40	13.798	1.931
	100-199만원	134	33.43	13.978	
	200-299만원	167	35.59	12.121	
	300-399만원	199	35.44	12.345	
	400만원 이상	585	36.03	11.738	
	계	1,191	35.34	12.373	

* p<.05, ** p<.01, *** p<.001

7. 환경 관련 위험지수

〈부표 2-46〉 환경 관련 KSRI - 전체(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8.85	14.175	-2.206*
	여자	640	40.57	13.861	
	계	1,284	39.71	14.040	
연령	20대 이하	289	36.61	13.279	9.967***
	30대	246	41.06	14.526	
	40대	288	43.07	13.969	
	50대	211	40.34	13.982	
	60대 이상	248	37.62	13.575	
	계	1,282	39.72	14.0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7.90	13.440	1.958
	고졸	358	40.29	14.159	
	대졸 이상	721	40.19	14.081	
	계	1,242	39.92	14.032	
직업	관리/전문직	104	43.03	14.533	1.868
	사무/준전문직	121	39.46	14.437	
	판매/서비스직	92	39.75	13.064	
	생산/기능/노무직	150	38.85	14.937	
	무직	297	38.24	14.043	
	주부/학생	279	39.07	13.484	
	계	1,043	39.30	14.071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6.41	13.477	1.981
	100-199만원	134	38.99	15.163	
	200-299만원	166	38.80	14.538	
	300-399만원	198	40.60	14.495	
	400만원 이상	585	40.05	13.420	
	계	1,189	39.53	13.994	

* p<.05, ** p<.01, *** p<.001

〈부표 2-47〉 환경 관련 KSRI - 세대, 신뢰, 정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환경	에코세대	408	37.24	13.613	15.205***
	민주화탈냉전세대	415	43.11	14.095	
	베이비붐세대	193	40.68	14.202	
	산업화세대	266	37.56	13.401	
	계	1282	39.72	14.045	
대인신뢰	낮음	194	40.80	13.220	8.442***
	중간	681	40.80	14.334	
	높음	409	37.37	13.664	
	계	1,284	39.71	14.040	
대 기관신뢰	낮음	141	41.72	15.223	6.900**
	중간	1,058	39.67	13.562	
	높음	26	30.82	15.163	
	계	1,225	39.72	13.863	
정치정향	보수	397	38.54	14.236	5.136**
	중도	408	39.37	13.891	
	진보	421	41.56	13.854	
	계	1,226	39.85	14.038	
지지정당	없음	169	41.66	15.397	4.569**
	새누리당	564	38.16	13.660	
	민주당	422	40.08	13.575	
	통합진보당	47	44.89	14.037	
	진보정의당	16	43.32	11.979	
	계	1,218	39.64	13.961	
18대 대선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07	41.83	14.063	3.782***
	박근혜후보	575	38.63	13.710	
	계	1,082	40.13	13.962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383	41.83	14.812	7.650***
	중립	447	39.65	13.247	
	긍정적	412	37.97	13.778	
	계	1,242	39.76	13.995	

〈부표 2-48〉 환경 관련 KSRI - 한국사회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한국 정치전망	부정적	177	41.70	15.275	1.973
	변동없을것	454	39.71	13.767	
	긍정적	624	39.35	13.797	
	계	1,255	39.81	14.014	
한국 경제전망	부정적	282	42.87	13.883	9.097***
	변동없을것	344	39.40	14.081	
	긍정적	627	38.64	13.992	
	계	1,253	39.80	14.082	

* p<.05, ** p<.01, *** p<.001

〈부표 2-49〉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7.90	13.352	-2.166*
	여자	640	39.50	13.066	
	계	1,284	38.70	13.229	
연령	20대 이하	289	35.77	12.512	9.937***
	30대	246	39.95	13.699	
	40대	288	41.87	13.166	
	50대	211	39.30	13.173	
	60대 이상	248	36.76	12.778	
	계	1,282	38.71	13.23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6.99	12.647	1.971
	고졸	358	39.25	13.336	
	대졸 이상	721	39.16	13.274	
	계	1,242	38.90	13.222	
직업	관리/전문직	104	41.82	13.687	1.859
	사무/준전문직	121	38.47	13.613	
	판매/서비스직	92	38.73	12.332	
	생산/기능/노무직	150	37.89	14.078	
	무직	297	37.32	13.221	
	주부/학생	279	38.09	12.709	
	계	1,043	38.32	13.25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5.62	12.685	1.957
	100-199만원	134	38.02	14.289	
	200-299만원	166	37.85	13.703	
	300-399만원	198	39.55	13.664	
	400만원 이상	585	39.02	12.650	
	계	1,189	38.53	13.188	

* p<.05, ** p<.01, *** p<.001

〈부표 2-50〉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7.77	13.261	-2.173*
	여자	640	39.36	12.976	
	계	1,284	38.56	13.139	
연령	20대 이하	289	35.66	12.402	9.922***
	30대	246	39.82	13.606	
	40대	288	41.70	13.082	
	50대	211	39.18	13.087	
	60대 이상	248	36.62	12.708	
	계	1,282	38.58	13.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6.87	12.598	1.969
	고졸	358	39.11	13.252	
	대졸 이상	721	39.02	13.169	
	계	1,242	38.76	13.130	
직업	관리/전문직	104	41.67	13.611	1.878
	사무/준전문직	121	38.37	13.502	
	판매/서비스직	92	38.58	12.225	
	생산/기능/노무직	150	37.78	13.972	
	무직	297	37.18	13.136	
	주부/학생	279	37.96	12.609	
	계	1,043	38.19	13.163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5.48	12.577	1.990
	100-199만원	134	37.90	14.220	
	200-299만원	166	37.70	13.588	
	300-399만원	198	39.42	13.541	
	400만원 이상	585	38.88	12.570	
	계	1,189	38.39	13.095	

* p<.05, ** p<.01, *** p<.001

〈부표 2-51〉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8.76	13.315	-2.155*
	여자	640	40.35	13.038	
	계	1,284	39.55	13.196	
연령	20대 이하	289	36.63	12.445	9.911***
	30대	246	40.81	13.670	
	40대	288	42.70	13.143	
	50대	211	40.18	13.146	
	60대 이상	248	37.61	12.767	
	계	1,282	39.57	13.20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7.84	12.660	1.981
	고졸	358	40.10	13.315	
	대졸 이상	721	40.01	13.221	
	계	1,242	39.75	13.187	
직업	관리/전문직	104	42.68	13.681	1.884
	사무/준전문직	121	39.38	13.557	
	판매/서비스직	92	39.56	12.282	
	생산/기능/노무직	150	38.77	14.026	
	무직	297	38.16	13.191	
	주부/학생	279	38.95	12.661	
	계	1,043	39.17	13.219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6.46	12.620	1.993
	100-199만원	134	38.89	14.294	
	200-299만원	166	38.68	13.632	
	300-399만원	198	40.43	13.591	
	400만원 이상	585	39.87	12.632	
	계	1,189	39.38	13.153	

* p<.05, ** p<.01, *** p<.001

〈부표 2-52〉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관련 KSRI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644	36.89	13.613	-2.219*
	여자	640	38.55	13.305	
	계	1,284	37.72	13.481	
연령	20대 이하	289	34.75	12.743	9.960***
	30대	246	39.01	13.945	
	40대	288	40.94	13.414	
	50대	211	38.33	13.427	
	60대 이상	248	35.70	13.042	
	계	1,282	37.73	13.48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35.98	12.922	1.950
	고졸	358	38.28	13.595	
	대졸 이상	721	38.18	13.515	
	계	1,242	37.92	13.473	
직업	관리/전문직	104	40.90	13.956	1.873
	사무/준전문직	121	37.48	13.854	
	판매/서비스직	92	37.75	12.531	
	생산/기능/노무직	150	36.90	14.341	
	무직	297	36.30	13.487	
	주부/학생	279	37.11	12.941	
	계	1,043	37.33	13.508	
소득	100만원 미만	106	34.53	12.935	1.995
	100-199만원	134	37.03	14.567	
	200-299만원	166	36.84	13.957	
	300-399만원	198	38.58	13.907	
	400만원 이상	585	38.04	12.885	
	계	1,189	37.54	13.43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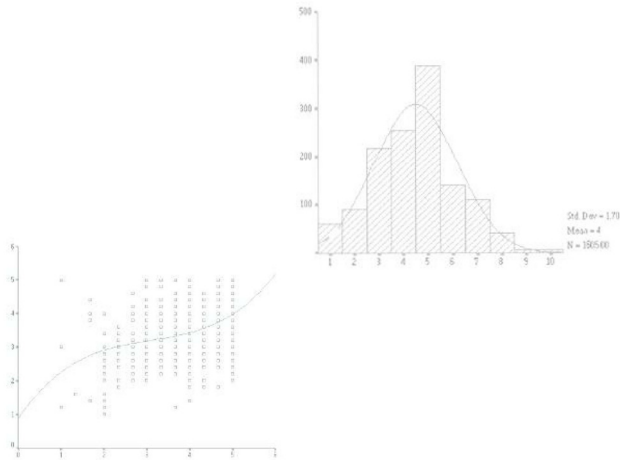
부록3.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설문지

조사구 번호 가구 번호

			-		
--	--	--	---	--	--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 [2013 KGSS]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2)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전화) 02-760-1270 (팩스) 02-744-6169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에서는 지난 2003년 이래 해마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되는 내용은 한국의 주요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와 전 세계 50개 국가들이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구 문제들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분들 가운데 한 분으로 뽑히셔서 저희 면접원이 찾아뵙게 되었으니 여쭙어 보는 대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이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센터장 김 상 욱 교수 율립

※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해당항에 V 표시 하 것)

1. 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남을 도우려고 한다 ___ ③ 경우에 따라 다르다
 ___ ② 자신만을 위한다 ___ ④ 모르겠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이용하려 들 것이다 ___ ③ 경우에 따라 다르다
 ___ ②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___ ④ 모르겠다
3.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카드		매우 신뢰	다소 신뢰	거의 신뢰하지 않음	모르겠다
프로빙	1) 대기업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2) 종교계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3) 교육계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4) 노동조합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5) 신문사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6) TV 방송국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7) 의료계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8) 중앙 정부 부처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9) 지방 자치 정부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0) 국회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1) 대법원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2) 학계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3) 군대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4) 금융기관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5) 청와대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6) 시민운동단체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17) 여론조사기관	___ ① ___	___ ② ___	___ ③ ___	___ ④ ___

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믿을 수 없다"에 0점을 주고, "매우 믿을 수 있다"에 10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보기 카드	매우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모르 겠다	
	___ 0점 ___	___ 1점 ___	___ 2점 ___	___ 3점 ___
	___ 4점 ___	___ 5점 ___	___ 6점 ___	___ 7점 ___
	___ 8점 ___	___ 9점 ___	___ 10점 ___	___ ④ ___

5.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보기 카드	___ ① 지원대상	___ ③ 경제대상	___ (8) 모르겠다	☐
	___ ② 협력대상	___ ④ 적대대상		

6. 귀하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보기 카드	___ ① 미국	___ ③ 북한	___ ⑤ 러시아
	___ ② 일본	___ ④ 중국	___ (8) 모르겠다

7.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_ ④ 모르겠다
___ ② 다소 필요하다	___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92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___ ②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___ ③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9.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혹은 멀게 느껴지십니까?

- ___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___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___ ③ 다소 멀게 느껴진다
___ ④ 매우 멀게 느껴진다

10.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현 정권이 국정운영을 어느 정도 잘하거나 또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잘하고 있다
___ ② 다소 잘하고 있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다소 잘못하고 있다
___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___ ⑥ 모르겠다

11.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
카드

- ___ ① 새누리당
___ ② 민주당
___ ③ 통합진보당
___ ④ 진보정의당
___ (66) 기타 (어느 정당: _____)
___ (77)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문항 11.1로 갈 것)
___ (88) 모르겠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11.1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당입니까?

보기
카드

- ___ ① 새누리당
___ ② 민주당
___ ③ 통합진보당
___ ④ 진보정의당
___ (66) 기타 (어느 정당: _____)
___ (77) 어느 정당도 선호하지 않음
___ (88) 모르겠다

12. 귀하는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 ___ ① 투표했다
___ ② 투표하지 않았다
___ (8) 모르겠다
___ (9) 투표권이 없었음
___ (문항 13으로 갈 것)

12.1 (투표했다면) 그 당시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보기
카드

- ___ 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___ ② 민주당 문재인 후보
___ ③ 무소속 강지원 후보
___ ④ 무소속 김순자 후보
___ ⑤ 무소속 김소연 후보
___ ⑥ 무소속 박종선 후보
___ (66) 기타 (어느 정당: _____)
___ (77)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음
___ (88) 모르겠다

13. 귀하는 앞으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 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카드

- ___ ① 새누리당
___ ② 민주당
___ ③ 통합진보당
___ ④ 진보정의당
___ (66) 기타 (어느 정당: _____)
___ (77) 어느 정당도 정권을 잡을 능력이 없음
___ (88) 모르겠다

14.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필

- ___ ① 매우 진보적
___ ② 다소 진보적
___ ③ 중도
___ ④ 다소 보수적
___ ⑤ 매우 보수적
___ (8) 모르겠다

15.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신뢰할 수 있다
___ ② 신뢰할 수 없다
___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___ (8) 모르겠다

16. 귀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 ④ 다소 불만족
☐ ② 다소 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 (8) 모르겠다

☐

17. 귀하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 ③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 (8) 모르겠다

☐

18. 귀하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을 앞으로 어느 정도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많이 줄여야 한다 ☐ ④ 다소 늘려야 한다
☐ ② 다소 줄여야 한다 ☐ ⑤ 많이 늘려야 한다
☐ ③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8) 모르겠다

프로빙

☐

19. 귀하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 ③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 (8) 모르겠다

☐

20. 귀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 ④ 약간 불만족
☐ ② 약간 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 (8) 모르겠다

☐

21.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최하층

최상층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22. 아시다시피, 노부모들이 성인자녀와 한집에 살기도 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 ☐ ① 좋다고 생각한다 ☐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 ② 안 좋다고 생각한다 ☐ (8) 모르겠다

☐

23.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을 때,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이 원할 경우 담당 의사가 고통 없는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허용되어야 한다 ☐ (8) 모르겠다
☐ ②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프로빙

☐

24.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 (8) 모르겠다

☐

25. 만일 귀하가 자녀를 한 명만 갖는다면,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

- ☐ ① 아들 ☐ ② 딸 ☐ (3) 상관없음

☐

26.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큰 도시 ☐ ④ 시골마을
☐ ② 큰 도시 주변 ☐ ⑤ 외딴 곳
☐ ③ 작은 도시 ☐ (8) 모르겠다

☐

27.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미사) 드리러 가십니까?

- ☐ (01) 일주일에 여러 번 ☐ (05) 일년에 한 번
☐ (02) 일주일에 한 번 ☐ (07) 일년에 한 번 미만
☐ (03) 한달에 두세 번 ☐ (08) 전혀 가지 않는다
☐ (04) 한달에 한 번 ☐ (09) 모르겠다
☐ (05) 일년에 몇 번

28.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 ☐ ① 불교 ☐ ④ 종교 없음(윤창 29호 같 것)
☐ ② 개신교 ☐ (77) 기타 (어느 종교: _____)
☐ ③ 천주교

28.1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 ① 강하다 ☐ ③ 별로 강하지 않다
☐ ② 다소 강하다 ☐ (8) 모르겠다

29. 귀하가 사는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걷게 될 경우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에 0점을 주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에 10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보기
카드

가능성이
전혀없다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점

가능성이
매우높다

30. 지난 몇 년 동안 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좋아졌다 ☐ ④ 다소 나빠졌다
☐ ② 다소 좋아졌다 ☐ ⑤ 상당히 나빠졌다
☐ ③ 차이가 거의 없다 ☐ (8) 모르겠다

31.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 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 (8) 모르겠다

32. 귀하는 한국의 노동조합활동이 어느 정도 온건 또는 강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온건하다 ☐ ④ 다소 강경하다
☐ ② 다소 온건하다 ☐ ⑤ 매우 강경하다
☐ ③ 온건하지도 강경하지도 않다 ☐ (8) 모르겠다

33.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좋다 ☐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 ④ 다소 나쁘다
☐ ② 다소 좋다 ☐ ⑤ 매우 나쁘다

34. 귀하는 한국 내 여론조사에 대한 다음의 각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보기
카드

전적 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상당히 반대	전적 으로 반대
----------------	-----------	----------	------------------	----------	-----------	----------------

- 1)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대부분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정치인들이 국민여론을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는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정치 지도자는 항상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5. 귀하는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카드	전적으로 옳지 않다	대부분 옳지 않다	때에 따라 옳지 않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1) 남녀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2)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3) 동성의 성인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동성애)	①	②	③	④

36. 다음의 각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 정도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카드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돈을 버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주된 이유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富)를 일구내는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3)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걸리지게 마련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옳고 그름이 더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요즈음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은 훈육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은 권위에 너무 자주 도전하는 문제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7) 심각한 계획을 하기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인생이 로또(복권)와 같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富)가 국가들마다 더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 나라에는 제화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카드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사람들은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지만, 감정이나 종교는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전반적으로 볼 때, 현대 과학은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현대과학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고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자살과 관련한 다음의 각 의견에 귀하가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롬트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경우 자살할 권리가 있다			
1)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경우	①	②	③
2) 파산했을 경우	①	②	③
3) 가족의 병예를 더럽혔을 경우	①	②	③
4) 사는 것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	①	②	③

※ 다음으로, 귀하의 가족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39. 귀하는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고, 친자녀 뿐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사망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전체 자녀수: _____ 명 _____ (OO) 없음

40. 귀하의 집에는 귀하를 포함해서 현재 모두 몇 분의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까? 취학, 취업, 입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동거 가족수: _____ 명

41. 취학, 취업, 입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 따로 살고 있습니까?

• 별거 가족수: _____ 명 _____ (OO) 없음

42. 가족은 아니지만 현재 귀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예: 친구, 이성 동반자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 같이 살고 있습니까?

• 가족 외 동거자: _____ 명 _____ (OO) 없음

프로필

43.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가족,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현재 귀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먼저 귀하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의 각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아래 보기쪽 보고 응답자택의 관계측 기입한 후에 성별, 나이, 혼인상태 등을 차례대로 질문하고, 원 문항 40, 41, 42에서 뺀 모든 사항들에 대해 빠짐없이 질문할 것)

- 1) 응답자와의 관계
- 2)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3) 이 분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 4) 이 분의 혼인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 5) 이 분은 지금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까? 잠시 동안 나가서 살고 있습니까?
- 6) (나가서 살고 있다면) 나가서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이 분은 지금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8) (일하고 있지 않다면) 일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구원 번호	1) 응답자와의 관계		2) 성별		3) 나이	4) 혼인상태		5) 동거 여부				7) 취업 여부			
	관계	보기 번호	① 남자	② 여자		상태	보기 번호	① 동거	② 비동거	6) 비동거 사유		① 취업	② 미취업	8) 미취업 사유	
										사유	보기 번호			사유	보기 번호
1	응답자	01			만 세			○							
2	배우자	02			만 세										
3					만 세										
4					만 세										
5					만 세										
6					만 세										
7					만 세										
8					만 세										
9					만 세										
10					만 세										

< 보기 >

1) 응답자와의 관계			4) 혼인상태	6) 비동거 사유	8) 미취업 사유
(01) 응답자	(11) 손자녀	(21) 부모의 형제/자매	① 기혼	(01) 학업미달	(11) 취업준비
(02) 배우자	(12) 손자녀의 배우자	(22) 친구	② 사별	(02) 취업	(12) 공부중
(03) 첫째 자녀	(13) 부모	(23) 학생	③ 이혼	(03) 임대	(13) 가사
(04) 둘째 자녀	(14) 배우자의 부모	(24) 가정부	④ 별거	(04) 응답자 취학	(14) 사업실패
(05) 셋째 자녀	(15) 형제/자매	(25) 이성동반자	⑤ 미혼	(05) 응답자 취업	(15) 취업생각 없음
(06) 넷째 자녀	(16) 배우자의 형제/자매	(26) 돌봐주는 사람	⑥ 동거	(77) 기타 (무엇: _____)	(16) 심신장애
(07) 다섯째 자녀	(17) 조부모	(77) 기타 (누구: _____)			(17) 종교적 이유
(08) 여섯째 자녀	(18) 조카				(18) 가족을 돌보기 위해
(09) 일곱째 자녀	(19) 사촌/외사촌				(19) 취업할 능력 없음
(10) 자녀의 배우자	(20) 형제/자매의 배우자				(20) 은퇴
					(77) 기타 (무엇: _____)
					(10) 정년퇴직

44. 귀댁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프로필

가구원 번호: _____

※ 이번에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받은 교육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4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00) 무학 ☐ (08) 서당, 한학	☐ (01) 초등(국민)학교 ☐ (02) 중학교 ☐ (03) 고등학교	☐ (04) 전문대학 (2·3년제) ☐ (05) 대학교 (4년제) ☐ (06) 대학원 (석사과정) ☐ (07) 대학원 (박사과정)	
	☐		
	45.1 귀하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① 졸업했다 ☐	☐ ② 중퇴했다 ☐ 45.2 몇 학년 때 중퇴 하셨습니다? _____ 학년	☐ ③ 재학 중이다 ☐ 45.3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46.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혹시 공업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 ① 그렇다 ➡ 졸업년도: _____년 ☐
☐ ② 아니다

47.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99) 배우자 없음 ☐ (00) 무학 ☐ (08) 서당, 한학	☐ (01) 초등(국민)학교 ☐ (02) 중학교 ☐ (03) 고등학교	☐ (04) 전문대학 (2·3년제) ☐ (05) 대학교 (4년제) ☐ (06) 대학원 (석사과정) ☐ (07) 대학원 (박사과정)	
	☐		
	47.1 배우자께서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① 졸업했다 ☐	☐ ② 중퇴했다 ☐ 47.2 몇 학년 때 중퇴 하셨습니다? _____ 학년	☐ ③ 재학 중이다 ☐ 47.3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48. 귀하의 아버님께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00) 무학 ☐ (08) 서당, 한학 ☐ (88) 모르겠다	☐ (01) 초등(국민)학교 ☐ (02) 중학교 ☐ (03) 고등학교	☐ (04) 전문대학 (2·3년제) ☐ (05) 대학교 (4년제) ☐ (06) 대학원 (석사과정) ☐ (07) 대학원 (박사과정)	
	☐		
	48.1 아버님께서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① 졸업했다 ☐	☐ ② 중퇴했다 ☐ 48.2 몇 학년 때 중퇴 하셨습니다? _____ 학년	☐ ③ 재학 중이다 ☐ 48.3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49.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00) 무학 ☐ (08) 서당, 한학 ☐ (88) 모르겠다	☐ (01) 초등(국민)학교 ☐ (02) 중학교 ☐ (03) 고등학교	☐ (04) 전문대학 (2·3년제) ☐ (05) 대학교 (4년제) ☐ (06) 대학원 (석사과정) ☐ (07) 대학원 (박사과정)	
	☐		
	49.1 어머니께서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① 졸업했다 ☐	☐ ② 중퇴했다 ☐ 49.2 몇 학년 때 중퇴 하셨습니다? _____ 학년	☐ ③ 재학 중이다 ☐ 49.3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 다음으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50. 현재 귀하하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0.1 누군가에 의해 고용되어 있습니까?		50.16 지난 1주일 동안 구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0.17 귀하는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해서 본인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대략 월평균 얼마입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항 50.18로 넘어감)
50.2 귀하가 하시는 일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상용직 ③ 일용직 ② 임시직	50.9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가족종사자입니까, 고용 없이 자영업을 하십니까,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하십니까? ① 무급가족종사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문항 50.9.1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원을 둔 사업주라면) 50.9.1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_____명	월평균 소득: _____만원 (보기 번호:) (88) 모르겠다
50.3 시간제로 일하십니까, 전일제로 일하십니까? ① 시간제 ② 전일제	50.10 시간제로 일하십니까, 전일제로 일하십니까? ① 시간제 ② 전일제	50.18 수입 있는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문항 50.19로 넘어감)
50.4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시간 _____ (888) 모르겠다	50.11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시간 _____ (888) 모르겠다	50.19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① 정부의 피고용인 ② 공공기관의 피고용인 ③ 사기업의 피고용인 ④ 공공기관의 피고용인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⑦ 고용원을 둔 사업주(문항 50.19.1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원을 둔 사업주라면) 50.19.1 몇 명을 고용했습니까? _____명 (8888) 모르겠다
50.5 귀하가 원하면 현 직장에서의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0.12 귀하는 이 일을 모두 얼마 동안 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50.20 그 일을 하셨을 때 귀하가 "직접" 관리, 감독한 부하직원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50.6 귀하의 현 직장은 정부, 공기업, 사기업, 공공기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부 ③ 사기업 ② 공기업 ④ 공공기관	50.8 귀하의 현 직장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나 지사는 제외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포함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_____명 (01) 1~4명 (06) 100~299명 (02) 5~9명 (07) 300~499명 (03) 10~19명 (08) 500~999명 (04) 20~49명 (09) 1,000명 이상 (05) 50~99명 (88) 모르겠다	50.21 그 일을 하는 동안 일주일 평균 몇 시간 일하셨습니까? _____시간 (888) 모르겠다
50.7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문항 50.7.1을 참조하십시오)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50.7.1 파가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50.13 귀하가 업무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하직원이 몇 명입니까? _____명 (부하직원이 없다면 50.14로 넘어감)	
50.14 이 직업에서 근로소득은 대략 월평균 얼마입니까? 세금공제 이전의 액수로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하십시오) 월평균 근로소득: _____만원 (보기 번호:) (88) 모르겠다	50.132 (부하직원이 있다면) 귀하가 업무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하직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8) 모르겠다	
50.15 위에서 말씀하신 소득 이외에 귀하의 기타 소득(기타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 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대략 월평균 얼마입니까? ① 있다 ② 없다(문항 51로 넘어감)	50.14 이 직업에서 근로소득은 대략 월평균 얼마입니까? 세금공제 이전의 액수로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하십시오) 월평균 근로소득: _____만원 (보기 번호:) (88) 모르겠다	
기타 월평균 소득: _____만원 (보기 번호:) (88) 모르겠다		

51. 귀하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1.1 산업 및 직종(직장명):	_____
51.2 직위:	_____
51.3 업무내용:	_____

五、

프로빙

• 월평균 가구 총소득: _____ 만원 (보기 번호: _____) (88) 모르겠다

300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안전 및 위험과 관련하여 조금 자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70. 귀하가 보시기에 아래와 같은 각 위험에 현재 한국 정부가 얼마나 잘 혹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카드	한국 정부는 ○○ 위험에	전혀 잘못 대처하고 있다	거의 잘못 대처하고 있다	별로 잘못 대처하고 있다	중립	다소 잘 대처하고 있다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	전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프로빙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1) 홍수 및 태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황사 및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 관련 위험							
	(5)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9) 노후 불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가족 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13)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17) 실업 및 빈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동 및 폭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21) 북한의 위험(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환경 관련 위험								
(25)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0.1 그렇다면, 위의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가 가장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는 위험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기 카드	① 자연재해 관련 위험	⑤ 경제생활 관련 위험	□
	② 건강 관련 위험	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③ 생애주기 관련 위험	⑦ 환경 관련 위험	
	④ 사회생활 관련 위험		

71.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한국사회는 아래의 각 위험에 어느 정도 취약하거나 혹은 취약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카드	한국사회는 ○○ 위험에	전적으로 취약하다	상당히 취약하다	다소 취약하다	중립	별로 취약하지 않다	거의 취약하지 않다	전혀 취약하지 않다
프로빙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1) 홍수 및 태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황사 및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 관련 위험							
	(5)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9) 노후 불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가족 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13) 사생활 침해(CCTV, 도청, 플래카메라 등에 의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인격제단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17) 실업 및 빈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동 및 폭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동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21) 북한의 위험(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환경 관련 위험								
(25)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1 그렇다면, 위의 여러 위험들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하다고 보시는 위험을 한 가지만 고르다면 어느 것입니까?

보기 카드	① 자연재해 관련 위험	⑤ 경제생활 관련 위험	□
	② 건강 관련 위험	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③ 생애주기 관련 위험	⑦ 환경 관련 위험	
	④ 사회생활 관련 위험		

302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72. 아래의 각 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카드	○○ 위험이 나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높다	상당히 높다	다소 높다	중립	별로 높지 않다	거의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
프로그 밍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1) 홍수 및 태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황사 및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 관련 위험							
	(5)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9) 노후 불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가족 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13)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인적제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17) 실업 및 빈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21) 북한의 위험(국제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환경 관련 위험								
(25)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1 그렇다면, 위의 여러 위험들 가운데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는 위험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보기 카드	___ ① 자연재해 관련 위험	___ ⑤ 경제생활 관련 위험	□
	___ ② 건강 관련 위험	___ 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___ ③ 생애주기 관련 위험	___ ⑦ 환경 관련 위험	
	___ ④ 사회생활 관련 위험		

73. 한국사회는 아래의 각 위험에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카드	한국사회는 ○○ 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다소 노출되어 있다	중립	별로 노출되어 있지않다	거의 노출되어 있지않다	전혀 노출되어 있지않다
프로그 밍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1) 홍수 및 태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황사 및 가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 관련 위험							
	(5)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9) 노후 불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가족 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13)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17) 실업 및 빈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21) 북한의 위험(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환경 관련 위험								
(25)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3.1 그렇다면, 위의 여러 위험들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는 위험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보기 카드	① 자연재해 관련 위험	⑤ 경제생활 관련 위험	☐
	② 건강 관련 위험	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③ 생애주기 관련 위험	⑦ 환경 관련 위험	
	④ 사회생활 관련 위험		